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전개와 사회변동

일시 / 1994년 6월10일(금)▷11일(토)

장소 / 전북은행강당

•주최 / 시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일보사

•주관 / 호남사회연구회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

•협찬 /  전북은행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일찌기 선조들이

우리역사에 피로써 아로새긴 반외세 반봉건이라는

빛나는 민족정신을 올곧게 계승하여 민족통일 국가

실현의 바탕으로 삼고자

1992년 6월13일에 창립된 순수민간 운동단체입니다.

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2년 앞두고 창립되어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음은 물론

그 백주년의 의의를 오늘에 되살리고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1994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맞아 '백주년 기념대회'를

비롯하여 '고부봉기 역사맞아굿' '기념무용제' '기념 연극제'

'기념학술제' '전주입성기념대회'등 다양한 학술, 문화,

예술행사를 기획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출판활동도 힘있게 벌여

동학농민혁명백주년 기념시선집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창작과비평사)와

학술논문집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한울 출판사),

전적지 답사안내서 '황토재에서 우금재까지'(도서출판 동남풍)등

세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펼쳐왔던 각종 사업들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반외세 반봉건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 교육관 건립'등을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66-8

전화 (0652) 252-8600

전송 (0652) 252-8599

호남사회연구회는 1987년 8월에 창립되었으며, 학제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사회의 제반 현실을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제반 문제를 비판적 아카데미즘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전북지역의 학술연구자들이 사회에의 지적봉사를 목적으로 모인 자발적 학술연구모임이 호남사회연구회입니다.

호남사회연구회는 창립 이래 매월 월례발표회를 개최해 왔으며, 해마다 1회 이상의 공개토론회를 열어왔습니다. 1993년 2학기에 전북민중화교수 협과 연합하여 “인론, 개혁의 대상인가 주체인가”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에는 「동학백주년 기념학술대회」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호남사회연구회가 여러 사업들을 꾸려오는 과정에서 학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며,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함에 있어서도 몇 분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전북법률가 모임
강만춘내과의원장
류제필변호사
진봉헌변호사

동학 농민혁명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우리것을 계승 발전 시키고
관련 학문의 연구, 진작에 관심을 기울이는
전북은행이 협찬하였습니다.

•협찬/  전북은행

학술대회 일정

주제: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제 1일 (1994년 6월 10일 금요일)

- * 제1부 학술발표 및 토론 : 14:00 - 18:20

14:00 - 16:00 : 동학농민전쟁과 지방사연구 박명규(서울대)
1894년 농민전쟁기 남원지방 농민군의 동향
박찬승(목포대)

토론 : 우윤(역사문제연구소)/최덕수(고려대)
사회 : 신순철(위광대)

16:20 - 18:20 :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신영우(충북대)
1894년 경상도지역의 농민전쟁 이윤갑(계명대)
토론 : 최윤희(충북대)/ 김준형(경상대)
사회 : 송정수(전북대)

- * 축하공연 : 18:30 - 19:00 -- 창작판소리 『동학농민전쟁사』 임진택
* 저녁만찬 : 19:00 - 20:00(전북은행 본점 21층 식당)

제2일 (1994년 6월 11일 토요일)

- * 제2부 학술발표 및 토론 : 09:00 - 11:00

09:00 - 11:00 :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박준성(역사학연구소)
 황해도 농민전쟁의 전개와 성격 송찬섭(국민대)
 토론 :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이진영(전북대)
 사회 : 박맹수(영산대)

- * 제3부 종합토론 : 11:10 - 13:00

주제 :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사회 : 신순철(위광대)

토론 : 최현식, 표영삼, 이이화, 박맹수, 신영우, 박명규, 이윤갑, 박준성, 송찬섭, 박찬승

목 차

동학농민전쟁과 지방사 연구

박명규(서울대)

1

1894년 농민전쟁기 남원지방 농민군의 동향

박 찬 승 (목포대)

17

충청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신 영 우 (충북대)

26

1894년의 경상도 지역의 농민전쟁

이 윤 갑(계명대)

34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53

황해도 농민전쟁의 전개와 성격

송 찬 섭(국민대)

58

동학농민전쟁과 지방사연구

박 명 규 (서울대)

1. 머리말
2. 방법론으로서의 '지방사' (local history)
3. '지방'의 성격: 분석단위의 문제
 - 1) 도별 분석
 - 2) 지대 구분
 - 3) 圈域구분
 - 4) 군현단위
4. 지방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 1) 농민전쟁의 시기별, 지역별 전개과정의 확인
 - 2) 향촌사회의 세력관계와 농민층
 - 3) 동학농민전쟁과 민족운동
5. 결론

1. 머리말

한 역사적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 못지 않게 그 사건이 전개된 지방의 특징을 밝혀야 한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환경은 꼭같이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공간적인 조건을 지나치게 단순한 것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다. 비록 시간만큼 다양하고 민감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라도 공간적 조건은 그 속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성격과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기는 것이다.¹⁾

이 글은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지방사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쓰여졌다. 동학농민전쟁은 한국근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동안의 여러 연구작업과 최근의 언론을 통한 대중화에 힘입어 이제 동학농민전쟁은 최소한 '동학란'이라는 평가는 벗었고 또 전라도

1) 물론 공간적 조건이라고 할 때 그것을 자연지리학적 의미에서의 공간적 위치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공간은 그 자체가 사회적, 역사적인 것 이어서 자연조건과 사회문화적 조건이 한데 결부되어 역사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농민전쟁 연구나 농민시 농민전쟁 연구가 뭐가 있나?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고부지역에 한정된 국지적 민란이었다는 제한된 시각도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고 생각된다. 동학농민전쟁은 한국근대사에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근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그 역사적 의의가 높이 평가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이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은 충분히 밝혀져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판변기록에 비교적 상세히 알려져 있는 지역별 전투상황이나 그 결과에 대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충실히 밝혀졌지만 동민군 지도부의 성격, 조직적 기반, 동원의 방식, 집강소체제, 정치경제적 지향 등등 가장 중요한 부분들 어느 것을 살펴봐도 여전히 논란과 이견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은 이제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지방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아가 농민전쟁 뿐 아니라 한국근현대 사회변동 자체가 지방적 차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사회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도, 일정한 지역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농민전쟁의 성격과 위상을 새롭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사적 연구가 축적될 때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보다 폭넓고 탄탄한 성격규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방법론으로서의 '지방사' (local history) 2)

지방사는 역사연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연구대상에 있어서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역사연구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가? 아니면 학문적인 역사연구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지역적 사실들의 나열 또는 애향심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인가? 간단히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지방사의 방법론적 특성과 의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방사는 우선 연구대상이 국가단위보다는 훨씬 작은 지역공동체 수준에 맞추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역사연구가 일단 개별국가를 단위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지방사는 일종의 부분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범위나 규모는 사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전근대 사회일수록 자연적인 생활공동체가 연구의 단위가 되는 경향이 있다. 촌락이나 군현이 지방사연구의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한국의 경우는 군현단위의 역사가 가장 대표적인 지방사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읍지』가 발간된 단위나 현재 『군지』가 발간되고 있는 단위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군현을 단위로 한 것이었다.

위의 특징과 관련된 것이지만 지방사에서는 일반역사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던 사건이나 인물이 보다 상세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 사건이나 인물이 속해있는 지역에서는 그렇다. 때로는 일반역사에서의 평가와는 상반된 평가를 지방사에서 내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지방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의 전통과 애향심, 신분적, 계급적 편견 등을 걸러낼 수 있을만큼의 학문적 훈련을 받지 못한데서 오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국가차원, 중앙중심의 역사해석이 지방수

2) local history는 지방사, 지역사 또는 향토사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향토사는 애환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지역사는 다른 국가에 대한 연구 또는 인근국가들간의 국가질서를 연구하는 area study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지방사로 통일하고자 한다.

준에서의 평가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데서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민중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관심은 지방사에서 보다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³⁾

그런데 대상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고 특정 지역의 사건과 인물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역사연구의 한 형태로서의 지방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사도 객관적인 역사가 되기 위하여는 학문적 객관성이 일차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학문적 객관성이란 엄밀한 사실성에 근거하면서 연구자의 자의나 편견을 가능한 한 통제하고 역사적 사실을 實事求是의로 설명하려는 태도에서 가능한 것이다.⁴⁾ 또한 지방사라고 해서 자기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하고 잡다한 일들에 대한 무비판적, 무원칙적, 단순나열적인 정리일 수는 없다. 지방사 역시 특정 지역내에서의 사건과 일들을 일정한 설명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인과성에 따라 정리하고 취사선택하며 차별적인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⁵⁾

이를 위해 지방사는 자기지방 이외의 인근지역에 대하여도 상당한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안된다. 아무리 지방의 단위가 문화적으로 독특한 단위로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영향과 변동의 과정에서 독자적인 단위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지방사는 그 지방이 속한 국가의 역사와 무관하게 이해될 수는 없다. 실제로 중앙의 변천과 무관하게 분절되어 있는 지방은 있을 수도 없다. 따라서 지방사회의 변동이나 사건의 전개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중앙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지방사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지방사의 중요성과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 지방사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인가?

① 먼저 지방사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의 매개부분을 밝혀주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 흔히 우리는 역사를 구조적 산물임과 동시에 인간행위의 산물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역사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적다. 즉 특정한 사건이나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구조적 상황, 구조적 모순이나 위기 등에 대한 한편의 서술과 그 사건을 주도하고 움직인 주체들에 대한 다른 한편의 서술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암묵적으로 '그런 구조하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연결을 전제할 뿐, 구조와 행위가 맞물리는 방식에 대하여는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학농민전쟁연구를 예로 들어 보자. 일반적으로 동학농민전쟁의 구조적 배경으로서 조세제도가 지닌 모순, 지주소작제에서 나타나는 계급적 갈등, 일본세력을 중심으로 가해지는 외래자본주의의 압력 등을 든다. 그러나 1890년대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과연 이러한 구조적 조건들이 어떻게 다수 사회성원들에게 작용하였는지, 그들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려 했는지, 당시의 민중들은 어떤 생

3) H.P.R.Finberg, *Local History: Objective and Pursuit*, (David and Charles, 1967), pp 5-7.

4) 물론 역사적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얼마만큼 통제될 수 있는가, 과연 역사에 대한 이해가 순수한 의미에서 가치중립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복잡하고 그 자체가 별도의 논의대상이 된다. 여기에서는 역사철학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상식적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바의 객관성, 편견의 통제를 말하는 것이다.

5) 오늘날 향토사의 이름으로 각 지방단위의 역사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군지나 도지류에 지방의 역사가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지역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려 한다거나, 전체사회 속에서의 비중이나 평가를 전혀 무시한채 자기 지역 또는 기술하는 주체에 유리한 단순한 이야기들을 나열한다거나 하는 형태들이 보인다. 향토사 또는 군지류의 사실정리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지방사로 정립되기 위하여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Finberg는 지방에 관련한 사실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며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가릴 수 있는 방법과 틀을 갖지 못한 채 지방적 사실들을 망라하려는 태도가 지방사를 그리는 가장 큰 요인이 라고 주장한다. H.P.R. Finberg, "The Local Historian and His Time", in H.P.R.Finberg, et al., *Local History: Objective and Pursuit*, (David and Charles, 1967), p 19.

같은 stana 같은 단계 22
같은 나로 만만 22

1980년대 지방사학자 '저항주제'에 대한 문제이다

각을 지니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대단히 미약한 실정인 것이다. 이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당연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구조적 모순과 압력의 증대는 민중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민중이 그 구조에 저항하려 할 것인지, 저항할 경우 그 목적과 의도는 어떠한지는 모두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 것이다.

지방사는 바로 이러한 매개고리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한된 공간속에서 주어진 조건과 인물들의 활동을 상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구조와 제도가 개개인의 행위와 의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의식이 어떻게 사건과 집단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거대이론'과 '미시적 조사'의 중간수준인 '중범위론'적 분석이 바로 이 지방사 연구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② 지방사가 지니는 두번째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역사를 '살아있는 인간의 활동'으로 보다 생생히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우리는 농민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보다도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의 유적이나 후손들을 만날 때 더욱 생생한 느낌을 지니게 된다. 여전히 과거 농민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후손을 만나거나, 당시의 대립과 갈등이 한세기가 지난 오늘의 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사건이 살아 생생하게 와닿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방사적인 연구, 연구의 범위와 수준이 미시적이면 미시적일수록 계급이나 신분이라는 구조적 변수 조차도 살아있는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口述資料, 개인의 삶에 대한 傳記자료 등 民俗誌의 자료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기록된 자료가 제한된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③ 세번째 의의로는 지방사연구를 통해 지역간 비교연구가 가능해 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비교연구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특징을 다른 지역과 대비하여 같은점과 다른점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을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역사연구에 있어서 '비교'를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실험'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비교연구는 역사학자들 보다는 사회과학자들에게 매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과학적인 역사해석을 위하여는 비교의 방식이 역사연구에 접맥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회과학자들의 비교연구는 주로 국가간 비교이다. 그러나 한 국가 내의 지방단위의 비교연구도 같은 의미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방사의 진전, 특히 특정주제와 관련한 지방사 연구의 축적은 그런 의미에서의 비교연구를 가능케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은 연구의 중심 비교연구가 의미있게 진행되다.

3. '지방'의 성격: 분석단위의 문제 : 비로서 가능해진다.

지방이라고 할 때 구체적인 단위는 무엇이 되는가? 분석단위의 설정은 단순한 연구자의 선택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19세기 후반 조선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향촌사회의 운영원리, 농민전쟁에서 나타나는 저항과 대응의 조직원리 등에 대한 일정한 판단이 전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단위의 설정은 엄밀하게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이론적 작업에 속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도별 분석

엄밀한 성격규정은 없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는 분류가 도별 구분이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의 도별구분은 지금까지도 일상적인 지방구분의 기본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도별 구분은 그 역사도 오래이고 그만큼 각 도에 따른 풍습과 관행의 차이까지 형성되고 있는만큼 구분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를 단위로 하여 지방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할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같은 도에 속한 지역 내부에 이질성과 차별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라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노령 산맥 북부와 남부가 다르고 서해안에 접한 평야지대와 소백산맥에 접한 산악지대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더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전국적인 상품유통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시대에 도단위의 사회적 통합성이 강력히 형성되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의 부과와 수납을 비롯한 지방행정단위로서의 도단위 통합성도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도단위 행정책임자였던 관찰사는 도전체를 행정적으로 직접 관할하였던 것이 아니라 군현의 행정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고 실제의 지방행정은 모두 군현단위의 지방수령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런데도 도단위의 특성은 곧잘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전라도가 왜 농민전쟁의 진원지가 되었는가라는 물음과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옥한 곡창지대라는 조건과 이에 결부된 지방관들의 가혹한 수탈성을 전라도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꼽고 있다. 일찍부터 부의 집중이 심화되어 지주제가 급속하게 진전되었고 豪強이라 불리었던 사대부들의 전횡이 두드러졌던 곳이라고 지적되었다. 또 일본인 상인들의 미곡매입을 비롯한 상품화폐경제의 확대를 그 특징으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이 전라도에서 나타난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곧 전라도라는 단위를 묶어주는 독특한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1862년의 농민항쟁은 경상도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그때 경상도의 특성을 설명할 때도 바로 이와 유사한 점들을 들수 있기 때문이다. 풍수론에 규정되어 입계된 정치적 배제와 그에 따른 저항의식을 들기도 하고 미륵신앙이 뿌리깊게 내려있었다는 종교적, 문화적 특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⁶⁾ 이런 형식의 도별 구분이 종합적으로 가능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도별 구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한국사회의 주요한 지방단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도별 구분이 지니는 의미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동학농민전쟁을 '전라도' 또는 '경상도' 단위로 살펴보는 것의 정확한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도별검토가 농민전쟁의 전국적 전개양상을 밝히려는 목적에 국한될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단위의 분석이 지니는 의미를 좀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지대 구분

6) 예컨대 송기숙, "한국설화에 나타난 민중혁명사상-선운사 미륵비결설화와 동학농민전쟁의 민중적 전개", 『미륵사상과 민중사상』, 한진출판사, 1988.

농민들의 생산과 삶의 형태를 규정하는 조건들 가운데 생태학적, 자연적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산악지대와 평야지대,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 열대지방과 온대지방, 해안가와 내륙지방 등 지리적, 생태학적 조건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이해하는 첫번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대구분은 일반적으로 발농사지대, 논농사지대 그리고 혼합지대의 유형으로 행해졌다.⁷⁾ 대체로 전라도는 논농사지대로 분류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다시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대략 서해안 쪽의 군현들, 옛날의 분류로 말하여 전라좌도에 해당하는 부안, 김제, 정읍, 고부, 영광, 영암 등지는 평야지대로 논농사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반면에 내륙의 군현들, 즉 전라우도에 속한 진안, 장수, 무주, 임실, 순창 등지는 경지비율이 낮고 발농사 비중이 높은 지대이다.

논농사지대라는 생태학적 조건은 곧 그에 따른 사회적 성격을 동반한다. 쌀이 가장 중요한 생산물이었고 따라서 논농사를 중심으로 지주소작관계가 발달해온 조선 후기 상황에서 직접생산자층에 대한 수탈성이 논농사지대에서 보다 강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수탈성은 두가지 형태로 가해졌다. 하나는 일반 민전에서 지주제였는데 호남지방의 지주제는 일찍부터 이롭던 것이었다. 다산은 호남의 농민층이 70% 이상 남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이고 지대와 농사비용을 제하면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게 수탈당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다. 다른 하나의 형태는 관둔전과 공방전을 통한 왕실 및 관의 수탈이었다. 호남지방은 논농사지대일 뿐 아니라 서울로의 조운이 비교적 편리한 곳이라는 점에서 각지에 많은 공방전과 관둔전이 산재해 있었고 이에 대한 관의 침착이 상당하였다. 부안, 고부, 정읍 등 전라좌도의 평야지대는 공방전 및 관둔전에서 각종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⁸⁾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곡의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심해졌던 것이다. 한마디로 전라좌도 지방이 농민층의 계급적 분화정도가 심하고 하층농민에 대한 지주 및 관의 수탈도 더욱 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논농사지대는 수리와 관련한 공동체적 결속과 질서가 강조된다. 특히 호남의 평야지대는 하상이 낮고 평야의 경사가 완만하며 강의 수량이 적어 언제나 물로 인한 재해에 취약하였다. 1876, 77년의 유명한 재해를 위시하여 호남일원이 항상적으로 겪었던 한해는 특히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좌도 일대에 극심한 피해를 안겨 주었다. 경지가 부족했던 19세기 후반에 광범위한 지역에 진황지가 생겨나고 정부가 그 개간을 독려하기 위해 군전사라는 특별관리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지역도 바로 이 지역과 일치한다. 군전으로 인한 갈등은 농민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서 농민저항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일본농민의 토지점탈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수리의 문제가 제기되고 수리조합방식을 통한 식민지개발을 꾀하였던 지역도 이 지역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는 생태학적인 지대구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런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분류되는 지대를 지방사연구의 주요한 단위로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다. 그러나 경제적 상태, 계급적 분화의 정도 등에

7) 이러한 구분이 지니는 과학적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이 인정식이었다. 그는 '우리는 확실히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이 지방적 諸變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각 지방의 농업의 제특징을 구명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분석의 계기로서 또는 분석의 일과정으로서 한국의 농업을 삼지대에 구분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쓰고 있다. 인정식, 「조선의 농업지대」, 양희수, 『한국농촌의 촌락구조』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20-21쪽.

8) 김웅섭, 「高宗朝 均田收騰의 問題」, 『증보판 한국근대농업사연구』 (일조각, 1987), 필자의 글,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배경」, 『한국근대농촌사회와 일본제국주의』 (문학과 지성사, 1986).

기초하여 지방적 특성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1960년대 한국사회를 토지경작 상황, 토지이용도, 계층적 분해정도, 상품화정도 등에 따라 세분하여 지대별 특성을 밝히려 했던 양희수의 연구방법이 19세기 상황에까지 소급할 수 있다면 대단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⁹⁾ 자료의 한계가 있었지만 지리적 조건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전혀 불가능할 것은 아닐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사회의 생태학적 조건에 따른 지대구분, 즉 시장상황 및 계층분화정도, 상품화의 진전정도에 따른 지방적 특성 그 자체가 곧바로 농민전쟁을 설명해주는 변수가 될 수는 없다. 유사한 조건에 있는 다른 지방에서는 또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3) 圈域구분

최근 동학농민전쟁의 연구에서 권역별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맹수교수는 동학농민전쟁의 연구와 관련하여 권역 단위의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¹⁰⁾ 그는 동학농민전쟁의 지역별 실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조선후기의 군현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동학조직의 지역별 결집범위와 장시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통혼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몇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즉 전라도는 전봉준 주도하에 들어있는 권역이외에 김개남 영향의 남원/운봉권, 손화중, 최경선, 오권선 등의 광주/나주권, 김인배, 유하덕 영향의 순천/광양권, 이방언, 이사경 등의 장흥/강진권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충청도의 경우는 목천/천안권, 예산/홍성/서산/당진/태안권, 충주/단양/제천권, 부여/한산/서천권, 청주/옥천/보은/영동/논산권, 회덕/진산권 등이 구분될 수 있다. 경상도의 경우도 상주/예천/김산권, 고성/진주/하동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권역은 대체로 동학농민군의 지도부가 형성된 범위를 중심으로, 농민군의 동원과 활동에 있어서 통일성이 보이는 지역을 구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영우교수도 경상도 북부지방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비슷한 권역구분을 행한 바 있다. 박찬승교수도 농민전쟁의 지역사례를 설명하면서 권역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즉 전라도 남부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손화중, 최경선의 세력권이라 할 광주/장성/나주권, 남원 김개남의 영향권에 속해있던 담양/옥과/구례권, 이방언의 영향력에 속해있던 장흥/강진/보성/해남권, 김인배의 세력권에 속한 순천/광양/승주권, 그리고 배상옥의 세력권이라 할 무안/함평권 등으로 권역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¹¹⁾

실제로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보면 이러한 권역별 움직임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권역의 구분이 농민군의 동원단위, 즉 동학지도부가 형성되어 농민군의 독자단위가 형성된 지역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 권역별 농민군은 집강소기나 특히 제2차 농민전쟁기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연대나 연합활동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각기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움직였다. 전투가 벌어진 지역의 양상이나 집강소 통치기의 양상 등은 권역별로 상당히 달랐던 것도 이러한 특징의 반영이었다고 볼 수 있다.

9) 양희수, 앞의 책.

10) 박맹수, "전라도는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인가",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와 백주년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주최 동학농민혁명 시민강좌 발표집, (1992.8), 38-40쪽.

11) 박찬승 외, "농민전쟁의 지역사례", 『1894년 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 한국역사연구회 주최 학술심포지움 (1994.5), 36-38쪽.

성남권은 3개 권역으로 나뉘었다. 9개 권역이 42개 권역에 나뉘었다. 32개 권역이 42개 권역에 나뉘었다.

전라도 남부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손화중, 최경선의 세력권이라 할 광주/장성/나주권, 남원 김개남의 영향권에 속해있던 담양/옥과/구례권, 이방언의 영향력에 속해있던 장흥/강진/보성/해남권, 김인배의 세력권에 속한 순천/광양/승주권, 그리고 배상옥의 세력권이라 할 무안/함평권 등으로 권역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권역별 검토는 농민전쟁의 지방사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시도라 생각된다. 권역별 검토를 통해 이 시기 농민군세력이 군현단위를 넘어서서 조직화될 수 있었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타지역 출신의 대접주들이 수개군현의 농민군을 통할하였다는 것, 예컨대 주로 전라도 북부지역 출신 대접주들이 전라도 남부일대 농민군을 지배하였던 것이나 하동/진주권은 금구출신 김인배의 통제를 받았던 것 등이 그렇다. 특히 영호대도소를 통해 영남과 호남의 농민군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권역을 기준으로 농민전쟁의 과정이나 특징들을 정리한 작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¹²⁾ 뿐만 아니라 권역이 지나치게 동학지도부의 형성과 그들의 역할이라는 점에 맞추어 분류됨으로써 농민군의 적극적 참여기제나 군현단위의 독자적인 문제들, 또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차이 등이 보다 엄밀하게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계속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군현단위

필자는 동학농민전쟁을 연구함에 있어서 지방사적 관심의 일차적 대상은 군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사회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가장 의미있는 지역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군현이라는 것, 다시 말하여 군현의 사회적,심리적 통합성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하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권력에 의해 통치되는 지방의 단위를 군현으로 설정하고 각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물론 이들의 권한은 봉건제도상의 봉건영주에 비할 수는 없는 제한적인 것이었고 그나마 왕권에 의해 임명되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방관의 지위가 불완전한 것과는 달리 군현이라는 단위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었다. 관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방행정은 군현을 官治와 관련한 사회적 단위로 결집시켰고 군현단위의 행정이 지속되면서 성원들간에 공통의 이해관심이나 의식이 형성되었다.¹³⁾

두번째로 군현의 사회적 통합성을 강화시켰던 것은 재지세력의 존재양식이다. 조선왕조시기 재지사족들은 군현단위로 일정한 정치세력화하여 존재하였고 향청을 통해 지방행정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군아의 향리층을 통제할 뿐 아니라 면리의 면리임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재지사족들은 군현단위로 설립되어 있는 향교의 주구성원으로서 향교를 중심으로 하는 신분적,이데올로기적 사회통제를 수행하였다.¹⁴⁾

세번째로는 농민사회의 주요 생활권의 최대치가 바로 군현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보통의 농민의 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거주하는 촌락공동체를 벗어나 타지역과 관련을 맺게되는 계기는 주로 행정적 필요와 경제적 요구로 인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통국가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농민층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부세의 부과와 징수가 기본적으로 군현을 단위로 이루어졌다.¹⁵⁾ 농민들의 정치적 저항이나

12) 이점에서 보면 전북일보사의 특별연재 『동학농민혁명』이 시도한 권역별 답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3) 송준호교수는 이를 官이 기본단위인 사회라고 부르고 이 말의 의미를 '남원이나 고창이나 또는 대구나 진주나 하는 지방행정구역이 정부 속에서 보더라도 관치기구의 기본단위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생활권이요 행동권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송준호,『남원지방을 예로 하여 본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구조와 성격』,『조선사회사연구』(일조각,1987),277쪽.

14) 일제 시기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한 사회학자의 조사보고에의하면 군현의 사회적 통합은 놀랄만큼 강력했으며 그 사회적 통합성의 가장 핵심적 매개는 향교나 서원들을 매개로 이루어진 유림들의 통합성이었다. 鈴木榮太郎,『韓國農村社會踏査記』, 25쪽.

15) 고석규는 조선조 향촌민에 대한 수탈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군현단위로 지방관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였다고 보고 이를 '守令-吏鄕 수탈구

爭訟의 일차적 대상기관도 역시 군현이었다. 장시체계의 경우는 군현단위를 넘어서까지 발달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역시 읍내장을 중심으로 인근의 여러 장시들이 연계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네번째로 농민전쟁의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농민층의 동원과 활동은 군현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농민들의 저항과 공격도 일차적으로는 지방관에게 집중되었다. 집강소개혁도 결국은 군현단위로 이루어졌는데 군현의 여건에 따라 집강소개혁의 강도와 형태가 달라졌던 것이다. 농민군이 해산당하고 패퇴하는 과정에서도 군현별로 그 모습이 달랐다. 장기적으로 농민전쟁이 남긴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군현단위의 차별성이 적지 않게 나타났던 것이다. 다소 시간적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제하의 농민운동 조직도 결국은 군현단위로 이루어졌던 것이 군현의 사회적 통합성을 반증해 준다.

물론 이상에서 본 각 단위는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도별분석이나 지대별 분석이 군현단위의 분석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권역별 검토는 상당부분 군현단위의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군현단위가 가장 실질적인 사회문화적 통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며 농민전쟁을 전후한 사회변동 과정에서도 군현단위로 이해될 측면들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현단위의 지방사가 보다 발전될 필요가 있다.

2118년

4. 지방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지방사연구가 단순히 전체사 연구를 보완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말한 바 있다. 지방사연구는 그 자체로 총체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독자적인 연구방법이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삶이 지방의 일정한 공간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 공간의 사회경제문화적 공통성이 강하게 존재할 때 지방사는 곧 당대민중의 생활사를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다.

1) 농민전쟁의 시기별, 지역별 전개과정의 확인

동학농민전쟁의 지방사 연구는 무엇보다도 농민전쟁의 지역적 전개양상을 충실하게 밝힘으로써 농민전쟁의 전국적 규모와 성격을 정확히 알게해 준다. 농민전쟁에 대한 일반론적인 검토만으로는 전과정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지방사 연구를 통해 지방에 따라 농민전쟁과의 연관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제1차 농민전쟁은 주로 전라도의 평야지대에서 전개되었고 전봉준군이 중심이 되고 손화중, 김개남군과 충청도의 일부 농민군까지 포함되어 진행되었다. 고부봉기가 발단이 되었고 3월 21일 무장에 결집한 농민군이 전주에 입성할 때까지 금구, 정읍, 태인, 부안, 흥덕, 무장, 영광, 함평, 장성 등지를 거쳤다. 이들이 진군한 경로와 그 구체적인 전투지 등도 각 지방을 보다 세밀하게 답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통치는 물론 전라도 일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 집강소의 형태나 개혁의 내용, 실현가능성 등에 있어서 군현별 차이가 대단히 컸다. 나주와 같이 집강소의 설치 자체가 의심스러운 지역도 있는가 하면 남원과 같이 농민군 주도의 철저한 집강소 개혁

조'라고 불렀다.

지방사연구에서 unit의 중요성
지역별, 시기별 전개과정의 확인
전국적 규모와 성격의 정확히 알게해 준다.

지방사연구의 중요성
지역별, 시기별 전개과정의 확인

9- 지방사연구: unit의 중요성
지역별, 시기별 전개과정의 확인

이 시도된 지역도 있다. 군현별 농민군의 세력이 강화되었고 특히 천민이나 빈농들이 중심이 된 집단들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농민군의 세력이 관군을 압도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각 지방별 농민군의 통제되지 않은 활동들이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던 때이기도 했다. 부농이나 사족에 대한 원초적인 반감과 저항이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것과 함께 재지세력들의 반농민군적 활동도 강화되었다. 집강소기 농민군에 연합하였던 이향충이나 일부 지식인들도 다시 반농민군적 태도로 변모하였다. 제2차농민전쟁때는 경상도,충청도는 물론 황해도와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경우는 전체 농민군으로 결합되어 있었지만 그와는 별도로 지방별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인 세력들도 적지 않다. 또 농민군이 조직화되고 동원되는 전국적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전남지방의 농민군을 조직하고 주도한 인물들이 주로 금구,태인 등지에 근거를 둔 접주들이었다는 사실, 영호대도소를 지배한 금구접주 김인배는 순천,여수,광양은 물론 하동과 진주까지 점령하여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을 함께 통솔한 인물이 금구출신 김인배였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농민군이 일시분란한 조직체계를 갖추지는 못하였고 군현별로 독자적으로 할거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¹⁶⁾

2) 향촌사회의 세력관계와 농민층

지금까지의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지방사연구들은 이 시기 향촌사회의 세력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놓았다. 그 첫째는 농민군의 지도부, 즉 농민층을 동원하여 농민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도세력의 성격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농민군에 반대하여 반농민군을 형성했던 향촌세력들의 동향에 대한 것이다.

①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농민전쟁기 향촌사회의 변동상황에 대한 지방사 연구들은 대체로 농민군을 구성한 민중일반과 지도부의 성격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농민전쟁이 그토록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동력이 신분적,경제적,문화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던 하층빈농들의 불만과 현실부정의지에서 찾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조직화된 농민전쟁으로 이끌어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지도부의 사회경제적 성격은 이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1862년 농민전쟁에서 농민들을 조직화시키고 봉기를 주도한 세력은 대체로 '농촌지식인,몰락양반,재지명망가들'이었다. 익산의 주도층이었던 임치수,이의식 등은 모두 문자에 능하고 시세에 밝은 농촌지식인이었고 이향충도 일부 참여하였다.¹⁷⁾ 함평의 경우는 상당한 부와 지식을 갖고 있던 정한순을 비롯한 大民,首吏,訓長,面任 등이 주도하였다. 이들이 봉기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부세부과를 매개로 군현단위의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일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학농민전쟁은 군현단위의 부세운영 혁파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변혁을 지향한 농민전쟁이었다. 따라서 농민군의 지도부가 단순히 군현단위의 부세운영의 합리화를 주장하는 부민들로 구성되었을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들 지도부의 형성은 새로운 향촌세

16) '봉전이 여러 읍을 순행하면서 절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명령은 오히려 행해지지 않았고 각자 집을 지어 오직 강성한 자들만이 서로 우두머리임을 다투었다'라는 황현의 기록이나 '각 지방에는 각각 巨擘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서 부하를 통솔하지만 巨擘들을 통솔하는 大巨擘은 없다'라는 일본공사관의 조사보고가 그러한 상황을 말해준다. 황현,『樞下記聞』, 1篇 104쪽 및 『駐韓日本公使館記實』 6책,25쪽.

17) 앞의 책, 267쪽.

력의 형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좁게는 일향 내부의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크게는 조선사회 전체의 문제를 시야에 넣고 있는 새로운 세력이 향촌내부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지방사연구들은 한결같이 농민군 지도부의 구성이 하층민, 빈농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학문적 소양과 경제력을 지니고 향촌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⁸⁾ 다르게 말하면 이러한 세력이 형성되어 있던 지방에서 농민전쟁이 보다 강하게 진행되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태인」

농민전쟁 당시 태인은 김개남, 최경선, 김문행 등 동학대접주들의 근거지였고 이들은 모두가 제1차 농민전쟁의 적극적인 참가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황현의 기록에 의하면 ‘적이 처음 고부에서 일어났을 때부터 괴수 중 태인사람이 많았다. 그러므로 좌우도에서 태인접이 으뜸이었다....태인은 적의 소굴이 되어 재물이 쌓였는데 한 집에 45마리의 말을 기르고 ...집마다 총통을 두었는데 적게 가진 집이 10자루였다.’¹⁹⁾ 태인의 대접주 김개남은 농민전쟁 전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농민군을 거느린, 또 가장 철저한 반봉건성을 표한 강점의 지도자였는데 적지 않은 토지를 소유하고 학식도 지닌 향촌지식인이었다. 최경선은 전봉준과 더불어 농민전쟁의 전과정을 지도하였고 부농이었으며 일정한 지식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김문행은 김개남과 같은 문중출신으로서 함께 농민전쟁에 참여하였던 인물로 태인의 도강김씨문중은 중앙과는 단절되어 있으나 향촌내 율령활동에는 참여하는 토반이었다.²⁰⁾

「임실」²¹⁾

임실은 제1차 농민전쟁 과정에 태인접과 함께 남원을 공격한 강력한 농민군의 활동지였다. 임실의 농민군지도자는 최찬국과 김영현의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최찬국은 일명 최봉성이라고도 불렀는데 최시형으로부터 입도하게 된 임실동학의 태두였고 농민전쟁 당시 대접주였다. 그의 아들인 접주 최승우, 최유하 및 사위 김흥기 등과 함께 임실, 남원의 장악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들 집안은 당시 임실에서 상당한 부를 지니고 있었다. 김영원도 경제적으로는 부농에 속하였고 무성서원의 장의를 지낼 정도로 한학에 지식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임실지방의 동학지도부는 모두 경제적으로 부유하였고 학식도 남못지 않았던 지방지식인이었다. 증언에 의하면 문길현 접주만 아전출신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다고 한다.²²⁾

「장흥」²³⁾

장흥은 동학농민전쟁의 최후 격전지로서 농민군 본대가 패퇴한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대규모 전투를 벌인 곳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1890년대에 전라도 지방의 중견 교단지도자로 성장한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오지영 등 남접지도자들로부터 포교를 받았다. 장흥농민군의 최고지도자였던 이방언은 당시 주

18) 이러한 집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여전히 이론이 많은 부분이다. 신용하는 이들을 ‘상승하는 양인층’이라 불렀고 이이화는 ‘향반, 중소지주, 농촌지식인’이 농민군 지도부를 구성하였다고 보았다. 정진영 등도 이이화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박맹수, 신영우 등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농민군 지도자가 상당한 학식과 재산을 지닌 층에서 배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19) 황현, 『오하기문』, 제2필 42-43면.

20) 이진영, “동학농민전쟁기 전라도 태인 고현내면의 반농민군 구성과 활동”, 『전라문화논총』 제6집, 1994.

21) 임실 농민군에 관한 자료는 『천도교임실교사』라는 프린트본 책자에 의거하였다. 이것은 임실의 초기동학접주들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오랫동안 임실교구사를 정리해온 『天民實錄』이 한국전쟁시 소실되어 이후 다시 발간된 것이라고 한다. 비교적 내용이 충실하고 소장하고 있는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여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22) 임실 金榮遠의 손자 正甲응과의 면담.(1993.7.14.)

23) 박맹수,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사”, 『장흥동학농민혁명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1992)

자학 일존주의에 대하여 일정한 비판적 안목을 갖고 있었고 농민들의 처지를 이해할 줄 알았던 개방적인 지방지식인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부농이었다. 이사경은 부자가 함께 동학접주가 된 자로 그 부친은 고부의 전봉준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고 집강소 기간동안 자신의 근거지에 집강소를 차려 폐정개혁에 앞장선 인물로 부농이었다. 그외 이인환, 구교철, 김학삼 등 장흥지방의 동학지도부도 일정한 학식과 재력을 갖춘 인물들이었다.

「예천」²⁴⁾

경상도 예천지방의 농민군을 주도했던 인물도 대체로 학식과 재력을 갖춘 경우가 많았다. 박현성은 글을 잘했고 리더쉽이 출중했으며 역학, 천문, 지리, 풍수 등에도 해박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농에 속하였다. 윤치문은 면포, 영농 등으로 부를 축적한 가문이었고 사헌부 감찰이라는 실직을 역임한 바 있는 양반출신이었다. 전기환은 지주로서 한학에 높은 수준의 지식을 소유한 인물이었지만 향촌의 지배세력으로부터는 소외당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힘이 장사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향촌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며 또 무엇이 이들을 농민전쟁에로 이끌어내었는가? 이 점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원은 때로 때로는 종교적인 것이기도 했고 민간의술 및 지관과 같은 활동에 근거한 것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타고난 완력과 체격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세력으로 범주화되기에는 아직 세력이 미약하고 내부적인 구성도 다분히 이질적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기존의 전통적 향촌사회의 지배원리와 다르게 어떤 원칙과 기반에 의해 새로운 세력으로 사회에 등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을 단일한 계층적, 계급적 범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그렇다고 종교적 범주로 취급할 수도 없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조선왕조체제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지적능력, 신분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에 저항하는 일반동민층의 행동에 동조할 수 있었던 개방적인 태도, 그리고 집단적 활동을 가능케 할만한 일정한 재산 등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의 총체적 형태로 군현단위 또는 그 범위를 넘어선 리더쉽이 행사될 수 있었을 것이다. 우선은 이들을 향촌사회의 진보적 중간층으로 생각해 두고 싶다. 지방사연구의 축적으로 이들 층의 성격과 한계가 보다 정확히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흥·지향
이 주석

② 향촌지배세력과 반농민군활동

19세기에 들어 향촌사회구조는 크게 두가지 점에서 이전과 구분된다. 그 하나는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관의 지배권이 급격히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재지사족층은 전통적으로 향론과 향청을 통해 향촌사회를 지배해왔으나 19세기에 들어서면 단일한 지배세력으로서의 지위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동성간의 혈연적 기반이 강했고 경제적인 기반이 튼튼한 사족가문의 경우 동성촌락을 기반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재지사족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이상 특권적인 존재가 될 수 없었다. 이들은 하층민들의 신분적인 도전에도 속수무책이었을 뿐 아니라 지방관의 위세를 등에 업은 향리층의 침학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한편 향리층의 역할은 지방관의 권한강화와 짝하여 더욱 강화되었고 도결제의 확대에 따라 농민층에 대한 수탈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향리층의 사회경제적 힘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

24) 신영우, "1894년 영남 북서부지방 농민군지도자의 사회신분", 『학림』 제10집, 1988.

있지만 집단적으로 이들이 보여준 결집력과 대응력은 군현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또 부민층은 시장경제의 확대와 더불어 발달하였지만 수령, 향리층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자들과 농업생산을 통해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 층은 향임층으로 진출하여 향리세력과 함께 지방관의 권력에 편승하는 수탈층이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동장, 리집강 등의 말단행정을 담당하면서 농민층의 불만을 대변하거나 심지어 농민저항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기도 하였다.²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세력중 일부는 농민군의 지도부가 되어 농민전쟁을 주도하였지만 또다른 세력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거나 아니면 반농민군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농민전쟁의 과정에 지방별로 반농민군의 활동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는 점이다. 제1차 농민전쟁과정에서는 관군과 농민군이 적대적이었지만 전주화약 이후 관민상화책으로서 집강소체제가 갖추어졌을 기간에는 관의 농민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와 같은 곳에서는 재지사족과 지방관이 중심이 되어 농민군에 강력하게 대항하였고 제2차농민전쟁 과정에서는 더욱 재지사족 또는 이향층이 주축이 된 반농민군의 활동이 기승을 부렸다. 실제로 주요한 농민군 지도자들이 체포된 것은 관군이나 일본군에 의해서보다는 지방의 민보군들의 활동에 의한 것이 많다.

반농민군은 재지사족 또는 향리층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실질적인 배후는 관의 힘이였다. 나주에서와 같이 지방관의 향촌지배력이 강력한 곳에서는 지방관 주도하에 수성군이 활동하였고 태인과 같은 곳에서는 관의 지시에 따라 재지토호세력이 민보군을 구성하였다. 순천이나 광양 등지에서는 향리층이 지방관과 함께 반농민군세력을 형성하였다. 장흥의 동학접주 이방언과 반농민군에 참여한 김한섭은 동문수학한 사이이면서 서로 다른 길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태인의 김개남, 김문행과 김기술은 같은 도강김씨 문중이면서도 한편은 과격한 농민군의 지도자로 다른 한편은 철저한 반농민군의 지도자로 대립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과연 이 시기 농민군과 반농민군 사이를 이토록 대립적인 것으로 만들었던 주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재지사족의 세력의 강도가 주요한 원인이었을까? 아니면 지주제에 대한 공격을 둘러싼 계급적 대립이었을까? 아니면 빈농층의 부농일반에 대한 무차별적 거부로 인한 것이었을까?

반농민군은 주로 군현단위에서 패잔한 농민군을 색출하거나 잔여무기를 수합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향촌사회의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축하려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리하여 관권에 의지하여 향약질서나 오가작통법 등을 통해 자신들의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관권, 그것도 일제권력과 야합한 권력에 의지하여 향촌에서의 사사로운 이익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농민전쟁을 전후하여 향촌사회 내에서 전개된 상이한 세력들의 대립은 그 이념적 지향에 따라 '의미있는 것'과 '무의미한 것'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되며 그 자체가 객관적인 역사로 서술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들 향촌세력의 추이가 지방사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근현대사의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심은 지방차원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구조와 같은 현재적 관심사와도 연결되는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25) 정진영, "19세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와 대립관계", 『1894년 농민전쟁연구1』, 역사비평사, 1991.

근로사 연 — '대립의 주된' 이념에 형성된 것인가?

← 대립 주체가 (동학농민군과 근위군)인 것은 분명히 알리고, 근위군의 인종이 이념 운동 대열에 합류했듯이 이념을 내세웠을 것이다. 3) 동학농민전쟁과 민족운동 재(동학농민)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향촌사회를 기반으로 한 농민운동은 이후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거쳐 3.1운동으로 연결되었고 다시 그 이후 실력양성론적 농촌운동과 농민조합운동을 거쳐 해방이후의 사회운동에까지 연결되는 것이었다. 지방사연구는 이러한 연결과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는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운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부분이다. 제2차농민전쟁은 철저하게 반일, 반침략전쟁이었다. 또한 농민군을 패퇴시킨 힘도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군사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군의 지향이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과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컨대 태인의 김문행은 김개남 대접주 아래서 농민군 1300명을 이끌고 제1차농민전쟁부터 종결된 농민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인물인데 농민전쟁이 끝나고 단발령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의병활동이 전개될 때 그곳에 참여하였고 이후 영학당에도 가담하였다. 영학당이나 활빈당과 같은 세력의 주구성원은 '東匪餘黨'으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농민전쟁에 참여했던 농민군이 많았다.

그러나 농민전쟁과정에서 농민군을 탄압했던 반농민군세력이 약 10년을 건너뛰어 의병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제의 침략을 비판하고 그에 항거하여 절명시를 쓰고 자결한 매천 황현은 농민군과 농민전쟁을 철저하게 비판하였던 인물이었다. 태인의 반농민군 지도자 김기술은 1903년 호남유림대회에 참여하여 일본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였고 1906년 면암 최익현이 무성서원에서 반일의병을 일으켰을 때 12제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임병찬등과 함께 최익현을 따르던 김기술은 함께 일본군에 체포되어 형100대를 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했던 세력이 의병운동을 일으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제한적인 해석에 그치고 만다.

한편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그 이후의 민족운동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 예를 임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실은 전라도에서도 가장 일찍 동학을 수용한 곳이었으며 임실의 농민군은 농민전쟁 당시 김개남 부대와 함께 남원을 공략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단결력과 투쟁성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임실지방 내에서는 김개남과 같은 강경노선을 채택하지 않았던 것 같다. 집강소기에 임실지방도 '봉기하는 농민군과 규합하여 집강소를 임실읍에 두고 십이계명으로 민정까지' 하였던 곳이지만 관장을 축출,징치하지는 않았고 단지 현감들이 농민군의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

임실의 농민군 지도자들은 대부분 학식이나 재산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들의 이러한 성격이 임실의 농민운동으로 하여금 교육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실지역의 농민군 지도부의 농민전쟁 이후 활동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갑진년의 진보회운동을 거쳐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을 투자하여 학교를 건립하고 교육구국운동을 주도하였다. 농민전쟁 당시 대접주였던 최찬국은 500석지의 전답을 패척하여 구국운동을 지원했다고 하며 그 아들인 최승우는 전답 천여두락을 내놓아 삼화학교와 전주창동학교의 재단이사가 되었다. 농민전쟁에 참여했던 한영태는 3.1운동으로 체포되어 심문중 자살하였고 33인 민족대표의 일원이었던 박준승 역시 1890년대에 동학에 입도하여 제2차 농민전쟁에 참여하였던 인물이다.²⁶⁾

26) 金在桂, "故 자麓 朴準承氏 一生", 『天道敎會月報』 199, 1927.4.

김영원은 유학적 소양이 풍부한 지방의 지식인으로서 3번이나 과거에 응시한 적이 있었고 과거제도의 부패상에 낙담한 이후 삼요정을 지어 후학을 교육하였다. 그는 1878-9년에 무성서원의 장의가 되었다. 그에게는 교민, 교승, 교석의 3남이 있었는데 장자 교민은 일제에 의한 강제합방 소식을 듣고 3일간 절식한 끝에 자결하였다. 김영원의 제자로 박준승과 양한묵은 모두 3.1운동에 33인 대표로 참여하였고 임실지역의 만세시위를 주도한 한영태, 최봉성 등도 모두 임실의 천도교 지도자들이었다.

한편 남원의 유태홍은 김영원과 대비하여 이해해 볼 수 있는 또다른 사례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유태홍은 20세를 전후하여 동학에 입도하고 농민전쟁 전과정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이후 천도교 남원교구장이 되어 남원지방의 3.1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해 1년의 옥고를 치른 뒤 신간회가 창립될 때 신간회 남원지부장을 맡았다. 해방직후에는 남원군민들로부터 남원군 전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좌우익간의 중도적인 정치운동을 주장하였다.²⁷⁾ 유태홍의 사례는 동학농민전쟁이 3.1운동 이후의 신간회, 전국준비위원회까지 연결되는 드문 경우이다. 함경도 지방의 사례연구에서는 1920년대 말 천도교 주도의 농민운동과 사회주의 계통의 운동간에 조직적,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⁸⁾ 지방사연구의 축적은 한국의 민족운동 및 사회운동 가운데 동학농민전쟁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위층 지식인으로서의 김영원과 하위층 지식인으로서의 유태홍은 그 성격이
5. 결론 이렇듯이 다르다.

동학농민전쟁은 그 사건의 의의에 값할 만큼 충분하다고 볼수는 없으나 그래도 단일 사건으로서는 비교적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사건의 전개과정이나 이에 맞물린 국내외적 상황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밝혀졌다. 동학농민전쟁은 한국근대사에서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만족할만큼 밝혀져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지방사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지방사연구는 농민전쟁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다. 즉 구조적 조건들과 인간의 구체적인 사고와 행위의 차원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살아있는 역사, 인간들의 실천으로서의 역사를 잘 보여줄 수 있다. 농민전쟁에 대한 연구도 지방사적 접근을 통해 좀더 심화되었으면 한다.

지방사연구에 있어서의 기본단위는 도, 지대, 권역 등이 논의될 수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군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에서 군현은 명실공히 가장 실질적인 내적 통합성을 지닌 사회적 단위였다. 행정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현은 향촌사회의 기본단위였다. 군현 내부의 세력관계, 농민군의 형성과 성장, 폐퇴와 그 이후 민족운동과의 연관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 사회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서 군현별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 그러한 차이는 향촌사회 내의 세력관계로부터

27) '유태홍 관결문', 최원식 외, 『남원지방 항일운동사』,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2)

28) 이준식, 『농촌사회변동과 농민운동』, 민영사, 1993 및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3.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는 것, 그러면서도 농민전쟁과정에서 군현은 중요한 농민군의 단위였다는 것 등을 밝혀주고 있다. 군현단위의 지방사가 관에서 주관하는 홍보적인 『군지』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치밀한 학문적 위상을 획득할 수 있을 때 한국사회에 대한 전체적 인식도 그만큼 풍부해 질 수 있을 것이다.

1894년 농민전쟁기 남원지방 농민군의 동향

박 찬 승 (목포대)

1. 머리말
2. 농민전쟁 발발 전후 남원지방 향촌사회의 동향
3. 김개남 지휘 농민군의 남원 점령
4. 남원 농민군과 운봉 민보군의 대결
5. 맺음말

1. 머리말

최근의 1894년 농민전쟁 연구는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주로 1,2차 농민봉기를 중심으로 그 진행과정을 정리하는 것, 2) 농민전쟁의 지도자들의 사회적 성격과 그들의 사상에 대한 연구, 3)농민전쟁기 향촌사회의 동향의 연구 등이다. 이 가운데 첫번째와 두번째의 연구는 최근 상당한 성과를 내어 농민전쟁의 개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번째의 연구는 아직 상대적으로 부진한 느낌이다. 또 농민전쟁의 경과도 주로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부대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김개남이나 다른 지휘자들이 이끈 농민군의 동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 시기 남원지방을 대상으로 농민전쟁 전후 이 지방 향촌사회의 사정과, 김개남이 이끈 농민군의 동향, 그리고 이에 맞선 운봉의 수성군과 민보군의 동향, 그리고 남원·운봉의 양반 유생 등 향촌사회 지배층의 동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남원유생 金在洪이 작성한『嶺上日記』와¹⁾『朴鳳陽經歷書』,『谷城郡守報狀』, 그리고 황현의『梧下記聞』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2. 농민전쟁 발발 전후 남원지방 향촌사회의 동향

남원유생 김재홍은 1892년말 동학교도들이 공주와 삼례등지에서 신원운동을 위한 집회를 갖는 등 그

1) 남원유생 金在洪은 당시 舟岩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운봉의 李聖授와 절친하였고, 그와 함께 1890년대초 沃川 遼溪에 있던 淵齋 宋秉璋을 자주 찾아 가르침을 받았던 보수적인 유생이었다.

세력이 크게 늘어나자, 공맹정주지학을 유일하게 지켜오던 우리 동방에도 갑신년 이후 나라의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邪說이 횡행하게 되었다면서 이를 크게 개탄하였다.²⁾ 또 그는 1893년 2월 동학교도들의 광화문 복합상소가 있던 시기를 전후하여 전라도의 각 읍 아문에 ‘倡義’를 칭하는 방문이 붙었다고 기록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방문에서는 “倭洋淸 등 여러 나라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횡행하여도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를 초멸하고자 한다. 각 읍에서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을 뽑아 보내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재홍은 이에 대해 “저들이 ‘척왜양’을 성언하고 있는 것은 가상하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난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저들이 만약 진실로 이적들이 우리나라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을 통분히 여긴다면 이 일을 마땅히 임금에게 상주하여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가하거늘 이같이 각 읍에 방문을 붙이는 것은 민요를 선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마도 저들의 뜻은 척왜양에 있지않고 필시 왜양을 도와 백성을 학대하려는 것일 것이다”라고 썼다. 동학교도들의 ‘척왜양’의 진의를 의심하고 이를 난을 도모하려는 술수 정도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³⁾ 3월 중순경 그는 삼남의 동학교도들이 각도에서 도회를 갖고 있는데, 충청도에서는 보은에서, 영남에서는 밀양에서, 전라도에서는 금구에 모이고 있다고 썼다.⁴⁾

1894년 남원지방에 농민군의 봉기소식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 것은 3월 하순, 즉 농민군의 무장기포가 있는 뒤였다. 그리고 전라감사 김문현의 지시에 따라 각 읍에서는 농민군에 대항하기 위한 東伍軍을 大邑의 경우 2백명, 小邑의 경우 1백명을 징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원에서도 각 마을별로 장정을 할당하여 2백명을 징발, 전주성으로 올려보냈다.⁵⁾ 이들 동원된 장정들은 황토재까지 끌려가서 전투에 참여하였으나 관군의 패배로 인하여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다.⁶⁾

김재홍은 당시 경상도 관찰사 이용직이 전라도의 농민군이 영남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경계하여 운봉팔랑치와 장수 육십령에 군대를 배치하였는데, 이들 군사들이 민간에 대한 토색질과 상인들에 대한 재물 약탈을 일삼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 당시 순창군수 李聖烈은 이미 鄉約과 五家作統을 통해 농민들을 통제하고 각 坊에 約正을 두어 50호마다 20석씩의 곡식을 거두어 각 촌에 보관해왔는데, 이번 동학도들의 봉기에 즈음하여 빈농들에게 이를 나누어 줌으로써 安民의 방책을 꾀하였다고 한다.⁷⁾ 또 4월 20일에는 홍계훈의 감결이 각 읍에 전달되었는데, 홍계훈은 여기에서 “비류들의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무상하여 그들이 정확히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각 현에서는 그들이 나타나는대로 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⁸⁾ 4월 27일 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하였다는 소식은 30일 남원에도 전해졌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주성밖에서 홍계훈의 군대와 농민군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그리고 8일에는 초토사 홍계훈이 남원부에서 소 10필과 말 20필을, 신임 전라감사 김학진이 말 20필을 각각 징발해 보내도록 요구하여 남원부사 尹秉寬은 將吏를 각 촌에 보내 민간으로부터 이를 거두어 오도록 함으로써 많은 폐단을 야기시켰다.⁹⁾ 이후 전주의 관군과 농민군이 타협을 통해 농민군의

2) 『영상일기』 임진년 12월 20일

3) 『영상일기』 계사년 2월 10일

4) 『영상일기』 계사년 3월. 밀양에서의 도회는 다른 기록과의 대조가 필요하다.

5) 『영상일기』 3월 29일

6) 김재홍은 자신의 이웃 마을에서 8명의 장정이 고부에 갔다가 1명이 죽고 7명은 크게 다쳐서 돌아왔다고 기록하였다(『영상일기』 4월 초9일).

7) 『영상일기』 갑오년 4월 16일

8) 『영상일기』 갑오년 4월 20일

전주성철수가 무난히 이루어졌으며, 농민군은 성을 나와 김제쪽으로 갔는데 김제군수가 이들을 우대하였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전라감사 김학진은 각 읍에 田稅외의 일체 雜役을 금지한다는 영을 내렸으나 각 읍에서는 아직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¹⁰⁾ 초토사 홍계훈은 5월 19일 경병을 이끌고 전주성을 떠나 경성으로 철수하였다. 김재홍에 의하면 그 이후, 특히 6월에 들어 농민군은 각지에서 ‘창궐’하였고, 탐오한 이서배들의 兵需를 빙자한 요역징발도 가중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당시 농민군의 움직임은 어떠하였는가.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부대는 전주성에서 철수한 뒤 태인(5.12경)에서 다시 집결하여 정읍(5.17)-백양사(5.20?)-담양(5.28)-순창(6.초)-옥과(6.14)-광주(6.16)-남평(6.17)-능주(6.18)등으로 순행하였으며, 김개남부대는 태인-순창(6.8)-옥과(6.9)-담양-창평-동북-낙안-순천-곡성 등으로 순행하였다.¹¹⁾ 전봉준과 김개남의 농민군이 함께 순창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6월 8일경 남원에서는 농민군이 장차 남원에 들어올 것이라 하여 민심이 크게 동요하였다고 한다.¹²⁾

남원은 당시 都護府로서 전라도에서 관찰사가 있는 전주와 목사가 있는 나주·제주·광주·능주 다음으로 큰 규모의 고을이었다.¹³⁾ 또 남원은 전라도에서 전주·제주·나주·장흥·남원·순천 등으로 구성된 6鎭管체제의 중심지의 하나로서, 남원진관의 관할에는 담양·순창·무주·임실·곡성·진안·용담·옥과·운봉·창평·장수 등지가 들어있었다. 또 지리적으로 보면 남원에서 동쪽으로 연재를 넘어 운봉을 거쳐 경상도 땅인 함양·산청·하동·진주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순창·담양·태인으로 이어진다. 남쪽으로는 섬진강을 통하여 곡성·구례·광양·송주·순천으로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장수·임실·진안·금산으로 이어진다. 지리적으로 남원은 그야말로 전라좌도를 호령할 수 있는 요충지였던 것이다.

3. 김개남 지휘 농민군의 남원 점령

김개남이 이끄는 농민군은 6월 25일 마침내 남원에 들어왔다. 당시 김개남부대를 이끌고 있던 주요 인물들은 李士明·柳福萬(홍양)·南應三(담양) 등이었으며, 이들과 협동하고 있던 남원의 토착 동학세력들은 金洪基·金禹則·李春宗·朴定來·朴仲來·金元錫 등이었다.¹⁴⁾ 그리고 7월 2일에는 전봉준도 남원에 도착하였다. 농민군은 남원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이에 남원부사 윤병관은 자리를 비우고 떠나버렸다.¹⁵⁾ 그런데 전봉준이 남원에 도착한 직후인 7월 6일경 전라감사 金鶴鎭은 서울에서의 경복궁 쿠데타와

9) 『영상일기』 갑오년 5월 8일

10) 『영상일기』 갑오년 5월 18일

11) 김양식, 「12차 전주화약과 집감소운영」, 『역사연구』 2, 1993, 131쪽 참고. 이 글에서는 「수록」·「일본인」 등의 자료를 들어 전봉준부대는 태인-정읍(5.17)-담양(5.28)-순창(6.초)-담양(6.9)-옥과(6.14)-광주(6.16)-남평(6.17)-능주(6.18) 등으로 순행하였으며, 김개남부대는 태인-장성-백양사(5.28)-순창(6.8)-옥과(6.9)-담양-창평-동북-낙안-순천-곡성 등으로 순행하였다고 보았으나, 전봉준이 순창에서 도로 담양에 되돌아왔다고 보는 것, 또 김개남부대가 태인에서 순창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굳이 백양사로 돌아가려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2) 『영상일기』 갑오년 6월 8일

13) 당시 같은 도호부가 있던 곳은 장흥·순천·담양·여산·장성·무주 등지였다.

14) 『동학란기록』 하, 「박봉양경력서」 511쪽

15) 『영상일기』 갑오년 7월 초2일

개화과정권의 수립사실을 듣고, 군관 宋司馬를 전봉준에게 보내 편지를 전달하였다. 여기서 김학진은 전봉준에게 함께 국난에 대처할 것을 약속하고 농민군들과 함께 전주를 지킬 것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전봉준은 이 편지를 받고 ‘一死報國’ 하겠다고 생각하고 무리를 모아 전주로 갔으나, 김개남은 도중에서 남원으로 되돌아가버렸다고 한다.¹⁶⁾

김학진과 전봉준은 전주에서 회담을 갖고 집강소설치를 합의하였다. 집강소의 설치문제는 이미 6월 초순부터 김학진이 농민군측에 각리에 집강을 설치하여 농민군의 기강을 잡아달라는 형태로 제의해오던 것이었다. 전봉준과 김학진간의 합의에 따라 전주에는 전라좌우도 대도소가 설치되었고, 도집강으로 송희옥이 임명되었다. 또 전봉준은 12일경 각 읍에 전령을 보내 읍내에 都所를 설치하고 농민군들 가운데 집강을 뽑아 수령의 일을 행하도록 하였다. 이른바 집강소의 설치였다.¹⁷⁾ 전봉준은 이후 곧 김개남을 비롯한 농민군이 집결해 있는 남원으로 7월 15일경 내려와 대회를 갖고 김학진과의 협상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를 농민군들로부터 추진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김개남도 전봉준의 뜻에 따라 관측과의 타협을 인정하고 집결한 농민군을 인근 각 군으로 해산시켰으며, 스스로는 백여명을 이끌고 임실 상여암으로 피서차 들어갔다.¹⁸⁾ 이때가 아마도 7월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봉준이 전주에 다녀온 그 사이 즉 7월 10일경 남원의 농민군 수백명은 威陽을 거쳐 安義까지 진출한 일이 있었다. 이 때 농민군은 자신들을 거짓 환대한 趙元植의 농간에 말려들어 3백여명이 安義民丁들에게 잡혀서 죽고 겨우 십여명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¹⁹⁾

한편 이웃한 순창의 경우에는 군수 이성렬이 성을 지키고 농민군을 막는 등 농민군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려 하였으나, 김학진이 각 읍에 영을 내려 ‘撫局’, 즉 농민군과의 타협국면을 깨지 말 것을 종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순창 吏民은 거짓으로 入道를 칭하고 스스로 都所를 설치하고 執綱을 둬으로써 농민군들의 경내 침입을 막았다.²⁰⁾ 이러한 사례는 다른 곳도 있었다. 능주나 강진이 바로 그러하였다.²¹⁾

당시 농민군의 위세는 상당하였다. 황현에 의하면, 익산군수 鄭源成, 구례현감 趙圭夏, 오수찰방 梁柱燦, 화순 진사 曹秉善, 임실 진사 韓興教, 홍양 진사 申瑞求, 순천 진사 劉在述 등이 농민군편을 들었다고 한다. 특히 구례현감 조규복은 김개남이 머무르고 있던 임실 상여암에까지 찾아가 자신의 조카로 하여금 김개남을 따르게 하였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농민군은 8월 19일 다시 활동을 개시하여 釜洞 姜監役·劉學圭 등이 타읍의 농민군 수천명을 이끌고 남원부에 들어와 군기와 화약 등을 약탈하여 釜洞에 저치하였다. 농민군들은 이후 계속 집결하여 교룡산성과 남원성을 근거로 삼았다.²³⁾ 김개남은 25일 임실에서 남원으로 들어왔는데, 당시 남원부사는 여전히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교룡산성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홍양출신 접주 柳福晚(柳希道)이었다.²⁴⁾ 이처럼 김개남이 다시 농민군을 집결시키고 남원으로 들어온 것은 전봉준과 김학진이 마련한

16) 『오하기문』 2필, 61-62쪽

17) 『오하기문』 2필, 63-65쪽

18) 『오하기문』 2필, 73쪽

19) 『오하기문』 2필, 38쪽 ; 『영상일기』 갑오년 7월달

20) 황현, 『오하기문』 2필, 42쪽

21) 『오하기문』 제2필, 19쪽

22) 『오하기문』 2필, 93쪽

23) 『영상일기』 갑오년 8월 19일

‘撫局’, 즉 타협국면을 깨뜨린 것이었다. 따라서 『오하기문』에 의하면 전봉준은 곧 남원으로 달려와 “청일전쟁이 끝나면 어느 쪽이 이기든 농민군을 향하여 총뿔리를 돌릴 것이며, 현재 우리의 오합지중으로서는 뜻을 이루기 어려우니 아직은 각 현에 흩어져서 정세를 더 살펴야 될 때”라고 설득하였다고 한다. 순화중도 이어 달려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개남은 대중이 한 번 흩어져 버리면 다시 모으기는 어렵다면서 이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²⁵⁾ 당시 김개남은 남원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를 생각을 하고 남원성과 교룡산성을 수축하였으며, 每結當 쌀 7말씩을 거두고, 인근 군에서까지 군포 등을 거두었다.²⁶⁾

그런데 9월초 농민군의 진영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즉 9월 3일 농민군의 해산을 종용하는 대원군의 효유문이 전주에 도착하였고, 9월 8일에는 남원에 도착하였던 것이다.²⁷⁾ 이에 따라 송희옥은 전주의 대도소를 바로 철폐하고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 그런데 9월 6일 송희옥은 대원군의 밀사를 龜村(원평의 구미란인 듯)에서 만나 서울의 사정과 농민군의 상경을 독촉하는 대원군의 뜻을 전해들었다.²⁸⁾ 이에 송희옥은 당시 태인에 머물고 있던 전봉준을 급히 불러 이 문제를 상의하였다. 이 회합에서 전봉준은 재봉기를 서두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9일에는 금구지방의 농민들이 금구관아에 들어가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10일 전주방면으로 향하였으며, 10일에는 삼례에 각지에서 농민군이 집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²⁹⁾ 대원군의 밀사는 전봉준에게만 간 것이 아니었다. 대원군의 또 다른 밀사 이진영은 9월 7일 남원에 당도하여 김개남에게도 같은 뜻을 전하였다.³⁰⁾ 그러나 김개남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전봉준의 부대가 9월말경 공주방향으로 북상할 때 김개남은 여전히 남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9월 22일 현재 전라감사 김학진은 전주·금구방면뿐만 아니라 남원에 약 5,6만의 농민군이 모여 있으며,³¹⁾ 부사 윤병관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9월 21일 윤병관을 파직하고 신임 남원부사에 이용헌을 임명하였다.

8월말 이후 남원에 농민군부대가 웅거하자 가장 위협을 느낀 것은 운봉과 곡성이었다. 곡성에서는 7월초 장성의 이사흥당이 들어와 군기와 민재를 빼앗긴 뒤에 吏民들이 수성군을 조직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남원에 농민군이 들어온 이후 곡성의 농민군은 위협을 느껴 수성군을 사실상 해산한 상태였다.³²⁾ 그러나 운봉쪽은 달랐다. 운봉에서 반농민군을 조직한 것은 前注書 朴文達(朴鳳陽)이었다. 박문달은 본디 향리로서 상당한 부호였다. 그는 농민군이 봉기하자 처음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長水의 동학접주 黃乃文에 의지하여 그 화를 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의 세력이 각 읍에서 더욱 강성해지자 7월 26일 族黨과 머슴 등 수십명을 모아 민보군을 조직하고, 이어서 운봉 경내에서 더욱 사람을 모아 수일 만에 1200여명을 헤아리게 되었다.³³⁾ 이들은 남원에서 운봉에 이르는 길목인 鷲峙(女院峙)·笠望峙·柳峙

24) 『오하기문』 2필, 92쪽. 여기서는 유복만의 성을 劉씨로 적고 있으나 柳씨가 맞다.

25) 『오하기문』 2필, 92-93쪽

26) 황현은 김개남이 남원 산동방과 구례에서 米7斗씩, 모두 3백석을 거두어 화엄사에 저치해놓았다고 기록하였다(『오하기문』 3필, 13쪽).

27) 대원군의 효유문을 남원에 들고 온 이는 金泰貞·高永根과 이들의 부탁으로 동행한 전주의 鄭碩謨였다(『동학란기록』 상, 「갑오약력」, 66-67쪽).

28) 『수록』

29) 국사편찬위원회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29-130쪽

30) 『동학란기록』 상, 「갑오약력」, 68쪽

31) 『동학란기록』 상, 「갑오실기」, 36쪽

32) 『동학란기록』 상, 「곡성군수보장」, 99-100쪽

33) 『동학란기록』 하, 「박봉양이력서」, 511쪽. 아마도 이들은 각 호에서 1명씩 장정을 징발하는 방식을 통하여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영삼일

를 지키도록 하였다.³⁴⁾ 민보군은 이후에도 계속 그 수가 늘어 5천여명에 달하였으며, 그들을 배치한 곳도 37개소에 달하였다고 한다.³⁵⁾ 그런 가운데 신임 운봉군수 李義綱이 도입하였고, 그는 방비를 더욱 굳게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영남 각군에도 격문을 띄우고 대구와 진주에도 원조를 청하였다. 이에 따라 함양쪽에서 포군 150명이 합세해 와 운봉의 수성군들과 함께 훈련을 하였다.

마침내 9월 17일 농민군 수십명이 운봉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方巖峙에 나타나자 이곳을 지키고 있던 민보군 소속 100여명의 포군이 이를 막았으며, 수성군과 함양원군이 출동하여 농민군을 격퇴하였다. 이즈음인 9월말경 김개남은 남원에 모여있던 농민군세력을 5營으로 나누어 인근 5군에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前營에 南應三, 後營에 金洪箕, 右營將에 金大爰, 左營에 金龍關을 임명하고 中營 都統은 金開南 자신이 맡았다.³⁶⁾ 이에 따라 남원삼은 자신의 근거지였던 담양으로 9월 30일 돌아간 것은 확인된다.³⁷⁾ 그러나 이때 다른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김개남세력의 유력한 부대였던 홍양점의 유복만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4. 남원 농민군과 운봉 민보군의 대결

9월초 대원군의 밀사를 접하고, 또 전봉준의 복상 소식을 접하면서 김개남도 복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는 戰場需用이라고 칭하면서 麻骨을 태워 화약을 제조하였으며,³⁸⁾ 목판을 징발하여 廂車를 제조하게 하였으며, 가을 옷 등을 준비하였다.³⁹⁾ 김개남이 남원성을 출발하여 전주로 향한 것은 10월 14일이었다. 전봉준은 전주에서 공주로 떠나면서 여러차례 김개남에게 속히 복상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개남은 讖書를 빙자하여 남원에서 49일을 留陣해야 한다고 고집하다가 이 때에야 비로소 남원을 떠난 것이었다. 김개남의 부대는 銃筒을 짊어진 자가 8천여명이었으며, 군수품의 수송행렬이 1백리에 달하였다고 한다. 김개남은 복상에 앞서 전영·후영 등으로 각지로 나가있던 자기 세력을 남원에 다시 집결토록 했다.⁴⁰⁾ 김개남부대가 8천에 달했다는 것은 여러 점에서 합세한 결과일 것이다.

김개남은 남원을 떠나면서 花山堂接主 李文卿으로 하여금 남원을 지키도록 명하였다 한다.⁴¹⁾ 남원 화산당접은 담양의 龍龜洞接과 함께 ‘잔인’하다고 하여 ‘強接’으로 꼽히는 接이었다.⁴²⁾ 그러나 김개남이 복상함으로써 남원성은 일단 비게 되었고, 이에 남원에 사는 前郡守 梁漢奎, 士人 張安澤·鄭泰柱 등은 운봉의 박봉양에게 달려가서 이 틈을 타서 남원을 장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봉양은 24일 2천

기, 갑오년 8월 26일).

34) 『오하기문』 2필, 68-69쪽 ; 『영상일기』 갑오년 8월 19일

35) 운봉쪽의 민보군은 구례와의 경계인 다름재로부터 장수군과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6,70리에 이르는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매일 밤 봉화로써 서로 연락을 취하였다고 한다(『오하기문』 3필, 14쪽).

36) 『영상일기』 갑오년 8월 26일

37) 『동학란기록』 상, 『갑오약력』, 72-73쪽.

38) 麻骨이란 껌질을 벗긴 삼대를 말한다(일명 거름대).

39) 『오하기문』 3필, 7쪽

40) 『동학란기록』 상, 『갑오약력』, 74쪽

41) 『오하기문』 3필, 10쪽

42) 『오하기문』 2필, 10쪽. 화산당은 현재 남원시 화정동이다.

여명을 거느리고 남원성으로 들어와 사흘간 머무른 뒤 다시 운봉으로 철수하였다. 그 며칠 뒤 남원부근에 남아있던 농민군과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나온 농민군은 다시 남원성으로 들어왔다. 당시 농민군을 이끈 것은 柳福萬·金京律·南應三·金洪奎·金禹則·李春宗·金元錫 등이었다.⁴³⁾ 담양의 남웅삼의 경우 그는 병을 칭하고 북상군에 가담하지 않은 뒤, 10월 20일경 남원을 지키기 위해 남원에 남아있던 농민군에 합류하였다.⁴⁴⁾ 황현에 의하면 당시 남원에 모인 농민군들은 34接, 만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⁴⁵⁾

남원에 다시 집결한 농민군들은 먼저 長水 접주 黃乃文의 요청으로 이춘경·남웅삼이 장수에 들어가 民堡軍을 격파하고 장수를 장악하였다.⁴⁶⁾ 이어서 그들은 운봉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당시 호남지방에 잔류하고 있던 농민군세력은 크게 남원의 김개남부대의 잔류세력, 광주부근의 손화중·최경선부대, 장흥의 이방언부대, 순천의 김인배부대, 무안의 배상옥부대를 들 수 있었다. 이들 가운데 김개남부대의 잔류세력과 김인배부대는 각각 함양, 하동방면, 즉 영남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었고, 손화중·최경선부대와 배상옥부대는 나주 점령을 위해 힘을 쏟고 있었다. 장흥의 이방언부대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12월 초 농민군의 패색이 짙어가는 가운데 농민군 최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장흥·강진·병영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운봉쪽에서는 농민군의 운봉쪽으로의 진출을 경계하기 위해 농민군의 운봉진출은 11월 13일부터 시도되었다. 농민군은 13일 성밖으로 나와 운봉과 인접해있는 山東坊 釜洞에 진을 쳤다. 이에 운봉쪽에서는 수성군 등 2천여명을 부동에서 운봉으로 넘어오는 길목인 觀音峙에 파견하여 진을 치도록 하였다. 14일 담양의 남웅삼과 남원 官奴 金元錫 등이 이끄는 농민군은 대오를 지어 관음치를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운봉의 수성군은 농민군을 보다 깊숙한 골짜기로 유인하여 양측간에 접전이 벌어졌다. 14일 새벽부터 15일 오전까지 계속된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운봉 수성군측도 상당한 인명손실을 입었다.⁴⁷⁾

11월 24일에는 남원 松內村의 金元執·梁相烈이 운봉쪽에 “지금 성중의 적은 이사명·유복만·김경률·김흥기·김우척·李春宗·李春興·權一先·金元錫·崔鎮岳과 기타 대장을 자처하는 승려 등 黨類가 불과 4천명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유복만은 운봉의 군세가 심히 성하다는 말을 듣고 일전에 그 무리들을 이끌고 곡성방면으로 나갔으며,⁴⁸⁾ 다른 1천여명도 民財를 약탈하기 위해 각 촌으로 나가 현재 성안에는 3천여명밖에 없다. 만약 이때를 놓친다면 이들을 토벌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연락을 해왔다. 이에 운봉의 군수와 박봉양은 25일 수성군과 민보군을 이끌고 출동하여 佛仙峙를 넘어 釜洞에서 1박하고 다음날(26일) 아침 남원에서 10리 가량 떨어진 藍坪村까지 도달했을 때 운봉쪽의 柳峙 防守軍이 장수의 접주 황내문이 무리들을 이끌고 礮岩쪽에서 내려와 운봉쪽을 향하고 있다고 급히 전갈을 보내왔다. 이에 군수는 수성을 위해 운봉쪽으로 돌아가고 박봉양은 황내문의 농민군을 맞아 접전하기 위해 변암의 院村⁴⁹⁾으로 진출하였다. 장수의 농민군과 운봉의 민보군은 다음날(27일) 원촌에서 격돌하였다. 이 싸움에서

43) 『동학란기록』 하, 「박봉양경력서」, 512쪽

44) 『동학란기록』 상, 「갑오약력」, 74쪽

45) 『오하기문』 3필, 16쪽

46) 『오하기문』 3필, 13쪽

47) 『동학란기록』 하, 「박봉양이력서」, 513쪽 ; 『오하기문』 3필, 14-15쪽. 운봉측 민보군 가운데에서도 사망자가 8명, 부상자가 25명에 달하였다.

48) 유복만은 이때 곡성을 거쳐 귀향하여 홍양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12월 초 홍양에서는 유복만이 이끄는 농민군 천여명이 성안과 밖 동북 2개의 산에 나누어 둔거하다가 경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였다고 한다(『동학란기록』 상, 「순무선봉진동록」, 652쪽).

농민군은 패하여 21명이 죽고 36명이 사로잡혔으며, 나머지는 장수방면으로 흩어졌다고 한다.⁵⁰⁾

박봉양군은 다음날(28일) 다시 남원쪽으로 행군하여 남원성 가까이까지 진출하여 성밖 남쪽 쪽고개에 진을 치고 있던 농민군 수백명을 포군 1백여명을 동원하여 먼저 격퇴한 뒤 부대를 넷으로 나누어 3부대는 동·서북문쪽에 매복시키고, 남문쪽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농민군은 성밖으로 나오지 않고 성위에서 총과 돌로써 공격을 가하였으며, 이에 민보군이 민가쪽으로 피하자 횃불을 민가쪽으로 던져 민가에 불이 붙었다. 오후 4시경 박봉양군은 동서 양문을 향해 역시 火攻을 전개하는 한편, 민가에서 사다리등을 구해다가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민보군이 성을 넘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동서 양문에 불이 붙자, 농민군은 마침내 북문을 열고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전투에서 농민군 가운데 전사자는 30여명, 생포된 자는 1백여명에 달하였다. 생포된 자 가운데 농민군 간부급에 해당하는 表子景·崔鑣哲·高良信 등 8명은 즉시 처형되었으며, 나머지는 곤장을 친 후 풀어주었다. 운봉의 민보군 가운데에도 전사자가 5명, 부상자가 84명에 달하였다. 운봉의 박봉양군은 그해 여름 이후 계속된 남원의 농민군과의 대결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운봉의 박봉양군이 승리를 거두자 남원의 士人 金澤柱·吳柱永 등은 뒤늦게 民兵 수백명을 이끌고 남원성에 들어와 농민군 패잔병 수색에 나섰다.⁵¹⁾

운봉의 수성군과 민보군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서는 1)운봉이 전연의 요새로서 남원의 농민군이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곳이었다는 점, 2)군수가 지휘하는 수성군과 박봉양의 민보군의 단결력이 비교적 강하였다는 점, 3)영남쪽에서 함양에서 포군을 보내고 경상감사 조병호가 銃筒 3백정, 화약 수천근을 보내오는 등 인적, 물적 지원이 적지 않았다는 점, 4)김개남의 농민군 주력이 북상함으로써 농민군측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유복만의 부대가 이탈하는 등 농민군진영의 대오가 흐트러진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남원성이 박봉양군의 수중에 들어간 며칠 뒤인 12월 3일에는 京軍과 일본군이 남원성에 들어옴으로써 남원성의 상황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박봉양군은 경군과 일본군이 도착하자 곧 남원성 동남쪽 구례당 山東院쪽으로⁵²⁾ 나와 있는 가운데, 12월 5일 일본군 대대장이 편지를 보내 軍務와 관련하여 상의할 일이 있으므로 나주로 오라고 하여 박봉양은 7일 구례를 떠나 11일 나주에 도착하자마자 일본군에 체포되는 신세가 되었다. 황현에 의하면 경군을 이끌고 온 우선봉장 李斗璜은 자신이 남원에서 농민군과 일전을 벌여 거두려고 한 공이 좌절되자 박봉양을 시기하여 일본군측에 “박봉양이 적의 장물을 약취하고 民財를 겁탈했으며, 성문에 불을 질러 훼손하였다”고 모함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⁵³⁾ 그러나 남원 유생 김재홍의 기록에 의하면, 운봉 민보군은 농민군이 성에서 빠져나간 뒤 농민군의 재산을 적물한다는 구실로 민재를 약탈하여 운봉쪽으로 실어감으로써, 경군이 이를 크게 힐책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운봉군의 민재 약탈은 사실이었다고 보인다. 박봉양은 나주 진영에 갇혀 있다가 12월 그믐날 경성으로 압송되었다. 1895년 3월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가 該 지방(남원)에서 軍兵이 약탈함을 금지치 못한 증빙이 적확하다”고 판시하고, 박봉양에게 杖 60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박봉양은 杖 60대를 맞고

49) 현 번암면 大論里

50) 『동학란기록』 하, 『박봉양경력서』, 514쪽

51) 『동학란기록』 하, 『박봉양경력서』, 515쪽. 『오하기문』 3필, 24쪽에서는 박봉양군이 남원성에서 승리를 거둔 날이 24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박봉양 자신의 기록인 『박봉양경력서』의 28일을 취하였다.

52) 현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53) 『오하기문』 3필, 25쪽

3월 29일 석방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잠시 내부주사로 임명되어 일하다가 6월에 귀향하였다.⁵⁴⁾

5. 맺음말

남원은 농민군의 처지에서는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김개남의 농민군은 이러한 남원을 중심으로 순창, 담양, 곡성 일대를 세력권안에 넣고, 이 지방을 한편으로는 경성을 향한 북상의 근거지로, 다른 한편으로는 영남방면으로의 진출을 위한 근거지로 삼고자 하였다. 그런데 남원에 웅거한 농민군은 화산당접을 비롯한 토착세력도 물론 있었지만, 김개남이 인솔한 태인접, 남응삼이 인솔한 담양접, 유복만이 인솔한 홍양접 등 타지에서 몰려든 농민군세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김개남·남응삼·유복만은 자신들의 출신지에서는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들 농민군 지도자 가운데에는 官奴, 승려도 있었고, 또 才人과 같은 천인들로 구성된 부대도 있었다. 남원에 주둔한 농민군의 출신배경은 그만큼 다양하였다. 그러나 김개남의 지도노선에서도 드러나듯이 남원에 주둔한 농민군은 전봉준·손화중이 지도하는 농민군에 비해서는 다소 급진적이었다.

대부분의 농민군이

남원의 농민군세력은 10월 중순 김개남의 북상 이후 북상군과 잔류군으로 세력이 양분되었다. 그 틈을 노린 것이 운봉의 민보군과 수성군이였다. 운봉군은 인근 함양과 대구감영의 지원을 받으면서 남원의 농민군에 공세로 나왔다. 유복만의 농민군부대가 대오에서 이탈하는 등 농민군 내부에서 분열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남원의 농민군은 운봉 민보군의 공격을 받아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

남원에서 농민군이 웅거하고 있을 때 인근 지역의 양반지배층, 유생세력은 거의 기를 펴지 못하였다. 그들은 농민군을 피하여 피난을 다니기에 급급하였으며, 운봉군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야 민보군을 조직하여 농민군 잔당의 소탕에 나섰을 뿐이었다. 또 운봉의 향리층은 수성군, 민보군을 조직하여 농민군에 대항하였지만, 남원의 향리층은 수령이 자리를 비우고 농민군이 성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다할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4) 『동학란기록』 하, 『박봉양경력서』, 515쪽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동학관련판결문집』, 72-73쪽

충청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신 영 우 (충북대)

1. 머리말
2. 1894년 전반 동학교단의 동향과 충청도의 상황
3.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향촌사회의 변동
4. 1894년 가을 이후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대일전쟁
5. 맺는말

1. 머리말

1894년 전국에 걸쳐 벌어진 동학농민전쟁의 중심지역은 전라도와 충청도였다. 왕조정부는 사실상 이 해 봄부터 두 지역 1백여 군현의 대부분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각 군현 내부에서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치열한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양반층에 대한 상천민의 신분 투쟁 성격이 강했고, 또한 지주 부농에 대한 가난한 농민들의 저항 모습이 뚜렷했다.

가을에 들어와 동학농민군이 대일전쟁을 위해 무장 봉기에 나서자 왕조정부가 설치한 임시 진압기구는 兩湖都巡撫營이었다. 즉 호남과 호서의 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뜻이다. 이 때부터 전라도와 충청도의 동학 조직과 농민군은 경군과 일본군 그리고 민보군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상황은 일반 국민은 물론 학계에서조차 잘 파악되고 있지 않다. 특히 충청도 지역의 동학농민전쟁 사례는 연구자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농민 봉기의 발생지인 동시에 주력군이 활동한 전라도의 상황 전개에 관해서 관심이 집중된 위에 충청도는 남접농민군의 총대장 전봉준과 김개남같은 중심인물이 없었다. 그래서 무수한 농민군이 봉기해서 술한 사람이 희생당한 1894년 충청도의 대변란은 잊혀진 사건이 되고 말았다.

충청도 지역의 동학농민전쟁을 전해주는 자료는 많다. 우선 순무영의 지휘를 받아 서울에서 남하한 진압군이 남긴 보고문과 진중일기 그리고 순무영의 첩보 등은 큰 비중으로 충청도의 사정을 알려주고 있다. 의정부와 순무영의 중요한 보고와 정부의 정책은 <<승정원일기>>에 전제되었다. 일본군의 주요 정보가 수록된 <<주한일본공사관기록>>도 여러 지역의 실상을 전해준다. 또 이 지역에 세거하던 유생이 쓴 일기도 있고, 동학에 들어가서 활동하던 사람의 회상기도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개상황을 정리하는 試稿로서 작성되었다. 한 편의 글로서는 50여 군현의 다양하고 격렬했던 전쟁의 모습을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모습을 드러내려면 여러 후속

논문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을 찾아보고 권역별로 두드러졌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1894년 전반 동학교단의 동향과 충청도의 상황

1894년 6월 중순 충청 감사 이헌영은 충청도 일대에서 계속된 동학 도인들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른바 비적의 무리는 작년 봄 보은취회 이래 여당이 지금까지 무상으로 모이고 흠어지고 하였다. 호서는 비록 호남에서 창궐하는 것과 같지 않지만 회덕 진잠 등에서 侵逼을 면치 못했고, 그 때부터 전 지역에서 소란한 것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실로 난감하다.”¹⁾

지방 관아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학 교세가 1894년 여름까지 갈수록 증대해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은취회와 같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각지의 집회 활동은 계속되었다.

동학 교단은 보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전국 각지의 도인들과 연결망을 구성했다. 동학은 인맥으로 이어져 조직이 짜여지기 때문에 대접주와 이들의 활동 지역을 확인하면 지역별 조직체계를 알 수 있다.

2) <<시천교종역사>>와 진압기록 등에 보이는 이 지역 주요 지도자는 다음과 같다.

淸義大接主 孫天民 : 청주 문의 일대	忠慶大接主 任奎鎬 : 청산 일대
忠義大接主 孫秉熙 : 충주 일대	德義大接主 朴寅浩 : 덕산 일대
禮山大接主 朴熙寅 : 예산 서산 태안 일대	沃義大接主 朴錫奎 : 옥천 일대
文義大接主 任貞宰 : 문의 일대	公州大接主 金知澤 : 공주 일대
木川大接主 金鏞熙 : 목천 일대	木川大接主 金成之 : 목천 일대
金化成 : 천안 일대	丹陽大接主 成斗煥 : 단양 일대
忠州大接主 辛在蓮 : 충주 일대	許文叔 : 진천 일대
黃河一 : 보은 일대	大接主 徐璋玉 : 회덕 충주 일대

물론 이들처럼 비중이 높은 인물들은 더 있었다. 그리고 유력한 활동가들이 이들 대접주 아래에서 수접주와 접주 접사 등의 직임을 맡아 활약했다.

남접농민군의 봄 봉기 때 충청도에서 호응한 지역은 회덕 진잠뿐이다. 이 지역의 동학 조직은 전봉준과 이념을 같이한 청주 출신 대접주 서장옥에 이끌려 기포에 나선 것이다.³⁾ 그렇지만 주변의 동학 조직이 뒤따르지 않고 북접교단의 반대에 직면하자 곧 흠어졌다. 같은 시기 북접의 중심지인 보은 청산 옥천 문의는 동학의 “기세가 맹렬”해서 관아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⁴⁾

1) <<錦藩集略>>

2) 그렇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충청도의 조직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3) 서장옥 판결문은 서장옥이 전봉준 김개남 최시형과 막상막하의 세력을 가졌다고 기록했다.(정부기록보존소, <<東學關聯判決文集>>, 37)

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65면

교주의 허락없이 기포한 서장옥의 시도는 무산되었지만 남접농민군의 경군 격파와 전주 입성에 고무 받은 충청도의 동학은 전라도의 동학을 닮아갔다. 농민들이 다투어 입도했고 동학 조직이 중심이 되어 향촌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고 나섰다.

왕조정부는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淸에 구원병 파견을 요청했다. 淸軍은 아산으로 상륙해서 충청도 여러 군현에 큰 피해를 입혔다. 다음은 6월 중순 충청 감사가 한 말이다. “근래 청병이 아산에 주둔하여 접대하느라고 민폐가 허다하다. 비단 아산뿐만 아니라 그 인근 여러 읍이 같기가 일반이다.”

직산과 성환에서 시작한 청일군의 교전은 큰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그 직후 葉志超의 청군 4 - 5천 병(?)이 공주에 와서 하루 묵고 연기를 거쳐 청주로 갔다. 이 대군을 접대하느라고 부담이 적지 않았다. 또 일본군함의 기습을 받아 격파된 淸艦 廣乙船에서 빠져나온 청병 130여명이 태안으로 들어와 아산에 머물러 있었고 이들 외에도 성환에서 패전한 청군이 서산 해미 홍주 덕산 예산 등지로 몰려왔다. 6월 27일 일병은 이들을 습격하면서 아산을 전장터로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일본군의 경복궁 습격과 경군의 무장해제 소식이 들려왔다. 충청도의 동학 조직은 즉시 쫓겨 들어갔다. 7월 3일 이인에 동학 도인들이 집결했고, 7일에는 서천 청양에서 모였다. 임천과 서천에는 각각 전라도 성당과 부안에서 온 농민군이 ‘爲國安民’을 칭하고 마을을 다니면서 총과 말을 거둬 들였고 飢民을 먹인다며 饒戶에게 곡식을 앗아갔다. 보은에서는 7월 2일 수백명이 사각면에서 모였다. 군수 鄭寅亮이 직접 가서 任奎鎬 黃河一 李觀榮 金在顯 등 두령들과 만났는데 이들은 서울이 위급하니 군수와 이방까지 합세해서 倡義하자고 요구했다.

이 때 충청도는 청일 양국군이 빈번히 왕래하여 지방관아를 놀라게 했다. 청군이 청안을 거쳐 복상하자 일본군이 안보 연풍과 충주를 거쳐 복상한다는 소식이 잇달았다. 특히 안보에는 문경을 거쳐온 일본군이 매일같이 수십명씩 꼬리를 이어 모두 1천 1백여명이나 된다고 했다. 그리고 홍주에선 이양선 30척이 지나갔다는 보고를 올리고 있다.

왕조가 위기에 다치면 나라가 키워온 유생이 의를 들어 일어나야 하지만 이들은 국왕이 인질처럼 잡혀 있어도 향촌사회 내부에서 동학 도인들의 공세를 받아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다. 반면 동학도들의 격화된 활동은 확대되어 연기 한산 연산 등지로 이어졌다.

3.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향촌사회의 변동

7월 이후 충청도 전역은 동학의 세상이 되었다. 사교를 믿는다고 도인들을 탄압하던 관현은 갑자기 커진 동학 세력에 눌려서 보고만 있는 처지로 떨어졌다. 도인들은 수십명씩 혹은 말을 타거나 총칼 등 무기를 지니고 방포하면서 몰려다녔다. 마을을 들어설 때는 총을 쏘아 위세를 보였다. 각지의 동학 조직은 여러 군현에 각기 세력을 확대했다. 동학에 들어가면 서로 절하고 존대말을 쓰고 접장이라 불렀다. 다른 사람은 이들을 도인이라 칭했고 입도하지 않은 사람은 속인이라 했다.

동학의 가르침대로 도인들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즉 신분투쟁을 벌인 것이다. 양반에 대한 평민의 존경 표현은 사라졌다. 노비는 스스로 신분을 해방시켜 상전의 집에서 빠져나왔다. 동학

조직이 노비 해방시키려고 힘을 빌려주는 일도 있었다.

부여의 한 유생은 7월 초 일기에 “동학에 들어간 노예에게 상전은 반드시 존대해야 했고 감히 이를 배척하지 못했다”고 썼다.⁵⁾ 상하의 구분이나 귀천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탄식이었다. 목천에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서로 절하고 존대하던 노비가 방에서 나온 뒤 옛상전에게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7월 21일 임천의 젊은 유생이 쓴 일기에는 “의정부 關文에 문벌을 파하고 양반을 없앤다”는 소식을 기록했다.⁶⁾ 갑오개혁의 조치가 이처럼 발표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직 종이 위에 쓰여진 법령이었을뿐 실생활의 관행과는 거리가 있었다. 동학 도인들의 신분제 폐지운동은 양반에 대한 공세 형태를 띠고 계속되었다.

경제면의 변화도 세상이 바뀐 모습을 보여줬다. 도인들은 십여명씩 떼를 지어 양반지주를 찾아가 예전에 억울하게 뺏긴 땅이나 재물을 돌려받았다. 분풀이가 곁들여지기도 했다. 지주에게 꼭꼭 바쳐온 지대 상납은 소홀해졌다. 무거운 이자를 주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이 나왔다.

충청도는 국왕이 걱정할만큼 무단 양반의 농민 침략이 심한 곳이었지만 토호 행위는 자연 그쳐졌다. 오히려 양반 지주들은 도인들의 공세에 어쩔 줄 몰랐다. 외지에서 온 도인들이 길거리에 나도는 때는 얼굴을 아는 사람에게 지목될까 피했다.

동학 교주 최시형은 도인들이 관가에 항거하면서 법에 의하지 않고 한꺼번에 세상 질서를 뒤바꾸는 일에 뒷탈이 있을까 두려워 했다. 이미 교단의 위계를 무시하는 남접농민군에게 경고를 내렸고, 교주의 지시를 따르는 조직은 전봉준 서장옥 등과 거리를 두었다. 최시형은 교단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취회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준수될 수 없었다. 전라도의 남접조직이 충청도로 세력을 뻗쳐와⁷⁾ 같은 개혁 활동을 펼쳤고, 더군다나 신입 도인들은 개혁운동을 지지했다. 말단 접주들 중에는 도인들을 동원해서 오랜 폐단을 고치려고 앞장서는 사람이 많았다. 대접주들 속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타났다.

마침내 북접 영향 아래 있던 충청도 각 군현도 執綱을 정해서 조직적인 개혁활동에 들어갔다. 일본군은 충청도의 동학지도자를 집강이란 직함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주 연기 전의 은진 진잠 서산 연산 면천 한산 홍주 결성 서천 藍城(藍浦?) 부여 홍산 목천 평택 아산 온양 예산 덕산 청양 단양 청풍 충주 괴산 문의 회덕 회인 보은 청산 옥천 영동 황간 등 34군현의 무려 41명을 ‘執綱望’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중엔 대접주도 있고 수접주와 접주들도 있다.

개혁 사업을 주관한 집강은 대접주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예하의 접주를 정한 지역이 많았던 것 같다. 충주의 辛在蓮은 ‘五邑執綱’을 칭하면서⁸⁾ 장위영 영관 이두황에게 통문을 전하고 있다. 청산에는 八路都執綱 八路都省察·副省察과 같은 직함이 있었다.⁹⁾ 교주가 직접 통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교단의

5) 李復榮, <<日記 第十>>

6) 崔德基, <<日記>>

7) 일본군이 진압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남접은 충청도의 서부와 전라도의 전부를 총괄하고 북접은 충청도의 동북부와 그 以東 以北을 총괄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인맥에 의한 조직의 특성상 이렇게 지역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전라도와 인접한 충청도 남서부 일대는 남접의 영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일본군공사관기록>> 6, 24면

8) 李斗璣, <兩湖右先錄日記> <<東學亂記錄>> 上

9) 金爽中, <<討匪大略>> 八路都執綱이 실제로 제 기능을 했다면 각도의 개혁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이었을 것이다. 이 때 옥천 영동 청산에는 大統領이란 직함도 있었다고 한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24면

고위 지도자들은 이러한 대세를 묵인하거나 적극 주관해나간 것처럼 보인다. 충청 감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영동 집강 孫仁澤에게 보낸 공문처럼, 직접 집강에게 통문을 전해 일을 처리했다.

충청도의 동학 세력은 거대했지만 교주의 지침에 따라 읍내와 관아의 점거에 나서지 않았다. 읍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동학 세력이 압도했다. 다투어 입도하는 사람들은 종교 조직인 동학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았지만 그 분위기는 개혁의 이념에 동참하거나 일본 배척운동에 합류하는 모습이었다.

4. 1894년 가을 이후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대일전쟁

동학농민군의 무장봉기는 인맥으로 얹힌 동학 조직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을 나누면 다소 억지가 들어간다. 경상도 조직이 전라도와 강원도에도 퍼져있고 충청도 대접주가 경기도와 전라도에 접조직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를 무릅쓰면, 충청도의 농민전쟁 양상은 ①보은 청산 영동 옥천 ②청주 문의 연기 ③진천 음성 괴산 ④충주 제천 단양 청풍 ⑤천안 목천 전의 직산 아산 온양 ⑥홍주 덕산 예산 해미 당진 서산 태안 ⑦공주 회덕 진잠 연산 은진 부여 노성 ⑧남포 임천 정산 홍산 보령 등 8개 권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농민군의 활동이 격화되는 시기는 이들 각 권역에서 차이가 난다.

충청도의 동학 조직도 7월 초부터 전쟁 준비에 들어간다. 이 때 전국의 동학 조직은 외세의 침략을 스스로 물리쳐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막강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각 군현의 도인들은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의 구분없이 입도를 권장하고 지주 부농에게 군수전과 군수미를 강제로 걷었다. 시임 향리도 강요에 의해 도인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

대일전쟁 준비는 사회개혁 운동과 따로 떼어지는 활동이 아니었다. 집강소는 원성을 산 양반과 향리를 정치하면서 지주 부농에게 협력을 강요하는 일을 동시에 전개했다. 이에 따라 향촌사회의 지배층은 반감을 갖게 되었다. 또 유생들은 유교의 명분을 부정하는 동학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일본의 침략을 눈앞에 보면서 민족 내부의 갈등이 커져갔다.

8월 2일에는 감영이 있는 공주에 몇천명의 동학 도인들이 들어와서 倡義를 위해 부내에 머물겠다고 요청했다. 다음날 물러간 도인들은 공주 경내의 금강가에 둔취하여 기세를 올렸다. 8월 말까지 이런 상태로 지냈다.¹⁰⁾ 감영은 다시 부내가 점거될까 우려할 뿐이었다. 이 때 공주 홍산 은진 이인 부여의 동학 지도자는 계속해서 일본을 배척하는 창의에 나서겠다고 감사에게 요청했으나 극력 억제하는 회답만 돌아왔다.

봉기 의사를 확고히 정한 지역은, 노성과 서산처럼, 독자적으로 읍내를 들이쳐서 관아에 보관된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강화했다. 진천과 충주의 동학 조직과 밀접히 연결된 경기도 죽산과 안성에서도 관아가 점거되었다. 서울과 가까운 군현에서 관아가 침범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왕조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 논의 끝에 일본군에게 빼앗겼던 무기 일부를 되돌려받은 장위영과 경리청 병정을 파견하기로 했다. 그래서 장위영 영관 이두황을 죽산부사에, 경리청 영관 홍운섭을 안성군수에, 그리고 성하영을 서

10) <<錦藩集略>>

산군수에 임명해서 군대를 인솔해 가도록 했다.

9월에 들어오자 오래 기다려온 전봉준은 다시 봉기를 결정했다. 무장활동을 반대하던 교주 최시형도 대세를 받아들여 9월 18일 기포령을 내렸다. 충청도의 동학조직은 즉각 각 군현에서 봉기하였다. 기포령의 내용은 두 가지로 추정된다. 그것은 그 동안 금지해왔던 각 군현의 읍내를 점거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무장 농민군을 보은 대도소로 집결시키는 것이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참으로 대단한 기세였다. 충청도에서 관아 점거나 대규모 집결이 없었던 군현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곳보다 적어 보일 정도였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두드러진 사건으로 여러 문헌에 기록된 곳만 해도 다음과 같다. 공주 청주 충주 제천 청풍 영춘 진천 괴산 문의 청안 연기 영동 황간 청산 회덕 보은 서산 태안 덕산 해미 예산 연산 노성 남포 보령 홍산 석성 부여 은진 한산 서천 천안 목천 전의 등등. 점거한 관아에서는 무기와 화약 및 세곡을 탈취했다.

기포령 직후 동학농민군이 격화된 활동을 벌여서 진압군의 주목을 끌었던 곳이 진천 충주와 청주였다. 진천 광혜원에는 대접주 辛在蓮이 ‘일만명’을 집결시켰고, 충주 용수포에는 許文叔과 徐璋玉이 이끄는 대규모 세력이 모였다. 이 두 집단은 갈등을 보였다. 교단의 지침에 따라 활동하던 신재련 조직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서장옥 계열과 의견 충돌이 생겼던 것이다. 그렇지만 서로 접전하지는 않았다.

병영이 있는 청주에서는 9월 24일 수천의 동학농민군이 읍성을 포위해서 공격했다. 병사 李長會가 앞장서 독전하여 방어에 성공했으나, 긴급 구원을 바라는 청주병영의 요청은 정부에 보고되어 경군의 남하가 촉진된다. 장위영과 경리청 병대가 일본군과 함께 청주를 향해 내려왔다.

그 후 청주 병영의 병정 70여명은 10월 들어 연산 진잠을 순회하고 대전을 지나다가 농민군의 공격으로 모두 죽는 참변을 당했다. 괴산은 읍내가 점거될 때 지른 불로 큰 화재가 일어났다.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속속 보은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은 영동과 황간에 거처를 마련해서 분산 주둔하였다. 그리고 무기와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도 일대는 물론 경상도 북서부까지 도인들을 파견했다. 이 북점농민군 대군은 10월 23일 통령 손병희가 지휘해서 논산으로 진군하여 전봉준의 남점농민군과 합세한다. 이 대규모의 남북점 연합농민군의 첫 점거 목표는 공주성이었다.

그러나 농민군은 전쟁 준비와 남북점 갈등 해소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다. 그래서 크나큰 반격을 받게 된다. 동학농민군의 재기를 보고받은 정부는 진압군 파견을 서둘렀다. 이미 파견한 경군 정예병을 동원해서 경기도와 충청도 청주 공주를 목적지로 남하시켰다. 일본군은 농민군 진압을 위해 南小四郎 小佐가 지휘하는 후비보병 독립제19대대 병력을 증파해왔다. 또 각 군현의 보수세력은 자력으로 민보군을 결성해서 농민군을 견제했다. 충청도지역에서 활동한 민보군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평의 맹영재와 과천의 문석봉 그리고 옥천의 박정빈과 목천의 정기봉, 천안의 윤영렬이 두드러졌다.

일본군은 관군을 앞세우고 10월 15일(양력 11월 12일) 세 길로 나누어 내려왔다. 2중대는 직산 천안 예산을 거쳐 공주로 직행하고, 본부 및 3중대는 죽산 진천 청주 문의 옥천을 거쳐 금산으로 내려가고, 1중대는 이천 충주와 강원도 방면을 거쳐 경상도로 내려가 운봉 남원으로 들어갔다.

공주로 내려가는 경군과 일본군은 충청도 곳곳에서 동학농민군을 수색해서 학살했다. 각 군현마다 엄청난 수가 희생되었다. 전투도 여러 곳에서 벌어졌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벌어진 큰 것만 들어도 세성산전투, 문의 지명전투, 증악전투, 홍주성전투, 덕산전투, 해미전투, 청주성전투, 영동 용산전투, 보은

복실전투 등이다.

공주 남쪽 노성과 논산에 대규모로 농민군이 집결했다는 감영의 전달을 받은 관군과 일본군은 공주로 모여 들었다. 일본군 2중대는 10월 24일에 공주에 도착해서 진을 쳤다. 1중대는 강원도로 들어갔고, 본부와 3중대는 청주 부근의 문의 지명과 증약에서 농민군과 몇 차례 접전하느라고 공주로 갈 수 없었다.

동학농민군은 목천 세성산에 거점을 확보했다. 부근 군현에서 빼앗은 각종 무기와 군량을 쌓아두고 남북접농민군의 북상을 기다렸다. 그러나 서울을 지척에 둔 거점인 까닭에 즉각 진압군의 공격을 받게 된다. 보은 장내리를 불태운 1천여 이두황의 장위영 병대는 10월 21일 포위 공격을 감행해서 거점을 점거했다. 조총 140정, 청국 탄환 26개 2만 5천 5백개, 철환 36만 6천개 등의 무기와 6백 50여석의 곡식은 남김없이 몰수되었다.

10월 하순 서해안쪽 정산 예산 덕산 온양 신창 대흥 홍주 결성 당진 면천 해미 서산 태안의 동학농민군이 남북접 연합농민군의 북상에 호응하여 대규모로 집결하였다. 이들은 공주성을 공격해서 관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해미성에 주둔하였다. 공주 전투가 시작된 뒤까지 일본군 2중대의 지대는 홍주 방어에 가세해야 했다. 장위영병도 공주에서 서해안을 순회하며 11월 7일 해미성을 공격하였다. 김개남이 인솔한 농민군은 남북접 연합농민군에 합류하지 않고 전주에서 진잠을 거쳐 청주 공격에 나섰다. 1개 분대의 일본군에게 기습을 받아 신탄진과 진잠쪽으로 후퇴했다.

우금치 결전은 너무 늦은 11월 7 - 8일에 벌어졌다. 이 때는 일본군과 관군이 철저히 대비한 뒤였고, 농민군 대군의 북상을 지원하기 위해 집결했던 서해안과 청주 문의 목천의 농민군이 패산한 이후였다. 전력이 막강한 일본군을 상대하기에 남북접의 지도자는 대군을 지휘한 전투 경험도 없었고, 특히 화력이 열세였다. 추운 겨울철에 고지의 적군을 공격한 것은 잘못이었다. 결국 우금치 공방전은 동학농민군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후퇴를 거듭한 농민군은 전라도 남단으로 몰려서 처참하게 학살당했다. 반일세력을 제거하려는 일본군은 전쟁 마지막 시기에 살인마로 변했다. 충청도의 동학농민군도 똑같은 처지에 몰려 있었다. 일본군과 관군이 번갈아 각처를 순회하면서 낱알이 수색, 보는대로 처형했다. 서산 태안 해미에서는 공주 공방전 이후에도 끈질기게 저항했다. 공주 대교 방면의 공격을 맡았던 옥천의 농민군도 재집결해서 일본군과 관군의 진압에 맞서다가 해산했다.

공주 공방전에 참여한 최시형의 북접농민군은 순창까지 후퇴했다가 교주 최시형을 만나서 같이 북상했다. 이 부대는 장수 무주를 거쳐 영동 황간 청산으로 올라갔다가 보은 복실에서 12월 17 - 18일 일본군과 상주 소모영의 유격병대에게 기습당해서 궤멸한다. 북접농민군의 보은 복실 전투는 18번째의 전투였다고 한다.

5. 맺는말

충청도의 동학 조직은 북접 교단의 지침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서장옥과 관련된 일부 지역 그리고

전라도 집경 일대가 남접의 영향 아래 있었다. 교주 최시형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장을 해서 관아를 들이치거나 급격한 개혁을 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렇지만 일부 대접주를 포함한 말단 접주들과 도인들은 전라도의 개혁운동에 고무되어서 곧 뒤따라 집강을 정하고 폐정개혁에 나섰다.

교단의 읍내 점거 금지는 처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했던 보수세력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읍내의 양반과 향리들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어 민보군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단의 지시없이 일부 지역에서 관아를 점거한 사실은 왕조정부에 보고되었고 이것은 경군의 파병을 재촉했다.

기포령 이후 충청도와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에서 집결한 북접농민군은 논산으로 가서 전봉준의 남접 농민군과 합세한다. 논산으로 가지 않은 동학 조직은 목천 문의 옥천 홍주 해미 태안 등지에서 일본군과 경군의 길목을 막았다. 무엇보다 일본군 1개중대 병력은 이 때문에 공주로 집결하지 못해 우금치 공방전에서 남북접 연합농민군을 집중 공격할 수 없었다.

10월 들어 여러 갈래로 지속된 진압군의 순회는 충청도의 동학 조직과 농민군 세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동학 교단의 근거지가 파괴되는가 하면 후방 지원 역할을 맡아야 할 동학 조직을 무너뜨렸다.

모순에 찬 전근대 사회체제를 개혁하려고 나섰다가 일본세력의 침략에 직면해서 분연히 맞서 싸운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좌절로 끝이 났다. 그 결과 일제는 침략에 항거하는 최대 장애를 제거해서 이후 그 이상의 저항을 받지 않고 이 땅을 강점하였다. 보수세력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막기에 성공했으나 식민지 백성으로서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같이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충청도에 살던 사람들도 1894년 당시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명을 바쳤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실 자체조차 아는 사람도 없이 이미 오래 전 역사의 뒤꼍에 잠겨버렸다. 그리고 그 100년이 지난 오늘 비로소 충청도 지역의 동학농민전쟁 상황을 처음 점검하기 시작했다.

1894년의 경상도 지역의 농민전쟁

이 윤 갑(계명대)

1. 머리말
2. 농민전쟁 발생의 역사적 배경
 - 1) 개항후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반봉건 농민항쟁의 발전
 - 2) 동학의 전파와 교세의 형성
3.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 1) 동학농민군의 세력결집과 반봉건 투쟁
 - 2) 항일봉기와 반침략 투쟁
4.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의 농민전쟁은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된 반침략 반봉건 투쟁이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 등지에서도 동학조직을 중심으로 결집된 농민군들이 정부군 및 보수 세력이 만든 민보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따라서 이 전쟁의 역사적 성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민군의 형성과정, 구성, 사회적 지향과 현실적 역량 등을 지역사태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종합할 필요가 있다.

농민전쟁에 관한 그간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두가지 면에서 반성이 요구된다.

첫째는 반제 반봉건으로 요약되는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제시하고, 농민전쟁을 곧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혁명운동으로 단정하는 연구방식이다. 물론 시대적 과제의 설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객관적 상황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운동이 반드시 시대적 요구와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생각된다. 그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농민전쟁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해명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부합하였는가를 따져보는 연구 보다도 시대적 과제해결에 부합하는 농민전쟁상을 선형적으로 그려놓고 관련자료를 확대해석 - 그 근거를 자료부족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다 - 하는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전쟁패배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농민군 자체 내에서 찾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었음이 이러한 한계를 잘 나타낸다.

둘째는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이 이끄는 전라도 농민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농민전쟁의 성격을 파악하

려는 연구방식이다. 물론 전라도 농민군은 1894년의 농민전쟁에서 시종 중심적이고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들의 활동은 타지역 농민군들에게 직간접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농민전쟁의 진행과정을 세밀히 관찰하면 농민군의 활동은 전국적인 체계성이나 통일성을 결한채 지역별로 독자성을 띄는 분산적인 형태로 전개되었고, 그러한 특성은 전라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점을 고려하면 농민전쟁 일반의 성격을 전라도 농민군의 활동, 그 중에서도 최선진 부분이었던 전봉준, 김개남, 손하중 휘하에 있었던 농민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산적으로 활동한 각 지역 농민군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민족운동으로서,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서 1894년의 농민전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성에 입각해 경상도 지역의 농민전쟁을 구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지역 농민전쟁에 대해서는 신영우와 김준형의 연구가 있다¹⁾. 신영우는 경상북도 북서부 지역의 농민전쟁을 파악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발굴하였고, 증언채록을 이용해 농민전쟁 지도부의 신분과 경제기반을 밝힘으로써 농민전쟁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김준형은 경상남도 진주 하동지역의 농민전쟁을 연구하여 이 지역의 동학세력이 최재우의 포교시에 형성되기 시작했음과 순천 광양지역의 농민군과 결합해 활동하였음을 해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성과에 기반해 경상도 전역의 농민세력의 형성과정과 반봉건 투쟁의 성격, 반일 봉기과정을 등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2. 농민전쟁 발생의 역사적 배경

1) 개항후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반봉건 농민항쟁의 발전

1894년의 농민전쟁은 조선 후기 사회의 사회경제적 모순이 개항을 계기로 일층 확대 심화되는 가운데 폭발한 것이었다. 조선 후기의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중세적인 신분제도 및 그와 결합된 지주전호제도와 부세제도에 내재한 사회적 모순을 계급 대립과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전면적으로 표출시키는 형태로 격화시켰고, 그러한 대립과 갈등은 19세기 중엽에 이르자 마침내 임술농민항쟁을 연출하면서 조선봉건사회를 전면적인 해체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동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 경상도 지역이었다. 가령 1862년의 농민항쟁의 전개양상을 보면 단성과 진주민란이 시발이 되어 3월말 4월 초순에 걸쳐 먼저 경상도 지역에서 폭발하고, 곧이어 4월말 5월 초에 걸쳐 전라도 지역에서, 5월에는 충청도 지역에서 민란이 일어났던 것이다²⁾. 그것은 경상도의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이중환의 『擇里志』에서도 언급되듯이 삼남지방에서도 선진적이었던 점과, 미작과 면작을 위시해 다양한 상품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농업환경을 갖추고 있었던 점, 그리고 편리한 商品流通路로 기능할 수 있었던 낙동강이 이 지역의 주요 농업지대를 관류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1) 신영우, 1991. 『갑오농민전쟁과 영남 보수세력의 대응』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김준형, 1992. 『서부경남지역의 동학군 봉기와 지배층의 대응』 『경상사학』 78합집
2) 망원한국사연구실, 1988. 『1862년 농민항쟁』 (동녘)

3).

조선봉건사회를 해체시키는 이러한 변동은 개항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외세는 개항과 불평등조약을 이용해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확대시켰다. 그리하여 1880년대가 되면 영국산 면제품이 청국과 일본 상인을 통해 사치품 수요가 많았던 서울 등 대도시의 시장은 물론이고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를 여행하면서 農商況을 조사하였던 松田行藏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농촌시장 깊숙히에 까지 침투하여 유통되고 있었고⁴⁾, 일본 상인들이 활발하게 곡물매집활동을 보였던 경상도 일부지역에서는 종종 시장에서 종곡을 매입하기 어려운 사태가 초래되기도 하였다⁵⁾. 그러나 전체로 보면 외세의 이러한 경제적 침략은 적어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조선후기 이래의 경제적 변동을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거나 방향을 바꿔 놓지는 못했다. 그것은 경제적 침략의 주역이 조선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교란시킬 수 있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니라 아직은 자국의 산업혁명도 이룩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렀던 청국과 일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보면 개항은 적어도 1890년대 초반까지는 조선의 상품화폐경제를, 따라서 상품경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⁶⁾.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개항은 대일 곡물수출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으로의 곡물수출은 1887년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는데 쌀과 콩이 주종을 이루었다. 곡물수출은 농산물의 상품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상품생산의 주도권을 둘러싼 관료·지주대상인자본 대 농민·소상인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쌀과 콩을 나누어 살펴보면 쌀의 수출은 관료·지주가 주도하는 상품생산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반면 콩을 농민층의 상품생산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런 까닭에 개항후 대일 곡물수출의 확대는 한편으로 농산물의 상품화를 일층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또한 그것은 도리어 봉건반동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항후 농업변동은 당해 지역의 농업환경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었다.

경상도의 주요 농업지역은 내륙 깊숙한 부분까지 낙동강 수로를 통해 최대의 대일 무역항이었던 부산항과 바로 연결될 수 있었던 까닭에 개항 직후부터 직접적으로 대일 곡물수출의 영향을 받았다. 1885년 부터 1894년 사이에 이 지역에서 무려 14회에 달하는 방곡령이 발포되었던 사실이 그 예가 되겠다. 그러나 이 지역의 곡물수출은 전라도 지역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청일전쟁 전후 시기에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던 곡물을 산지별로 구분하면 쌀은 「전라도산이 7분, 경상도산이 3분⁷⁾」 이었고, 콩은 「경상도산이 8분이었고, 전라도산이 2분⁸⁾」 이었다. 즉 개항 이후 전라도 지역에서는 쌀 위주의 수출이 확대되었던데 비해 경상도 지역에서는 쌀과 콩의 수출이 동시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경상도 지역에서도 콩은 개항 이전에는 거의 상품화되지 못했다. 콩은 어디서나 손쉽게 재배될 수 있을 뿐아니라 운송비가 많이 들어 상품성이 낮았고, 더구나 수익성 높은 면화의 대항작물이었던 탕

3) 拙稿, 1986, 「18-19세기 경북지방의 농업변동」, 『한국사연구』, 53

4) 松田行藏, 1887, 『朝鮮國慶尙忠清江原道旅行紀事及農商況調査』

5) 하원호, 1985, 「개항후 방곡령 실시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49, 50-51호

6) 이하 서술부분은 다음 연구 참조

拙稿, 1993, 「한국근대의 상업적농업 연구 -경상북도지역의 농업변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7) 『通商彙纂』 17호 所載 報告

8) 『通商彙纂』 19호 <朝鮮國 慶尙道 巡廻報告>

이었다. 그러던 것이 개항이후 일본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상품생산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었는데, 콩의 수출이 호황을 누리면서 이 지역에서는 「새로이 산야를 개간하여 콩을 파종」하거나, 「하등답을 콩밭으로 만들거나, 논·밭이랑에도 콩을 파종」⁹⁾할 정도로 상품생산이 확대되었다. 이같이 콩의 수출은 그 자체로서 상업적 농업을 확대시키는 것이었지만, 나아가 보다 중요하게는 앞의 자료가 말하듯이 그것이 농민층의 상품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¹⁰⁾. 말하자면 개항후 대일 곡물수출은 경상도 지역의 경우 봉건적인 농민수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적 상품생산을 일층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1862년의 농민항쟁과는 정반대로 1894년의 농민전쟁의 경우 고부를 중심한 전라도 지역에서 먼저 봉기가 일어나고, 경상도 지역이 그 뒤를 이어 늦게 봉기하게 만든 사정은 이러한 변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항후 기선을 주종으로 하는 근대적인 외국선박이 연안무역에 종사하면서 원격지간 상품유통을 확대시킨 것도 상품생산의 발전을 촉진한 계기가 되었다. 가령 함경도는 운송문제만 해결되면 경상도의 미곡과 면포의 상품시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재래식 韓船으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동해안 해로가 바람이 높고 물결이 급한 까닭으로 통상 10에 6,7은 목적지에 닿기 전에 침몰하였다¹¹⁾. 그런 사정으로 함경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상품생산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제 새로 도입된 근대적 선박은 이러한 제약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다. 외국 선박이 동해안 운송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후반이었는데, 이후 그들의 비중은 급속히 커져서 1890년대가 되면 재래의 판선업을 완전히 구축할 정도가 된다. 이러한 변화와 궤를 같이하여 경상도에서는 함경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상품생산이 급속히 발전하였던 바, 1893년 부산항에 역의 판매를 목적으로 집하된 경상도산 면포는 무려 65만 필에 달했고, 농민전쟁이 일어난 1894년에도 61만필이나 되었다¹²⁾.

다른 한편 이외는 별도로 임술항쟁을 계기로 반봉건투쟁이 확대되고 일상적으로 만연하게 된 것도 개항후 이 지역에서 농민적 상품생산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임술항쟁에서 봉건관료와 양반을 공격하고 신분제적 부세제도의 개혁을 요구하였던 농민들은 그 항쟁의 수습과정에서 단행된 대원군의 서원 철폐와 무단토호의 징치 그리고 호포법의 실시 등을 경험하면서 지방관리나 양반들에게 “주저없이 소란을 피우고 공공연히 불복하는” 저항의식을 발전시켜 갔다¹³⁾. 그로 인해 관리나 양반층이 주동이 된 법외 가렴은 민란 형태의 농민층의 집단적 저항을 받게 되었다. 1875년의 울산민란, 1883년 성주민란, 1890년 함창민란 등이 그런 경우였다. 울산에서는 吏逋·班逋民結隱結濫排 등에 맞서, 성주에서는 임술항쟁 직후 7,8양으로 인하되었던 결가를 2,30양으로 인상한 것에 맞서, 함창에서는 현감의 貪汚에 맞서 농민항쟁(민란)이 폭발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부세제도를 악용한 가렴은 제한을 받았고, 민란 발생 소지가 커질 정도가 되면 상주지역에서와 같이 수령이 선도적으로 부세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⁴⁾.

또한 농민들의 이러한 저항은 지주들의 수탈에도 영향을 끼쳤다. 신분제가 약화되면 지주권도 약화

9) 『通商彙纂』 1895년 22호 「朝鮮國全羅道巡廻復命書」

10) 宮嶋博史 1974 「甲午改革 以後의 商業的 農業」 『史林』 57-6

11) 『通商彙纂』 1883년 上半季 <元山港之部>

12) 趙公(1993) 참조

13) 趙公, 1988 「19세기 후반 경상도 성주지방의 농민운동」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4) 『尙州事例』(1888년)

되기 마련이었다. 소작농민들이 허약지주나 경영이 부실한 지주에 대해 작료를 거납하는 사례가 빈발하였고, 이는 서원전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또한 농민들은 지대인하를 관철시켜 갔고, 현실적으로 소작농에게 유리한 도조법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경상도 지역에서는 지주가 총수확의 3할 정도만을 겨우 수취할 수 있는 도조법이 대체로 188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전·답 모두에서 일반화되어 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에서는 소작농이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일반 곡물재배를 기준하여 약정된 지대액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소작관행이 성립하고 있었다¹⁵⁾.

이상과 같은 조건에 힘입어 개항후 경상도 지역에서는 상업적 농업이 더욱 확대되었고, 봉건적·지주적 상품생산의 증가에 못지 않게 농민적 상품생산 또한 급속히 발전하였다. 경상도에서 상업적 농업이 발전한 지역으로는 먼저 낙동강 연안지역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경상도에서는 산이 많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육로의 발달이 부진하여, 곡물일 경우 육로로 운송하면 거의 이문을 남길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 사정으로 상품생산은 이런 제약이 적은 낙동강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擇里志』에 따르면 김해 칠성포를 기점으로 낙동강을 통해 화물을 실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한계는 북으로는 상주였고, 서쪽으로는 진주였다¹⁶⁾. 즉 북으로는 김해·밀양·창녕·현풍·고령·성주·대구·선산·인동·의성·상주 등지의 낙동강 연안지역과 서쪽으로는 의령·함안·진주 등지의 낙동강 연안지역이 여기에 속했다. 하동 또한 섬진강을 이용해 상품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조선후기부터 상업적 농업을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개항후 대일 곡물수출이 가능하게 되자 쌀과 콩의 상품생산을 더욱 확대시켜 갔고, 그 발전은 토지가 상대적으로 더 비옥하였던 낙동강 서쪽 지역이 일층 현저했다.

이들 지역외에 상품생산이 발전한 지역으로 들 수 있는 곳은 면화 내지 면포가 생산되는 지역이었다. 면화나 면포는 곡물과는 달리 육로로 운송하더라도 충분히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런 사정으로 낙동강에 연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품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경상도에서는 매년 부산항에서 인천 원산으로 수출되는 면포가 60-70만필에 이를 정도로 면포의 상품생산이 발전하였는데, 주산지는 대구·칠곡·청도·경산·자인·현풍·고령·성주·김산·개령·인동·상주·의흥·의성·밀양·고성·진주 등지였고, 그 중에서도 진주·고성·의성·상주·경산·자인 등지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만큼 대규모로 상품을 생산하였다¹⁷⁾.

상업적 농업의 발전은 농민경제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농민층 분해를 진전시켰다. 이들 지역에서는 상품생산을 통해 부농이 성장하였다. 쌀과 콩의 상품생산이 발전한 지역에서는 '兼併廣作' 하는 부농이 증가하였고, 면업 중심지에서도 여러명의 임노동자를 고용해 상품용 면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부농경영이 출현하였다. 면업에서는 호당 면포 생산고가 20필을 상회할 경우 임노동을 고용한 생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말 일본인들의 면작조사보고에 따르면 진주가 호당 60필을 넘었고, 상주·함창이 호당 30-40필에 달했으며, 의성·풍기·자인·창원 등지도 모두 20필을 넘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노동을 고용해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부농경영이 상당수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농경영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광범한 영세 소빈농층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었다. 소빈농층의 몰락은 광작형 부농이 성장하는 쌀과 콩의 상품생산이 발전한 지역일수록 더욱 심각한 양상

15) 拙稿(1993)

16) 『擇里志』 八道總論 慶尙道

17) 梶村秀樹, 1968, 『李朝末期의 綿業의 流通及生産構造』, 『朝鮮에 있어서 資本主義의 形成과 發展』

을 띠었다. 그들의 몰락은 봉건적인 부세수취제도와 도결제 및 금납화의 확대를 매개로 더욱 촉진되었다. 그러한 변동의 사례를 “육운이나 해운이 다 남북으로 통하여 수륙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상주지역에서 살필 수 있다. 1888년에 상주목사가 작성한 『尙州事例』에 따르면 군정의 경우 대원군의 개혁으로 호포법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班戶와 常民戶가 각각 1냥 8전과 5냥여로 차등지게 부담한 까닭에 상민중에서 모칭유학의 방법으로 양반호가 되는 자가 8년 사이에 무려 2천 8백여호나 늘어나 종전 8천 7백여호의 상민호가 지던 군포를 6천여호가 부담하게 되어 결국 小民이 지탱하지 못하고 이산이 속출하는 사태가 초래되고 있었다. 또 임술년(1862년) 개혁시 결가를 13냥으로 작성하였던 것이나 흉년이 들어 면가나 곡가가 앙등하면 ‘邑外雜類’들이 官屬과 결탁해 戶首職을 冒差하고는 평상시 가격에 상당하는 米木을 징수하는 농간을 부려 소민을 몰락케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성주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바 1893년의 이 지역사정을 전하는 도한기의 『對三政策』에 따르면 ‘奸氓’과 결탁한 ‘猾吏’의 농간으로 포락지나 황무지 개간으로 겨우 연명하는 소민들이 饒豪民의 전세까지 전가받아 결국 농사를 폐하고 행상으로 밀려나는 사태가 야기되고 있었다. 1880년대에 초반에 이 지역에서 화적이 출현하고, 이후 그 수가 점점 늘어나 하나의 사회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개항 이후 일층 급격해진 이러한 농업변동이 초래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부농층이라 하여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상주지역의 경우 많은 부농들이 흉년에 면임직을 배정받아 낭패를 보거나, 관부와 결탁한 세력있는 양반가에게 토색질을 당하거나, 적게는 5-6백냥에서 많게는 1-2천냥을 강탈당하는 공명첩 강매에 시달리고 있었다¹⁸⁾. 신분을 상승해 공적인 부세수탈에서는 감면을 받거나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었지만 관료나 세력있는 양반이 자행하는 사적인 침탈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농민전쟁기의 농촌사회는 임술항쟁 때보다도 농촌사회의 분해가 더욱 더 진전되고, 그런 만큼 부농세력이 커지고 나란히 몰락하는 농민도 증가하면서 봉건지배체제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혁명적 기운도 고조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계기만 주어진다면 쉽게 폭동이 발생하였는데, 농민전쟁의 발발로 봉건지배체제가 전면적으로 동요한 1894년의 경우 경상도에서는 무려 60여곳에서 民擾가 발생하였던 바 그 중 상당수가 동학조직과는 무관하게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상의 검토에서 1894년의 농민전쟁의 배경으로 주목되는 것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는 개항후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이 일층 촉진됨으로써 농민층 분해가 진전하는 가운데 부농세력이 커지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되고 있는 신분제의 모순 - 즉 관리나 세력있는 양반들에 의한 부농수탈 - 을 개혁하고자 하는 지향을 지니고 있었던 점이다. 둘째는 농민층 분해가 발전하면서 소빈농층이 점점 부농세력과 이해를 달리하게 되었고, 그 몰락에 비례해 봉건적인 지배체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부농적 착취에 대해서까지도 공격적으로 되어 가고 있었던 점이다. 세째는, 낙동강 연해읍에서 자주 방곡령이 실시되고, 일부 포구에서 일본인 상인에 대한 적대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적어도 농민전쟁기까지는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일반 농민들의 체감도나 적대감이 매우 낮다는 점, 달리 말하면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 경상도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는 민족적, 계급적 적대감을 불러 일으킬 만큼 크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18) 『尙州事例』(1888)

2) 東學의 전파와 敎勢의 형성

1894년 이전에 일어났던 농민항쟁은 군현 차원을 넘지 못하는 국지적 항쟁으로서의 한계를 지녔다. 그것은 또한 봉건적 모순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세제도의 개혁이라는 제한된 요구에 묶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에 비해 1894년의 농민전쟁은 봉건지배체제를 전면적으로 변혁할 목적으로 애초부터 군현단위의 국지성을 뛰어 넘는 조직화된 전국적인 농민봉기로 전개되었다. 반봉건 투쟁에서 이러한 도약을 가능케 한 것은 동학의 조직이었다. 이 점은 1894년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60여건의 民擾를 검토하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 民擾 가운데서 동학조직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은 모두 이전의 민란과 아무런 차이성을 보이지 않았음에 비해, 동학조직이 지도한 지역에서는 그 민요가 시종 반침략 반봉건의 전국적인 농민전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민전쟁의 배경으로 동학세력의 형성과정과 그 성격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경상도에서 동학교도가 최초로 형성된 곳은 수운 최재우의 고향이었던 경주 일대였다. 최수운은 득도 이듬해인 1861년에 경주에서 포덕을 시작하였고, 교도들이 늘어나자 관의 이목이 쏠리는 것을 피해 전라도 남원으로 잠시 옮겼다가 그 이듬해 3월에 다시 경주로 돌아온다. 이후 그는 논학문, 수덕문, 몽중노소문답가, 포덕가를 짓고 적극적인 포덕활동을 펼치면서 그해 12월에는 접주제를 창설한다. 이때 경주·영덕·영해·대구·청도·청하·연일·안동·단양·영양·영천·신령·고성·울산·장기에 접주가 임명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지역에 이미 교단조직을 설치할 만큼 상당수의 동학교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교세는 이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수운이 체포되어 처형되고 아울러 다수의 접주가 옥사하거나 유배당하는 탄압을 받게 되면서 크게 약화된다¹⁹⁾. 수운이 처형된 이후 동학조직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지역은 경주·영덕·영해·영양·단양 등지로 국한되었다.

최수운이 처형된 이후 동학조직을 수호하고 확대해 갔던 것은 해월 최시형이었다²⁰⁾. 해월은 수운이 처형된 이후 안동·영해·평해·영양·상주·정선·단양·울진·예천·영월 등지를 전전하는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교문을 수호하고 포교하는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한 노력으로 경주에서 울진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다시 많은 교도가 생겨나고 약화되었던 동학조직도 상당수 복구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1871년 이필제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이필제는 1871년 영해와 문경에서 교조신원을 내걸고 울진·경주·안동·영양·영덕 지역의 동학교도들을 대거 참여시킨 폭동을 일으켰고, 그 폭동이 진압되면서 이들 지역의 동학조직은 일거에 궤멸당하고 말게 되고, 해월 자신도 또 다시 관헌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이후 해월은 강원도의 인제, 정선 등지로 피해 활동하다가 1884년 6월에 상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사이에 관헌의 탄압도 둔화되고, 또 계속된 포교활동과 1880년의 경전간행 등으로 교도수가 증가하여 해월도 안착하여 포교할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 것이었다. 이후 그는 상주와 보은 지역에 거처를 두고 1894년 농민전쟁 때까지 경상도·충청도·전라도 일대를 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게 된다²¹⁾.

경상도의 경우 1894년의 농민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동학교도들은 해월이 상주에 안

19) 『天道敎會史 草稿』, 「第 1編 天通」.

20) 최시형의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

박명수, 1985, 「해월 최시형 연구 - 초기 행적(1861-1871)을 중심으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21) 『天道敎會史 草稿』, 「제 2편 地統」.

착하게 되는 1884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동학은 먼저 관현의 감시가 소홀한 소백산맥 오지의 산간부락들에서 집중적으로 포교되었다. 그리하여 班常을 가릴 것 없이 거의 온 마을 전체가 동학에 입도한 東學村들이 산속 오지에 형성되었고, 이를 거점으로 관아가 있는 군현의 중심부로 동학은 전파되어 갔다. 최시형은 이러한 포교활동을 직접 관장한 것으로 보이며, 접주들 또한 동학교단 내에서 가장 충실히 그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²⁾.

이렇게 형성되어 가던 동학세력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93년에 교조신원을 요구하면서 개최된 보은집회에서였다. 보은집회에서 퇴산할 당시 보은의 남·동면 요로의 防戍者였던 將吏들이 파악한 경상도의 군현별 동학교도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보은집회에 참가한 경상도 동학교도 분포(출전:『聚語』)

[日時]	[接名]	[人員]
3월 30일	尙州姜化一接	6
	金山人	2
	(尙州) 公城人	7
	星州 善山 金山 尙州 等人	36
4월 2일	金山接	2
	星州接	30여
	善山接	30여
	尙州接	90여
	尙州公城接	50여
	金山·善山等地	100여
	安東接	40여
4월 3일	尙州接	20여
	善山接	60여
	金山接	18여
	仁同接	40여
	河東接	50여
	晉州接	60여

이 표를 보면 경상도에서 보은집회에 참석한 교도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보은집회에 가장 많이 참여한 상주접도 그 수가 전부 합쳐 170여명에 불과하였는데 경기도 강원도에서 참여한 접들은 대부분이 200명을 상회하였다. 그것은 경상도에서 동학교도가 적게 참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밤을 타고 셋길을 따라 퇴산한 교도들이 타지역에 비해 다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²³⁾. 이를 감안하고 살펴

22) 신영우, 앞의 논문

23) 『聚語』 「外他從間路乘夜潛逃走者 不計其數云云」

면 1893년에 이르면 상주·김산·선산·성주·인동·안동 등 경상도 서북부 지역에는 접조직을 갖추고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는 상당수의 동학교도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이 표를 보면 진주와 하동에서도 상당수의 교도가 보은집회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진주와 하동에서 동학교도가 형성되는 과정은 경상도 서북부 지역과는 달랐다. 이 지역에 동학을 전파한 것은 최재우였다. 최재우는 1862년 관현의 지목을 피해 남원으로 옮겨가서 1년여를 머물게 된다²⁴⁾. 그 때 교도가 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최재우 처형 이후에도 인근지역 간에 서로 연결을 가지면서 독자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세력을 형성한 것이었다. 가령 진주의 경우 최재우에게 직접 동학을 전수받은 백낙도가 손옹구를 제자로 삼고, 손옹구가 다시 고만준·임정룡·임말룡 등을 제자로 삼으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무려 수천에 달하는 무리에게 동학을 포교하게 되고 德山과 같은 동학촌을 형성하게 된 것이었다²⁵⁾.

경상도의 경우 1894년의 농민전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 동학세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있었다. 그 형성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집단이 계속된 봉건지배세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세를 꾸준히 확대해 갔던 사실이다. 이것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먼저 생각되는 것은 당면한 사회적 위기와 모순을 각자가 '수심정기'하는 도덕적 수양을 통해 해결하려한 동학의 현실대처자세이다. 水雲은 당대의 사회적 민족적 위기가 초래된 원인을 '各自爲心' - 각자가 天道를 벗어나서 私慾만을 추구하는 것 - 한 데서 찾았다²⁶⁾. 따라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각자가 그 본성을 회복하는 '守心正氣', 즉 각자가 도덕군자가 되도록 수양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보았다²⁷⁾. 사회제도의 개혁을 모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수운의 이러한 사상은 2대 교주 海月에 이르러 일층 강화된다. 그렇게 된 계기는 이필제난이었다. 수운이 처형되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수운의 이러한 입장에 도전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그러한 성향을 지녔던 대표적인 인물이 교조신원을 표방하고 영해와 문경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필제였다. 그러나 그 폭동은 연루된 지역의 동학교도들이 대량으로 희생시키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고, 해월 자신도 이로 인해 어렵게 마련한 포교의 근거지를 일거에 상실하고 다시 도피생활을 하는 처지가 된다. 그리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해월이 교문을 지도하는 방침은 더욱 개인적인 수양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동학교단이 해월의 방침에 충실해 이같은 현실대처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쉽사리 그 조직이 노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계속된 추적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세를 꾸준히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동학이 비록 현실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도 교단내에서는 철저히 신분차별을 철폐하였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²⁸⁾. 최수운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한 사회는 '侍天主造化定'이 되는 後天開闢이었다. 그 개혁은 각자가 守心正氣하여 모두 도덕군자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었다. 수운은 누구나 수심정기하고 시천주할 수 있다고 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였고, 오로지 양반만이 도덕군자가 될 수 있다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사상에 반대하였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노비를 해방시켜 수양딸과 며느리로 맞아들임으로써 이러한 자세를 확고히 내보였다. 수운의

24) 『天道敎會史 草稿』, 제1편 天統.

25) 김준형, 앞의 논문.

26) 『東經大典』, 布德文.

27) 『東經大典』, 論學文.

28) 박맹수, 1993,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동학의 역할』,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평등사상은 해월에 계승되어 ‘배찌는 며느리가 하늘님이며’,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다’라는 범천론적인 평등사상으로 전개되었다. 해월은 이러한 평등의 원칙을 동학교단의 운영이나 간부의 임명에 그대로 관철시켰다. 동학에 입도하면 그 날로 신분의 차별없이 맞절하게 하고 서로 접장이란 호칭을 사용하게 했으며, 간부를 선임할 때도 오로지 수도 자세와 개인적인 자질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동학은 봉건지배계급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상민 노비 등의 하급신분에서 물론이고 양반이면서도 양반 대우를 받지 못했던 하급 양반이나 향리층에게 까지도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²⁹⁾.

또한 동학이 有無相資를 장려하고, 또 부적을 불살라 먹이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하였던 것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동학이 꾸준히 확산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³⁰⁾. 당시는 흉년이 잦았고 전염병 또한 수시로 돌았지만 봉건지배층은 이러한 사태를 수수방관하였고, 개중에는 심지어 이를 축재의 기회로 악용하려는 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은 농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구원처로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동학의 교세가 확대될 수 있었던 요인이 이러했으므로 동학교도의 신분구성이나 계급구성은 매우 다양하였다. 신분 구성으로 보면 동학의 평등사상을 열렬히 환영하였던 상민이나 노비 출신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하급신분의 양반이나 향리·읍속 등이 입도하였고, 소수이기는 하나 동학의 교리에 공감하는 토착세력가문의 양반들도 교도가 되었다. 계급면에서 보면 그 구성은 더욱 다양하였다. 교단은 계급문제에 있어서는 유무상자만을 강조했을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 까닭으로 교도 중에는 대지주나 부농도 있었고, 영세소농·소작빈농·임노동자·행상·수공업자 등의 하층 계급도 있었다³¹⁾. 물론 교도 구성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한 것은 상민이나 노비 신분에 속하는 자들이었고, 계급으로는 소작빈농·임노동자·행상 등의 하층계급이었다. 그러했지만 교단이 그들의 계급적·신분적 요구를 쫓아가는 방향으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교단 차원의 활동이나 교도 개인의 수행에서 가장 중시된 원칙은 신분 또는 계급의 이해를 초월하여 ‘수심정기’하는 것이었고, 有無相資하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誠心修道하는 것에 더해 風力이나 紀綱에 밝을 것이 요구되었던 接主나 六任등의 동학지도부에는 지주 또는 부농이었던 하급양반층이 상당수 임명되고 있었다.

이같은 신분-계급 구성에 있어 다양성과 개인적인 도덕수양을 중시하는 종교적 자세로 인해 동학조직은 현실적인 사회모순을 개혁하는 변혁운동조직으로 전화되기가 쉽지 않았다. 앞서 살폈듯이 이 시기에 이르면 봉건체제에 대한 변혁요구는 점점 더 계급적 색채를 분명하게 띄어 가게 된다. 객관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상민·노비 신분의 소작빈농 이하의 하층계급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동시에 군현의 경계를 초월한 전국적인 교단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서 동학집단은 충분히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는 혁명세력으로 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전화는 동학집단이 가지는 바로 이같은 제약성 때문에 쉽게 이루어 지지 못했다. 1893년의 보은 집회가 그 자리에 모인 교도들의 현실적인 계급 이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교조신원과 掃破倭洋을 중심된 기치로 내걸었던 것이나, 선무사의 일방적인 약속과 위협 아래 지도부가 도피 잠적하면서 대중속에 고양되고 있던 혁명적 기운을 어이없이 무산시켜 버린 것 등이 그러한 어려움을 잘 반영하였다³²⁾. 최시형의 지시에 특히 충실했던 경상도의 동학지

29) 신영우, 앞의 논문

30) 최승희, 1981, 『서원세력의 동학 배척운동 소고 -1863년 동학배척 통문분석』,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31) 신영우, 1988, 『1894년 영남 북서부지방 농민군 지도자의 사회신분』, 『學林』(연세대 사학과) 10.

도부는 이러한 한계성을 지닌채 1894년 봄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3.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1) 동학농민군의 세력결집과 반봉건 투쟁

은인자중하던 경상도의 동학교도들이 공개적으로 농민군 결집에 나서게 되는 것은 전라도 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터였다. 관군이 농민군을 제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농민군 지도부와 협상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지역의 동학 지도자들도 접소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 농민들을 규합하였다.

경상도 북서부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동학조직은 크게 5개 포가 있었다. 상주 함창 일대에서 큰 세력을 가졌던 忠慶包와 尙功包, 관동지역과 예천 안동 풍기 충주 평창 일대에서 활동하였던 關東包, 김산과 지례 영동 옥천 등지에서 활동하였던 永同包, 선산 일대를 관할하였던 善山包가 그것이었다. 각 포는 그 산하에 수십개 接을 거느리고 있었고, 包에는 大接主가 있었고 접에는 그 크기 대소에 따라 首接主와 接主가 있었다³³⁾. 동학농민군의 결집은 이러한 포·접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상도 북서부 지역에서 농민군 결집이 두드러졌던 지역은 상주와 예천이었다³⁴⁾. 상주에서는 상공대 접주 이관영과 김현영, 김현동, 김현양, 신광서 정기복 등의 접주들이 중심이 되어 덕곡, 임곡, 용호, 사제, 대곡, 왕곡 등에 도소나 접소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교세 확대에 나섰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근거지였던 화북, 화서, 화동, 모서, 모동면을 장악하고 나아가 상주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1894년 여름이 되면 관아가 있는 읍내를 제외한 먼리 전부가 농민군의 지배를 받게 된다. 예천에서는 수접주 崔孟淳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는 이해 3월 부터 冬老面 蘇野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쳐 여름이 되면 유천면, 개포면, 저곡면 등지에 무려 48개소에 달하는 접소에 설치하였다. 앞의 지역들 보다 교세가 약했던 김산과 성주에서는 이 보다는 약간 늦게 세력을 형성하였다. 김산에서는 인근의 상주, 선산, 영동에 근거를 가진 대접주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해 8월 편보언 등이 김천 장터에 집강소를 설치하면서 그 세력들을 통합하여 읍내외를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성주에서는 8월에 들어서 동학군들이 읍내로 들어가 접소를 설치하고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하였다³⁵⁾.

한편 같은 시기에 경상도 남서부의 진주와 하동 일대에서도 동학군들이 활동을 개시하였다³⁶⁾. 그러나 진주에서는 1894년 4월 관군이 진주의 동학세력 구심지라 할 덕산을 습격해 백낙도를 포함한 핵심 지도부를 처형함으로써 세력결집에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런 관계로 9월에 가서야 순천 광양등지의 농민군

32) 보은집회의 한계성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

김인걸, 배항섭, 1994.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1 -고부민란에서 제 1차봉기 까지-」,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 100주년 기념 제 5차년도 학술심포지움 발표원고)

33) 신영우, 앞의 논문(1991)

34) 상주, 예천, 김산의 동학농민군 결집과정은 신영우의 앞의 논문(1991)참조

35) 줄고(1988)

36) 김준형, 앞의 논문

의 도움을 받아 읍내외를 장악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하동에서도 6월 말경 동학도들이 읍내에 도소를 설치하고 세확대를 꾀했지만 화개동의 민포군을 끌어들이 하동부사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게 되며, 9월에 들어서 광양 순천포의 도움으로 읍내를 장악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경상도의 동학세력은 전라도 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시킨 이후 세규합에 들어 갔는데 불과 한두달 만에 상주·예천·선산·김산·성주·하동·진주 등지를 지배하는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지역 외에도 의성·풍기·안동·봉화·남해·사천·고성 등지에서도 동학세력은 급속히 세를 확대하고 있었다. 동학세력이 이와 같이 확대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이 지역의 지배세력들이 전라도 농민군의 위세에 놀라 동학의 세규합을 저지하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주된 원인은 이 지역의 농민들이 전라도의 농민봉기에 고무되어 적체된 봉건적 모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앞다투어 동학에 입도한 것이었다. 전주성 함락 이후 이 지역에서는 하루에도 천수이상의 농민이 동학에 가입하였는데 그들중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것이 “市井童昏 平民 藏獲 雇傭等輩”³⁷⁾등의 하층계급이었다. 동학이 급속히 세를 확대하였던 예천·상주·함창·선산·김산·지례·개령·성주·하동·진주 등지는 앞서 살폈듯이 토지가 비옥하고 낙동강과 섬진강의 수로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상업적 농업이 발전이 현저하였다. 그런 만큼 농민층의 분해도 진전되었고, 이들 하층계급이 떠맡아야 하는 봉건적 모순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이들 하층계급은 동학농민군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희생을 강요하는 봉건적 모순을 일거에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신입농민군이 증가할수록 자연히 반봉건투쟁도 확대되어 갔다. 반봉건투쟁은 이 지역의 지도부의 종교적 지도방침과도 관련하여 주로 사적인 차원에서 양반이나 향리·읍속들을 징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신입농민군들은 평소 부당한 수탈을 일삼던 읍속이나 토호 또는 富家들을 공격하여 錢穀이나 布帛을 빼앗기도 하고, 횡포한 양반을 징치 또는 난타하며, 산송을 일으켜 班家의 무덤을 파헤치기도 하였다. 악질양반을 비상수단으로 처결하는 살판계를 조직하기도 했고, 상주 공성면 素里이나 內南面 鳳臺 등에서와 같이 토호부락을 전체로 불태워 태워버리거나 부숴버리기도 했다³⁸⁾.

신입농민군들의 이러한 투쟁에 대해 이 지역의 동학 지도부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그 투쟁이 사적인 분풀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앞장에서 살폈듯이 현실 모순에 대처하는 기본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최시형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던 자들이고, 최시형은 교단이 직접 표면에 나서 반봉건 투쟁을 벌리는 것에 반대해 왔다. 그들이 전주성 함락 이후 적극적으로 교세확대에 나선 것은 봉건적인 사회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목표한 바는 이 기회를 이용해 교조신원을 성취하는 것, 즉 동학을 합법적인 종교로 승인받는 것과, 동시에 동학을 자체를 널리 포교하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신입하는 농민들에게 반드시 동학교단의 전례에 따르는 입도식을 치르게 하였고, 입도식이 끝나면 도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교주 최시형의 도장이 찍힌 名紙를 교부하였다. 도인이 되면 집에 소속시켜 접주의 지시를 따르게 하였고, 동학의 주문을 익혀 집회 때마다 다른 도인들과 같이 암송하게 하였다. 이런 입장이었으므로 사회개혁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 또한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시정 내지 개혁하는 한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신입 농민들의 저와 같은 반봉건 투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37) 『甲午斥邪錄』

38) 신영우, 앞의 논문(1991)

동학지도부는 신입농민들의 독자적인 반봉건투쟁을 최대한 금지하거나 억제하려 하였다. 예천 일대에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벌여 그 산하 교도가 7만명에 달했던 소야수접주 최맹순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였다. 최맹순은 예하 접주들에게 관아가 있는 읍내를 범하거나 양반 또는 향리가를 공격하지 말도록 엄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통제는 결코 쉽지 않았다. 반봉건 투쟁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면서 전면적인 사회개혁에 소극적이던 지도부의 권위가 흔들렸고, 새로 입도한 자들로 구성된 접들이 늘어나면서 상부 조직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태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최맹순의 예하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 유천접주가 그의 지시를 거부하고 농민을 모아 지주가를 공격하였던 것이다³⁹⁾. 최맹순은 당시의 동학지도자로서는 최상급의 위세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권위도 무시되는 상황이었으니 다른 접주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최시형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신입농민들의 반봉건투쟁을 억제하려 하였다. 그는 1894년 8월 각포에게 「永爲金石之典」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내린 11개조의 통유문을 내렸다⁴⁰⁾. 그 주요 내용은 (1)“修身行使는 반드시 忠孝로서 根本을 삼고 居家執事는 耕讀을 힘쓸 것”, (2)각포의 활동은 중앙교단 -法所와 布德所-의 지도에 따라 봉행하고 자의로 聚黨하지 말 것, (3)黨勢를 업고 錢財를 강탈하거나 堀塚하는 자를 엄히 징치할 것, (4)교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賭技·騙財·無理한 일로써 詰難하며 毆打하는 행위-를 징계할 것 (5)“官令에 복종하고 公稅를 제 때에 납부하도록 힘쓰고 釐邑에 獲罪하지 말 것” 등이었다. 포접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수심정기하는 종교적 수행에 치중해야 하며, 봉건국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최시형은 이 통유문을 내리면서 아울러 그 지시를 이행할 檢察官과 按廉使를 파견하였다⁴¹⁾. 그들은 각읍과 포를 순행하면서 詞訟을 處決하였 는 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단이 주체가 되어 반봉건 투쟁을 체제내화하고 그 강도나 수위를 통일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신입농민군들의 개혁요구를 진정시키거나 반봉건 투쟁을 억제할 수는 없었다. 그런 가운데 9월로 넘어가면서 일본군과의 전쟁이 불가피 하게 되고, 이 지역의 동학 지도부도 전쟁준비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지도부는 농민들의 반봉건 투쟁을 억제하는 방침을 포기하게 된다. 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문제를 놓고 농민대중과 대립하는 것이 전쟁준비를 위해 결코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후 지도부도 전쟁준비를 위해 반봉건 투쟁에 적극 가담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 각지의 도소나 접소 또는 집강소가 앞장서 사족들을 동학군에 가입시키고, 지주나 부농층이 소유한 錢財를 징발하여 전비나 군량을 조달하였다. 나아가 여러개의 포가 연합하여 상주·선산·성주 등지의 관아를 점령하고 양반과 향리·읍속 등 봉건지배세력을 징치하였으며 무기와 군량을 징발하였다.

한편 진주와 하동에서도 9월 들어 동학농민군이 읍내를 점령하고 반봉건투쟁을 전개하였다. 7월 초 관군과 민포군의 공격을 받고 광양으로 쫓겨갔던 하동의 동학도들은 9월 1일 광양순천포 농민군들과 함께 하동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도소를 설치하였으며, 다시 외곽의 각 촌락으로 들어가 지주나 토호들을 공격하고 민포군의 거점이었던 화개동을 점령하였다⁴²⁾. 진주에서도 9월 1일 부터 동학농민들의

39) 『甲午斥邪錄』 8월 11일

40) 天道敎史編纂委員會, 1981. 『天道敎百年略史』 上卷 p.246-248

41) 『甲午斥邪錄』 8월 20일, 『渚上日月』 8월 14일

취회가 시작되어 9월 8일에는 평거 광탄진에서 수천명이 모이는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 집회에는 73개 면에서 각 백명씩 주창으로 무장한 농민들이 참여하였고, 各里洞의 里任, 洞掌들에게 자기 지역의 민폐를 교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하는 리임, 동장에 대해서는 그 집을 탕진할 것 등이 결의하였다⁴³⁾. 이후 9월 17일에는 하동으로 부터 수천명의 동학군이 진주로 진격하여 관아를 점령하였고, 그 다음날 영호대접주 김인배가 입성함으로써 진주에서 동학군의 위세는 절정에 달하였다. 또한 남해에서는 9월 11일에 무장한 호남의 동학도들이 현청에 돌입하여 감옥에 있는 동학도를 석방하였고, 사천에서는 9월 13일과 20일에 수백명의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여 무기고를 열어 무기를 탈취하였고 官衙를 불태웠고, 고성에서도 600여명의 농민군이 봉기하였다⁴⁴⁾.

1894년의 농민전쟁에서 경상도의 경우 반봉건 투쟁은 이상과 같이 전개되었다. 반봉건 투쟁은 이 곳에서도 양반지배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격렬하였다. 양반들은 하천 신분의 감시를 피해 앞다투어 산곡이나 인근 군현으로 도망하였고, 미처 피난하지 못한 자들은 재물을 강탈당하고 여러 차례 곤욕을 치루어야 했다⁴⁵⁾. 반면 동학도들의 위세는 그 소문만 듣고도 양반이 몸을 숨길만큼 당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반봉건 투쟁은 체계적인 폐정개혁이나 근대변혁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대개는 사적인 원한과 울분을 분풀이하고 재물이나 강탈하는 저급한 투쟁에 머물렀다. 또한 그 투쟁은 농민군의 역량을 결집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추진되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된 원인은 이 지역의 동학지도부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전라도 농민군의 승리를 교조신원과 교세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을 뿐이며 동학교단이 현실변혁의 주체로 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신입농민대중의 반봉건 투쟁을 억제하려 하였고, 자신들의 지시에 불응하는 농민을 관에 고발해 처벌하려 하였다⁴⁶⁾. 그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지방행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집강소가 설치되지 못했고 체계적인 폐정개혁투쟁도 발전할 수 없었으며, 농민들의 변혁의지는 저상되었고, 상층 지도부와 하층농민대중 사이의 갈등이 커져 농민군의 결집 또한 강력하게 이루어 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갈등은 항일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악화되나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지도부가 반봉건 투쟁에 가담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준비를 위해서였고 하층농민대중의 개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하동이나 진주 등 경상도 남서부 지역에서도 반봉건투쟁이 체계적인 폐정개혁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지역 자체의 동학세력이 미약했던 데에 원인이 있었다. 진주나 하동은 순천·광양포에서 지원나온 농민군의 힘으로 봉건지배체제를 제압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이 퇴각하면 자체 힘만으로는 폐정개혁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2) 항일봉기와 반침략 투쟁

농민들이 폐정개혁과 신분해방의 기대로 앞다투어 동학에 입도하고 있던 6월, 천진조약을 핑계로 서

42) 『梧下記聞』 제 2필 9월 1일

43)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 南台發甲 第 152號 「東學黨의 機文通報 및 情報通知要請」

44) 『梧下記聞』 第 2筆 甲午 9月條

45) 구체적 사례는 『滄上月月』 甲午年 기사 참조

46) 신영우, 앞의 논문(1991)

울에 진주한 일본군대는 경북궁 쿠데타를 일으키고 청국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 의도를 표면화시켰다. 이러한 소식과 때를 같이해 이 지역에서도 상주의 낙동과 함창의 태봉에 일본군 병참 기지가 설치되고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민족적 위기의식이 고조될 수 밖에 없었고, 동학농민군도 이러한 상황을 크게 우려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9월이 되면서 삼례회합을 통해 남접 소속 전라도 농민군이 재차 봉기하게 되고, 그 소식이 날아들면서 이 지역의 농민군 내에서도 낙동과 태봉에 있는 일본군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동학지도자들은 항일봉기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시형이 전봉준 등의 남접세력에 대해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북접 지도부는 삼례회합을 이끈 호남의 전봉준과 호서의 서장옥을 “국가의 역적이요 사문의 난적이라” 비난하고 있었다⁴⁷⁾. 그러나 남북접 간의 이러한 갈등은 손병희와 오지영의 극적인 협의를 통해 오래지 않아 해소되었고, 마침내 최시형도 9월 18일 북접 산하의 각 포 접주들과 동학농민군을 청산에 결집시킨 자리에서 “君 등은 道衆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하고 師冤을 伸하며 吾道의 大願을 실현하라”는 명령과 함께 손병희를 북접군 統領으로 임명한다⁴⁸⁾. 이로써 경상도 지역에서도 항일전쟁의 막이 오른다.

최시형의 지시가 떨어지자 이 지역의 농민군들은 서둘러 항일전쟁을 위한 준비를 진행시켰다. 준비작업은 두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하나는 농민군을 증강시키는 것이었다. 이미 입도한 농민들을 군사적으로 편제하는 한편, 사족들에게 항일 전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는 농민과 사족들에게 동학군에 강제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다른 하나는 戰費·軍糧·軍馬와 무기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戰費와 軍糧은 지주나 부농층의 錢財를 징발하였고, 軍馬와 무기는 민간에서 수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농민군의 무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군과 대적하려면 신식무기를 확보해야 했는데 민간에서 수집할 수 있는 무기는 고작해야 창과 칼이 전부였다. 이에 동학지도부는 官庫의 무기를 탈취할 목적으로 邑城을 공격하였다.

읍성에 대한 공격은 성주와 용궁에서 먼저 일어났다. 성주읍성에 대한 공격은 9월 9일에 있었다. 충청점 예하의 상주·김산의 농민군이 그 공격에 참가하여 동학군을 공격한 향리에 대한 응징으로 성내 민가 6백여호를 불태우고 무기고를 점령해 무기를 탈취하였다⁴⁹⁾. 이어 동학농민군은 9월 17일에는 용궁현을 공격하고 무기고를 점령하였다⁵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9월 22일에는 대읍 상주와 선산을 공격하였다. 상주 읍성에 대한 공격에는 함창·예천·상주의 농민군이 참가하였다. 수천명의 농민군이 읍내로 진격하자 그 위세에 눌린 수성군은 감히 대항하지 못했고 향리들은 전부 도망하였다. 그리하여 상주성은 별다른 충돌없이 농민군에게 점령되었다⁵¹⁾. 선산에 대한 공격도 동시에 행해졌다. 선산 공격에는 김산·선산의 농민군이 참가하였다. 선산 또한 쉽게 함락되었다. 성주의 지배세력이 동학농민군을 공격했다가 호되게 보복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지역의 향리들이 선불리 농민군에게 대항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⁵²⁾. 읍성을 장악한 농민군은 客館에 지휘부를 설치하고 官庫의 무기를 탈취하

47) 오지영, 1940, 『東學史』, pp.137-139

48) 이돈화, 1933, 『天道敎創建史』, p.65

49) 拙稿(1988)

50) 『日省錄』, 高宗 31年 9月 17日

51) 신영우, 앞의 논문(1991)

52) 『甲午以後日記』

여 무장을 강화하였다.

상주와 선산이 농민군에게 함락되자 낙동과 해평에 있던 일본군이 농민군을 공격하였다. 농민군이 신식무기로 무장하게 되면 다음 공격목표는 낙동과 해평에 있는 일본군 병참부라 판단하고, 미처 전력이 강화되기 전에 선제공격을 가하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일본군이 먼저 공격한 것은 선산이었다. 마침 선산의 향리들이 강을 건너와 개입을 요청하자 일본군은 농민군이 잠든 그 이튿날 새벽을 틈타 선산을 기습하였다⁵³⁾. 농민군은 기습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터라 수백명을 희생시킨채 황급히 패퇴할 수 밖에 없었다. 선산 기습에서 자신을 얻은 일본군은 9월 28일 상주성을 공격하였다⁵⁴⁾. 그들의 병력은 소수였지만 농민군 보다 월등히 우세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훈련되지 못한 농민군은 곧 혼란에 빠졌고 백여명의 희생자를 남긴채 퇴각하였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관고에서 탈취한 무기와 화약을 가져 올 수 없었고, 결국 선산과 상주 공격은 비록 읍성점거에는 성공했으나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상주와 선산에서 패퇴하게 되면서 이후 동학농민군의 세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당초 계획은 상주와 선산을 점거해 농민군의 무장을 강화한 다음 낙동과 해평의 일본군을 몰아내고 영동·황간으로 이동해 북접 농민군과 합류하는 것이었으나, 선산과 상주 전투에서 패퇴하고 그러는 사이에 신식무기로 훈련받은 대구 감영의 南營兵이 농민군 토벌을 위해 이 지역으로 파견되자 상충 지도부가 자신감을 상실하고 하층 농민대중이 급속히 이탈하였던 것이다. 가령 선산 공격에서 주력부대가 되었던 김산농민군은 선산에서 패퇴한 이후에도 집강소를 운영하면서 전장준비를 계속하였던 것이나 10월 5일 대구에서 파견된 남영병이 진주하자 도집강 편보언 등 상충 지도부가 저항을 포기한 채 먼저 도망하였고 뒤따라 농민군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⁵⁵⁾. 이러한 사정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일부 세력만이 충청도로 이동하여 북접농민군에 합류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반전되자 보수지배층은 속속 民保軍을 결성해 농민군을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안동과 의성에서는 보수유림이 주도하여, 성주·예천·선산·상주에서는 향리층이 주도하여, 용궁·문경·함창·김산·지례·개령·인동에서는 수령이 주도하여 민보군을 결성하였다. 민보군의 활동은 동학농민군이 패산한 경내에 구질서를 회복하고, 동학농민군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동학에 가담한 농민군을 적극 귀화시키는 한편 접주 등의 농민군지도자를 색출하여 처형하는 것이었다. 농민군 공격에 가장 적극성을 보인 부대는 尙州 召募營 산하의 민보군이였다⁵⁶⁾. 상주 소모영은 농민군의 귀화를 중용하고 접주를 잡아오거나 그 소재지를 밀고하면 상을 내린다는 방문을 각면 동리에 게시하는 한편, 민보군을 파견하여 농민군의 주요 근거지를 초토화시키고 가담자의 재산을 몰수했으며, 유격대를 편성해 접주들을 집요하게 추격하고 처형하였다. 또한 민보군은 대구 감영의 南營兵 및 일본군과 연합하여 충청도의 북접 농민군이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고 나아가 그들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 공격을 지휘한 것은 상주 소모영의 遊擊將 金奭中 이였다. 김석중은 190명의 유격대를 이끌고 三宅 대위가 지휘하는 일본군 37명과 연합하여 청산과 보은에서 공주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북접농민군을 공격하였다. 이 연합부대는 12월 18일 鐘谷에서 야간공격을 전개하여 북접 농민군의 주력부대를 최종적으로 궤멸시키는 전과를 올렸다⁵⁷⁾.

53) 『甲午以後日記』, 『歲藏年錄』 甲午 9月條

54) 『甲午斥邪錄』 9月 30日

55) 『歲藏年錄』 甲午 10月條

56) 신영우, 1986, 『1894년 嶺南 尙州의 農民軍과 召募營』, 『東方學志』 51:52

57) 『討匪大略』

한편 같은 시기에 경상도 남서부의 동학농민군들도 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대구에서 파견된 관군과 부산에서 파견된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앞서 보았듯이 순천·광양포의 농민군의 도움으로 하동·진주·남해·곤양·사천·고성 일대를 장악한 농민군들은 관군의 무기를 탈취해 무장을 강화하고 9월 25일에는 하동에서, 10월 10일에는 곤양에서, 10월 14일에는 진주 수곡촌 고승산성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⁵⁸⁾. 농민군은 화력의 열세로 이들 전투에서 모두 패배하였고, 계속된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지리산과 섬진강 서쪽의 광양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섬진강을 건너온 농민군은 광양에서 김인배가 이끄는 광양농민군 부대와 합류한 다음 10월 22일 하동을 공격하였고, 11월에는 두차례 전라좌수영을 공격하였다. 농민군들의 활동은 12월 7일 김인배와 여타 농민군 지도자들이 처형되면서 막을 내린다.

농민군 세력이 약화되자 이 지역에서도 양반들이 民砲를 조직하고 ‘義旅’를 만들어 농민군을 추적하고 처형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동에서 동학군 토벌에 참여한 곤양의 黃輔然과, 자체적으로 병대를 조직해 追捕活動을 벌였던 진주의 尹順伯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⁵⁹⁾.

경상도에서 전개된 항일봉기를 전체로 개관하면 남서부 지역의 농민군들은 전라도 순천·광양의 농민군과 연합하여 여러 차례 전쟁에 참여하였으나 북서부의 농민군들은 남서부에 비해 오히려 세력결집이 컸지만 일본군과는 거의 전투도 치루지 않은 채 해산하고 말았다. 북서부 지역의 동학 농민군이 그렇게 된 원인은 동학의 상층 지도부가 하층 농민대중의 변혁열기를 수렴하지 못하고 도리어 반봉건 투쟁을 억제하려 한 데서 찾을 수 있었다. 농민들은 봉건적 모순을 개혁하겠다는 기대로 입도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을 강고한 변혁세력이나 항일세력으로 결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폐정개혁을 이루어야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시까지는 아직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 농민대중의 민족적, 계급적 적대감을 불러 일으킬 만큼 크지는 않았던 것이고, 따라서 항일투쟁의 필요성은 정치 군사적 측면이 더 큰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일본의 침략이 농민군이 쟁취한 반봉건 투쟁의 성과물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열세인 무기를 갖고서도 일본군과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한 민족적 위기 의식에만 호소해서 목숨을 건 항일전쟁에 농민을 결집시키거나 동원한다는 것은 애초 무리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동학 상층지도부의 한계로 말미암아 항일 전쟁이 본격화되기 까지 그러한 성과물을 거의 확보할 수 없었고, 또한 농민들의 반봉건 투쟁조차 점차 사적인 雪辱 내지 討財行爲로 타락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군이 전쟁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동학이 열세로 몰리자 더 이상 그것에 편승해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적이 공격해오기도 전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지역 동학농민군의 이러한 속사정을 우리는 『渚上月』에 실려있는 다음 기사에서 살필 수 있다.

9월 16일 청풍에서는 동학군의 내분이 일어났다. 동학도들이 접주를 무기로 위협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간교한 말로 동학에 끌어들었느냐. 이제는 하루 속히 사죄하고 우리 모구가 화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그길로 그를 상주부에 송치했다고 한다.⁶⁰⁾

58) 『釜山府史原稿』 6권, pp.544-545

59) 김준형, 앞의 논문

60) 『渚上月』 甲午年 9월 16日

4. 맺음말

농민전쟁이 발생한 전후 시기에 있어 경상도의 농촌사정은 개항을 계기로 상품화폐경제가 더욱 발전하면서 농민층 분화가 진전되고, 따라서 부세제도를 위요한 사회경제적 모순이 격화되면서 몰락한 소빈 농층들은 봉건적인 지배체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부농적 착취에 대해서 까지도 공격적으로 되어 가고 있었다. 한편 1860년 수운 최재우에 의해 창도된 동학은 거듭된 봉건지배세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예천·상주·선산·김산·성주·하동·진주 등지에서 꾸준히 교세를 확대하고 있었다. 그것은 동학이 교도 사이의 신분적 평등을 실현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유무상자로 빈궁한 농민을 도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동학은 당면한 사회적 민족적 위기를 반봉건 반침략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守心正氣하는 종교적 수행에 치중해 극복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신분으로는 상민과 천민이, 계급적으로는 소작빈농 이하의 하층계급이 교도의 다수를 이루었지만 동학집단은 사회개혁세력으로 전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1894년 전라도의 동학농민군이 보국안민과 폐정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변혁투쟁을 개시하였다. 농민군이 전라도 일대를 장악했다는 소식과, 정부가 농민군과 협상하여 폐정개혁을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상도 지역에서도 봉건사회의 개혁을 회구하는 농민들이 앞다투어 동학에 입도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市井童昏 平民 藏獲 雇傭等輩” 등의 하층계급이었고 당대 사회모순의 최대의 희생자들이었다. 신입농민군은 이 지역의 東學도 전라도에서와 같이 폐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양반·향리 등을 상대로 활발히 반봉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동학의 상층 지도부의 생각은 농민대중의 기대와는 달랐다. 그들은 각자가 守心正氣하는 종교적 수행에 치중할 것을 요구했고, 신입농민의 증가가 곧 修道者의 증가로 되어야 하며 사회변혁을 직접 추구하는 변혁세력의 결집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동학지도부는 신입농민들의 반봉건 투쟁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 하였고 폐정개혁에도 소극적이었다. 그로 인해 농민대중의 반봉건 투쟁은 사적인 雪辱 내지 討財鬭爭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농민대중과 상층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동학농민군의 결집력도 점점 저하되어 갔다.

이러한 한계로 경상도의 농민군은 9월 18일의 최시형의 명령으로 개시된 항일투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군비 확보를 위한 성주·용궁·선산·상주 등의 읍성공격까지는 그 전열을 유지했으나,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무기력하게 선산과 상주에서 패퇴하면서 상층지도부도 자신감을 상실하고 하층 대중들도 속속 농민군에서 이탈해 갔다. 그 즈음 봉건지배세력들이 민보군을 결성하고 관군 및 일본군과 연합하여 농민군 근거지를 공격하고 접주 등의 농민군 지도부를 색출 처단하는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공격으로 잔여 농민군 세력조차도 완전히 궤멸하고 말았다.

그러나 경상도 남서부 지역의 농민군은 이와는 다른 활동을 보였다. 진주·하동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동학교도들은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여 1894년 8월 까지도 자체 힘만으로는 당해 지역을 장악할 수 없었다. 이들은 9월 이후 순천·광양포의 농민군의 지원을 받아 경상도 남서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반봉건 투쟁을 전면화함과 동시에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지역의 농민군이 뒤늦게 세력을 형성하고서도 항일투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기반은 자신들과 결합해 활동하였던 남접 농민군에 대한 신뢰

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폐정개혁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안겨주었던 광양·순천포의 집강소 활동에 대한 신뢰와 바로 그들이 항일봉기의 전면에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이 지역 농민들로 하여금 일본군과의 전투에 적극 나서게 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1894년 농민전쟁에서의 패배는 이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분수령적 계기가 되었다. 그 패배의 요인으로 우리는 일본군의 개입과 농민군에 대한 개화와 정권의 공격이라는 객관적 제약과 '이념상의 미숙성,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조직력의 미흡, 전술 전략상의 미숙함, 그리고 무기의 열세' 등의 농민군의 주체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 이제 이에 더해 각자의 守心正氣만을 중시했던 동학지도부의 운수론적 소승적 사회관에도 비판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94년의 농민전쟁은 전국적인 농민봉기로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농민전쟁에서의 패배와 경상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 등지의 농민전쟁 지도부가 대부분 이런 입장에 충실한 동학간부였다는 사실은 결코 서로 무관한 일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농민전쟁을 주도한 핵심적 주체들이 당시의 객관적인 변혁역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동했었는가를 농민전쟁의 패배요인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1. 1894년 이전 강원도 농민들의 동향
2.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
3. 강원도 농민전쟁의 성격과 의의

1. 1894년 이전 강원도 농민들의 동향

1894년에 일어난 농민전쟁 때 강원도 지방 사정은 어떠했을까? 농민전쟁은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에 서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농민전쟁보다 30여년 앞서 1862년에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70여개 고을에서 농민들이 치열하게 반봉건 농민항쟁을 일으켰을 때 강원도에서는 농민항쟁이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채 잠잠했다. 어느 한 곳에서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나라를 혼란시키는' '민란'이 일어나질 않은 것이다. 그것은 그 때 강원도 농민들이 다른 곳에 비해 '명청하거나' 특별히 더 순박해 그런 것이 아니었다. 심성탐이라면 강원도에서는 '민란'이 영영 일어나질 않아야 하는데 역사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 역사의 조건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평야지대라 지주제가 발달하고, 보수 지배층의 수탈이 더 심했던 삼남 지방에 비해 강원도 지방은 사회의 모순이 좀 덜했기 때문에 1862년에는 아직 항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876년 개항 이후 안팎으로 모순이 심화되면서 강원도에서도 사정은 달라졌다.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초반에 강원도에서는 전국 어느 곳보다 치열하게 농민항쟁이 계속 일어났다. 1885년 3월에 원주목에서, 1889년 1월에 정선군과 인제군, 3월에 통천군, 그해 여름에 낭천현에서, 1891년 6월에 고성군에서, 1892년 3월에 낭천현에서, 1893년 12월에 금성현에서 30여회 이상 일어난 농민항쟁이 그것들이다. 이들 지역 항쟁의 원인 가운데 서울사는 사람들과 외지 사람들의 탐학이 많았다는 점에서 개항이후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이는 1894년 농민군의 활동 때 농민군이 보부상을 집중적으로 처단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사회 모순이 심화되고 항쟁의 전통이 쌓여가는 한편 강원도에서도 동학 조직이 농민들을 묶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1893년 3월 보은 장내리에서 열린 교조신원운동에 강원도에서도 관동대접주 이원팔, 홍천대접주 차기석, 인제대접주 김치운 등이 참가하였다.

2.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

음력 9월에 접어들면서 들판에서 타오른 농민전쟁의 불길이 강원도 산골까지 치불기 시작하였다. 1차 농민전쟁에서 농민들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집강소를 설치하고 곳곳에서 항쟁을 일으키는 분위기가 강원도 농민들을 움직이도록 자극하였다.

강원도 농민전쟁은 크게 두 세력에 의해 전개되었다. 하나는 정선·평창·영월·원주 세력이었다. 이들은 충청도 제천, 충주세력과 연계하여 강원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연합세력이다. 다른 하나는 차기석을 중심으로 홍천군 일대에서 활동한 중부 내륙 세력이었다.

남부 연합 세력은 세를 모아 9월 4일 대관령을 넘어 강릉부 관아를 점령하였다. 곳곳에서 집강소 체제에 만족할 수 없는 농민들이 항쟁을 일으키는 분위기였다. 그 때 관아는 공관 상태였다. 관아를 점령한 농민군은 가혹한 세금을 감면토록하고 악독한 지주들의 땅문서를 빼앗았다. 수탈에 앞장섰던 이서(吏書)들을 잡아 가두고 억울한 옥사도 스스로 해결해 나갔다.

관아의 동쪽 문에는 “삼정의 폐단을 뜯어 고치고 보국안민을 이룩한다”는 방문을 내걸었다. 농민군은 관아의 일이 자리가 잡히자 이삼일 뒤 경포대앞 선교의 이회원 집을 공격하려고 계획하였다. 1800년대 초반 선교장은 강릉부 부근의 땅 5천여마지기를 차지하고 있던 커다란 지주였다.

농민군이 강릉관아를 점령할 때 선교장 주인인 승지 이회원은 마침 집에 내려와 있었다. 농민군이 자기집으로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부랴 부랴 민보군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쌀 100말과 돈 100꾸러미를 강릉관아로 보내 농민군을 안심시켜 놓았다. 9월 7일 비가 세차게 퍼붓는 한밤에 이회원의 민보군이 강릉 관아를 들이쳤다. 농민군은 마음 놓고 있다가 불시에 습격을 당하여 20-30여 명의 동료 시체를 남기고 총 7자루, 창 157자루를 빼앗긴 채 다시 대관령을 넘어 퇴각하여야 했다. 이회원은 강릉 관아를 점거했던 농민군을 쫓아낸 공로로 강릉 부사로 임명되고 그 뒤 강원도 농민군을 토벌하는 총사령탑의 일을 맡게 되었다.

평창으로 퇴각한 농민군은 다시 강릉 관아를 점령할 기회를 엿보면서 세를 모아 나갔다. 한편 중부 내륙 지방 차기석 지휘아래 농민군은 10월 13일 홍천군 내촌면 물결리의 동창(東倉)을 들이쳐서 건물을 불태웠다. 동창은 강원도 내륙지방의 중요한 사창으로, 장마가 저 강물이 불어나면 거둬들인 세곡을 뗏목에 실어 한강을 통해 서울로 보내던 곳이었다. 차기석 부대가 이곳을 먼저 들이친 까닭은 수탈의 상징을 불태우고 싸움을 위한 군량미를 확보하여 서울 쪽으로 진출하려는 의도였다.

10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보수 지배세력은 농민군에 대해 적극 반격을 가했다. 홍천과 가까이 있는 경기도 지평의 감역 맹영재는 포군을 이끌고 홍천의 농민군을 향해 진격해왔다. 이에 맞서 농민군은 10월 21일 맹영재 부대와 장아평(장평)에서 전투를 벌였다. 서적으로 후퇴한 농민군은 풍암리 구룡위에 진을 쳤다.

다음날 10월 22일 서석에 집결한 농민군은 황성현감 유동근이 이끌고 온 관군과 맹영재가 이끌고 온 민보군에 맞서 800여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는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강릉부 중군 이진석과 전찰방 이영찬은 150여명의 군정을 이끌고 정선을 거쳐 평창으로 출

민중생물농업이후 대항아 운동은 민중생물농업을 앞세웠다.

2013: 500여 명이 참가한, 대항아 운동의 성공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발하였다. 봉평과 내면일대의 농민군이 이들의 목표였다.

11월 3일에는 일본군 2개중대가 평창의 농민군을 진압하러 내려왔다. 춘천의 순중군(巡中軍)도 파견되었다. 그 때 농민군은 정선에 3천여명, 평창에 1천여명이 집결하여 강릉부로 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1월 이후 보수지배세력과 침략외세 일본군에 맞선 농민군의 반봉건 반침략 투쟁은 평창 정선일대와 봉평 내면쪽에서 전개되었다.

11월 5일에는 평창 후평에 집결한 농민군 만여명이 관군과 크게 붙었다. 접주 이문보를 비롯하여 100여명의 희생자를 낸 평창쪽의 농민군은 정선을 거쳐 삼척쪽으로 후퇴하였다.

차기석 부대의 근거지인 내면 쪽 전투도 치열하였다. 11월 4일 봉평의 포군대장 강위서가 내면 창촌으로 침입해 들어왔다. 산꼭대기에 진치고 있던 농민군이 밤중에 기습을 감행하여 3명을 사살하였다. 강위서의 포군부대는 8명의 부상자를 이끌고 패배한채 내면에서 쫓겨났다.

11월 9일부터 11월 14일에 걸쳐 내면 창촌, 원당, 청도, 약수포에서 강원도 농민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다. 농민군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요새로 삼아 오대산 계방산 기슭의 산하를 피로 물들이며 치열하게 유격전을 펼쳤다. 그러나 관군과 민보군은 연합전술을 펴 네갈래 사방에서 차기석 부대를 포위하여 공격을 가하였다. 서남쪽으로는 강위서가 보래령을 넘어들어와 홍천 의병 허경과 합세하여 좌운포를 공격하고, 남쪽에서는 이석범과 박동익이 합세하여 운두령을 넘어 원당리와 청두리(청도)로 진격하고, 동쪽에서는 이국범이 신배령을 넘고, 서북쪽에서는 김국제가 웅봉령을 넘어 진격해왔다.

11월 12일 강릉 양양 원주 횡성 홍천의 관동대접주 차기석이 원당리에서 잡혔다. 나머지 농민군들은 청도와 약수포 쪽으로 밀리면서 협공을 받아 포살되고 잡히고 흩어졌다. 강원도 깊은 산간이 이곳의 지형 조건이 한여름 유격전 펴기에는 좋으나 이미 눈이 쌓여있을 음력 11월 중순 무렵에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들어오는 관군과 대적하기는 오히려 불리하였고, 중과 부족이었다.

차기석 박학조 등과 홍천 내면 출신 정창호 등 농민군 지도자 10여명은 11월 22일 강릉부의 교장처에서 효수당함으로써 강원도 지방의 1894년 농민전쟁은 일단 투쟁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강원도 농민전쟁의 성격과 의의

첫째,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은 제2차 농민전쟁을 선도하였다.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서 제2차 농민전쟁의 시점을 어느 때로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정설이 없다. 그러나 전봉준이 집강소 체제를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한 때가 9월 10일 무렵이었으며, 최시형을 중심의 북접 교단지도부가 농민전쟁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때가 9월 18일이었음에 비해 강원도 농민군은 이미 9월 초순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6월 21일 일본군이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개화정권을 수립하였으며, 남의 나라 땅에서 청일전쟁이 전개되고 있었으나 농민군 주력은 아직 집강소 체제를 통하여 힘을 쌓고 있었고, '갑오개혁'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전봉준도 8월 11일 "이미 민씨 일족이 일소되고 대원군을 내세워 폐정

을 개혁해 정법을 바르게 하였으니 우리들이 본래 바라던 대부분은 달성되었다” 고 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기대하였던 갑오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민족이 위기는 더욱 더 고조되고 있었다. 8월 25일 무렵 김개남은 남원에서 따로 농민군 몇 만명을 모아 크게 농민대회를 열었다. 곳곳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9월 1일 영호대도소 김인배 부대가 섬진강을 건너 하동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9월 4일 강원도 농민군이 강릉부를 점령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전봉준을 비롯한 한 농민군 지도부에 영향을 끼쳐 본격적인 제2차 농민전쟁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1894년 농민전쟁에서 강원도는 북접 교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이야기되고 있으나 강원도 농민군은 상당히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제 1차 농민전쟁 때부터 동학 교단은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조적을 유지 보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 교단 지도부는 9월 18일 농민전쟁에 합류하기로 하였으나 9월 말까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강원도 농민군들은 한 달이나 앞서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세째, 강원도 농민전쟁은 반봉건 투쟁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1894년 농민전쟁의 성격을 제1차는 반봉건 투쟁, 제2차는 반침략 투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9월 4일 강릉 관아를 점령한 농민군은 동쪽 문에 “삼정의 폐단을 뜯어 고치고 보국안민을 이룩한다”는 방문을 내걸고 가혹한 세금을 감면토록하였으며, 지주들의 땅문서를 빼앗고, 수탈에 앞장섰던 이서배들을 잡아 가두고 억울한 옥사도 스스로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강릉부 일대의 대지주였던 경포대영 선교의 이회원 집을 공격하려고 계획하였다. 이것을 보면 강원도 농민군의 투쟁은 반봉건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국안민’이라는 반침략의 성격을 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이 관군과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보군뿐 아니라 11월 3일에 투입된 일본군 2개중대와 싸우면서 반봉건 반침략 투쟁으로 전화하게 되었다. 이로써 보면 제1차 농민전쟁을 반봉건, 제2차농민전쟁을 반침략이라고 딱 떼어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네째, 강원도 농민군은 다른 지역과 연계가 가로막힌 채 고립되어 싸워야 했다. 홍천과 가까이 있는 경기도 지평의 감역 맹영재가 이끄는 포군은 차기석이 지휘하여 서울쪽으로 나가려던 농민군을 서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평창쪽 농민군이 충청도와 경상도 농민군과 적극 연계할 기회를 보이자 원래 계획에 없던 일본군 2개 중대가 투입되었다. 충청도 공주와 청주 쪽으로 집결하고 있던 농민군 주력부대를 깨뜨리기 위해 일본군·관군·민보군은 강원도 농민군이 서울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가로막아 후방을 차단하는 한편 농민군 주력이 퇴각할 경우 강원도를 거쳐 함경도로 빠져 나가 장기 유격전화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하려 했다.

다섯째, 강원도 농민군의 투쟁은 1894년 농민전쟁의 실패와 함께 반봉건 반침략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으나 모순을 해결하려는 그 투쟁의 정신은 이후 반일 의병 투쟁,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역사를 진전시켜나가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였다.

1894년 제2차 농민전쟁 과정에서 농민군은 개화파정권과 보수 기득권 세력에 대하여 위기에 몰린 민족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같이 싸울 것을 몇차례나 호소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일본군과 함께 농민군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100년 후의 역사는 철저한 내부개혁을 바탕으로 대다수 민중의 힘을 결집했을 때만이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 * 강원도 보수세력의 움직임
- * 전투하는 날씨
결전의 날 비가오면 화승총을 사용못함

강원도에서는 1894년 음력 9월에 평창에서 오덕보 등이 봉기하여 시작
(한우근, 이이화, 신용파 모두 오덕보가 평창에서 시작한 것으로, 오덕보는 평창이 아니라 주문진, 연곡
신리)

-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 제3권 강릉 홍주 해주지방 동학당정토기록)

황해도 농민전쟁의 전개와 성격

송 찬 섭(국민대)

1. 배경
2.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 1) 1894년 9월 봉기
 - 2) 1895년 계속된 전투
3. 농민군 토벌대
4. 황해도 농민군의 성격
 - 1) 농민군의 조직
 - 2) 농민군의 의식과 활동

1. 배경

황해도 지방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봉건적 폐단이 심하였다. 이 지역 농민전쟁 지도자인 林宗鉉은 늘어나는 요역과 무고한 사람에 대한 刑殺을 들었고 崔疏鉉 등도 錢弊, 관리 탐학, 吏隸의 간탈, 요역의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하였다.¹⁾ 게다가 황해도가 청의 사신들이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支勅費도 막 대하였다. 토지를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았다. 특히 황해도에는 궁방전이 많았는데 여기서 많은 폐단이 일어났다. 가령 이해 초에 항쟁이 일어난 黃州는 宮結의 弊가 중요한 원인이었다. 황주에는 壽進宮과 順和宮의 막대한 庄土가 있었고 1890년경에는 2,000여결이나 덧붙여 宮結이 해가 거듭할수록 증대되었고 이에 편승하여 기존의 民結이 宮結에 편입되거나 舊宮庄土가 私占化되는 양상이었다.

또한 동학에 대한 통제가 원인이 되었다. 황해도는 남부지방에 비하여 동학이 늦게 유포된 듯 하다.²⁾ 처음에 해주를 공격할 때 제시한 민막 가운데 東徒에 대한 금칙을 풀어달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당시 황해도 동학당들도 양반과 관의 압박을 적지 않게 받아온데 대한 불만이 쌓였다. 게다가 살남에서 호응하라는 연락(敬通)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접주들은 농민전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봉건적 폐단과 동학 신앙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며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황해도지역에서는 當五錢에 따른 피해와 砂金鑛夫의 문제가 주목된다.³⁾ 특히 이 지역에서는

1) 이상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2) 1894년에 들어서 최유현, 정량 등이 보은 장내리로 최시형을 만나자, 최시형은 “북쪽의 교인은 어찌 늦게 나타났느냐?”고 하면서 최유현을 해서수접주로 임명하였다. (『시천교역사』, 『동학사상자료집』 3책, 624쪽)

• 상주로부터 의주, 평안, 함경

當五錢의 남발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당오전은 1883년부터 주조하였는데 명목가치가 실질가치의 2-3 배밖에 안되는 조악한 화폐였다. 게다가 민간에서도 당오전을 위조함에 따라 물가가 더욱 급등하였다. 처음 해주를 공격할 때도 ‘公錢 5배의 설’에 따라 등소처럼 일어났다가 해주를 점령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황해도 지역의 사금 채광을 금지한 정책을 들 수 있다. 특히 1893년 사금 채굴을 금지하자 먹고 살 길을 잃은 자들이 도당을 채결하여 스스로 동학당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사금채집광부는 농민군의 절반을 구성할 정도였다고 한다.

밖으로는 개항 이후 일본과의 교역에 따른 피해, 특히 이 해 일어난 청일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가령 황해 지역도 쌀 생산지였으므로 일 상인이 質穀을 다녔다. 이들은 무곡을 세금없이 반출해 달라든가 防穀令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각지에서 주민들은 이들이 무곡하여 운송하는 것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군수를 운반한다는 구실로 황해도지역의 주민들에게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였다. 지방관까지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황해도는 전쟁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 특히 일본군은 그뒤 계속 주둔하였으므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였다. 일본군이 황주에 주둔하자 목사와 병사가 도망하였으며 심지어 부하 병정에게 명령하여 일본군에게 충을 쓰기도 하였다.

일본군에 대한 반발은 이들이 농민전쟁 과정에서 농민군을 진압하였기 때문에 더욱 격화되었다. 지방관의 경우도 일본군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게 되었다. 농민군 진영에서 음11월에 띄운 敬通을 보면 황해감사 부자가 왜와 함께 해주, 강령의 도인 100여명을 살해하였음을 들어 총궐기하고자 하였다.

황해도 농민전쟁은 뒤늦게 일어났지만 다른 지역에서 진압된 뒤에도 1895,6년까지 끈질기게 전개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와같은 여러가지 원인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2.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4)

1) 1894년 9월 봉기

1894년 9월에 들어 농민군의 움직임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9월(10월)에 들어서 황해감영에서는 “여러 군의 동도가 점차 늘어나서 특히 산곡에 무리를 짓는 자가 많았다”고 하면서 경계를 취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보듯이 농촌에서 몰락한 유민이나 광산노동자들 사이에 동학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0월부터인 듯 하다. 10월 6일(11.3) 농민군 수만명이 해주 서쪽 翠野市에 모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등소의 형식을 취하였다. 감영에서 이들이 모인 까닭을 물으니 몇 개조

3) 토벌에 참가한 일본군의 보고에 따르면 봉기에 참여한 동학도(비도: 위동학당)은 외국인을 혐오하는 자, 감철도 기타의 범죄자, 직업없이 생계가 궁한 자, 지방관을 원망하는 자, 당오전이 1文이 되는 바람에 손실을 입고 분노하는 자, 사금광부라고 하였는데(『황해도동학당정토약기』 528쪽)

4) 전개과정은 주로 『구한국의교문서』, 『주한일본공사관기록』, 『황해도동학당정토약기』, 『갑오해영 비요전말』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로 된 민막을 올렸다. 그 가운데 東徒禁飭을 하지 말아달라는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감영에서는 민폐읍 막은 혁파하겠다고 하면서 동학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에서 금지되어 있어서 들어주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였다.

일단 여기서 농민군은 물러나서 다시 대책을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봉기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이들은 다시 모여 먼저 강령현에 들어가서 현감을 공격하고 군기를 탈취한 다음 여세를 몰아서 감영을 공격하였다. 농민군은 관청을 파괴하고 군기를 빼앗았으며 문서를 태우고 중군, 판관 등 관리를 구타하였다. 그리고 감사를 강제로 선화당에서 끌어내면서 감영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해주를 점령한 다음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뒤 체포된 농민군에게 나온 都錄을 보면 林宗鉉이 감사로, 成載植이 강령현감, 李容善이 안악군수, 崔得秀가 해주판관, 그밖에 중군, 병졸 등에 대한 인명까지 기록되었다고 한다. 이를 본다면 황해도도의 관리와 군사조직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에서 이것을 모반의 증거로 삼았듯이 이러한 조직은 곧 황해도 일대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해주를 점령한 뒤 다른 지역으로 세력확대를 꾀하였다. 해주 점령 기간동안 농민군의 활동이 두드러진 곳은 재령, 안악, 평산 등 해주 북동부 지방이다. 이 지역은 청일전쟁과정에서 일본군의 군수 때문에 인민들의 피해가 심한 곳이어서 봉기 이전부터 쌀 구입과 운수에 대하여 인민들이 저항하였다.

그러다가 봉기가 일어난 뒤 이 지역에서는 일본군, 일본인에 대한 직접 공격을 하였다. 재령에서는 10월 26일(11.23) 양곡 매입을 위하여 파견되었던 일본군 일행이 이곳에서 동학당 2천여명에게 피습되었다. 10월 28일(11.25) 재령의 海倉에서는 일본군의 군량을 사모오던 일본 상인 5-6명이 난민(?) 1천명에게 피습, 2명은 피살되고 나머지는 도망하였다고 한다. 평산부근에서도 동학당이 나타나 金川에서 충유로 보내는 양식을 탈취하였다고 한다. 평산 북쪽 10리지점에서 공사중이던 일본 기수들이 300여명의 동학당에게 피습되어 금전, 기타 물품을 모두 약탈당했다.

이들은 독자적인 세력인지 해주에서 파견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11월 27일 해주에서 평산방향으로 적이 계속하여 온다는 보고가 금천, 개성 각사령관으로부터 있었던 점이라든가 농민군이 장차 황주로 향할 것이라든가, 11월말 금천에서 평산으로 파견된 일본 수비병은 해주로부터 오는 적을 경계시켰다고 하는 등을 볼 때 해주를 거점으로 하여 파견되기도 하였던 듯하다.

이처럼 해주 중심으로 농민군의 세력이 강하였다. 당시 해주 부근의 인민은 모두 동학당이며 남으로는 녹산, 송림 쪽에서 강령현, 서로는 웅진, 장연, 죽산 등 북으로는 송화, 신천, 문화 등 황해도도의 3분의 2가 동학당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파견되면서 농민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재령, 평산 등지의 농민군은 일본군의 습격을 받고 인명을 손실당하고 흩어졌다. 상황이 불리한 것을 깨닫고 해주의 농민군은 일단 점령한지 한달 만에 해주성을 물러났다. 11월 6일(12.2) 그간 감사 역할을 하였던 임종현은 감사에게 선화당의 자리를 물려주고 다음날 농민군은 동서로 부대를 나누어 해주성을 나갔다. 사흘 뒤 11월 10일(12.6) 일본군이 해주에 들어온 것을 보면 농민군이 일본군의 출정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주를 물러난 뒤에도 계속 이곳이 중심 공격 대상이었던 듯하다. 해주를 물러난뒤 이들은 일본군의 습격을 직접 받지 않았던 웅진, 강령 등지에 진을 쳤던 듯하다. 11월 11일(12.7) 농민군 수백명이 강령의 남쪽 半里 떨어진 古縣場에 모여 강령으로 나아가려고 하였는데 해주에 주둔한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흩어졌다. 송림, 녹산 방면에서도 농민군 수천명이 모여 다시 해주를 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들은 11월 12일(12.8)에 해주 취야장에 모여 해주를 습격하고자 하여 일본군과 취야장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농민군이 패배하였다.

농민군은 다시 해주 동쪽 평산, 배천, 연안 등지에 집결, 앞으로 동서에서 해주를 협격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연안부사 李夏啓의 설득에 넘어가 해산하고 말았다.

이 무렵 외읍에서의 싸움도 주로 서쪽에서 벌어졌다. 신천의 농민군은 11월 13일(12.9) 평양 일병과 의병장인 본군 진사 안태훈과 싸웠다. 강령도 이때 함락되어서 11월 13일 이곳에서 농민군과 감영 교졸 50명과 일병의 공격을 받았다. 송화, 문화, 평산, 조니진, 오차진, 용매진 등도 이때 함락되었다. 11월 19일에는 농민군 수천명이 강령을 공격하였고, 11월 20일(12.16) 무렵에는 해주 竹川에 崔瑞玉이 이끄는 농민군 5천명이 있었다고 한다.

11월 하순에 다시 취야장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이 무렵 11월 23일(12.19) 海安수접주가 평산수접주에게 통문을 보면 농민군의 봉기 상황과 목표를 잘 알 수 있다. 곧 해주 서쪽 10여읍이 봉기하여 5,6만 명이 집결하였는데 취야 북쪽에 진을 치고 서쪽의 길을 끊어서 서쪽 일대를 장악하면서 농민군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평산수접주 아래의 각포에서도 봉기하여 해주의 동쪽을 끊고 그밖에 연안, 배천, 평산, 금천 등지의 농민군이 해주를 포위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감사 부자가 일본군과 더불어 해주, 강령의 동도 백여명을 살해하였으므로 감사 부자를 체포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국과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곧 청병이 평안도에서 일본군을 공격하려고 한다면서 농민군도 봉기하여 감사 부자의 머리를 베어 청나라 진에 바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날 새벽에 취야의 농민군은 감영의 포군 100명과 일병 50명의 공격을 받았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농민군은 다시 11월 24일(12.20)일경 수만명이 해주 서쪽 30리 鞍峴에 모였다. 이들은 일병이 감영을 떠나는 틈에 성을 치려고 하였다. 이때부터 다시 싸움이 벌어졌다. 11월 25일(12.21)에는 감영에서 포군 200명을 보내어 안현으로 향하여 적을 공격하였으며 성을 굳게 지키면서 연안의 일본군에게 보고하여 구원토록 하였다.

11월 27일(12.23)에는 해주 남쪽과 서쪽 산상의 동학군과 해주에 진주한 일본군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농민군은 약 3만명이었으며 재령, 신천, 문화, 장연, 웅진, 강령 등지 동학당이 총집결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당시 농민군의 상황은 해주성문 밖까지 6,7천명, 10리쯤 떨어진 곳 1만명, 30리쯤 떨어진 취야장 1만 3,4천명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새로이 모은 산포수를 前隊로 삼고 진격하였다. 이때 관군측은 일병 60명, 營砲 200여명과 감영에 소속된 각종 하급서리 등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농민군은 패배하고 물러났다.

그뒤 농민군은 해주 외곽에서 계속 싸움을 벌였다. 12월 10일(1.5)에는 농민군이 봉산에서 30리쯤 떨어진 정방산을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았다. 그러나 12월 12일(1.7)에는 황주병참부와 봉산후비대의 공격을 받고 패배하였다. 은파에도 250여명의 농민군 부대가 있어서 일본군과 싸웠다. 아직 해주 부근과 재령, 신천 등지에도 농민군이 있었다고 한다.

12월에 들어서 농민군의 세력이 다시 커졌다고 할 정도였다. 총유에서 동남쪽에 있는 누천동에 와서 방문을 게시하였고 그곳에서 3,40리 동쪽에 있는 배천리에 모였다고 한다. 12월 24일(1.19)에는 평산을 내습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그뒤 일본병도 늘어나고 포병도 액수가 늘어나서 농민군은 흩어졌다고 한다. 12월말(1월말)부터 해주와 이 일대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상 농민군이 공격한 군현을 들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0여읍(해주, 금천, 문화, 평산, 장연, 신천, 강령, 연안, 은율, 백천), 5鎭堡(산성; 장수, 수양, 진; 조니진, 오차진, 용매진), 그리고 수영(웅진) 등이다.

2) 1895년 계속된 전투

황해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1894년이 넘어서면서도 농민군 지도부 등 주요 세력이 보전되었다. 특히 문화 구월산, 재령 장수산 등이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이 때문에 1895년 들어서도 싸움이 계속되었다. 중요한 싸움은 다음과 같다.

1895년 1월(양2월)에는 서흥 남쪽 50리 大石橋洞에 모여 서흥을 습격하려고 하여 일본군과 싸움이 벌어졌다. 이 무렵 농민군 수백명은 봉산 사리원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2월에도 중요한 세력이 문화 구월산에 들어 갔다고 하는데, 이들 가운데 1천명이 2월 13일 신천읍에 내려와서 공격하였으며, 2월 23일에는 수삼천명이 장연군을 공격하였다.

3월 말에는 해주의 서쪽 강령과 웅진 두 곳에 동학도가 둔집했다고 하고, 4월에는 해주 송림을 근거지로 하여 일본군과 싸움이 벌어졌다. 송화에서도 농민군 1천여명이 일본군과 싸움을 벌였다. 그뒤 일본군의 보고에 따르면 수괴 임종현, 원용일 등이 가족을 이끌고 종적을 감추어 각 지방이 지극히 조용해졌다고 한다.

7월중순?(8월말)는 황주 부근에서 농민군이 다시 일어났다. 8월에는 은율에서 농민들이 관장을 능멸하고 재산을 빼앗고 군기를 빼앗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7월 21일(9.9)에는 황해도 접경인 평안도 상원군에서 600명 농민군이 郡守를 습격하였고 7월 26일(9.14)에는 외국총을 휴대한 40여명의 농민군이 민가에 난입하였으며, 이날 밤 600명 농민군이 상원 동남 약 50리 지점에 집결하였다.

7월 29일(9.17) 平山 북쪽 安城에서는 李仲七이, 평산 남쪽 지방에서는 吳突古가 봉기 소문이 있었고, 곡산(?)의 石峴 접주 林宗이 80여명을 거느리고 鳳山의 道德里를 거쳐 남쪽으로 향해 갔다.

7월 30일(9.18)에는 농민군이 도주하여 장수산성으로 들어갔다. 도피의 목적도 있었으나 위치로 볼 때 해주를 엿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당시 장수산성의 무리는 모두 82명으로 무기와 군량 등을 은전으로 매입하여 민의 전곡을 침탈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청병의 앞잡이라고 일컬었다. 이들을 뒤이어 다음날 봉산군 鳳儀包 접주 奇哥라는 자가 산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본군의 보고에 따르면 近坊里(봉산?)에서 일시 흩어졌던 농민군이 다시 봉기, 그들이 연안, 평산, 배천 등지에 출몰하리라는 풍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구월산에 근거를 두고 앞서 상원에서 장수산으로 몰려간 자들과 합세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

그러나 장수산의 농민군은 8월 12일(9.30) 해주 관병이 포위하여 공격하자 평안도로 도망하였다고 한다.

그뒤에도 농민군 세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령 1896년 1월에는 백낙회가 산포를 조직하여 김창수, 김형진 등과 함께 장연을 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이어서 해주와 각읍을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

우기도 하였다.

3. 농민군 토벌대

황해도 농민군의 봉기를 들은 중앙에서는 별도로 경군을 파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군이 직접 담당하였다.

처음 9월에 농민군이 모여들때 감영의 병력이 없었으므로 여러 읍에 명령하여 토포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정부와 탁지부에 보고하여 우선 砲를 설치하고 군량을 판칙한다는 뜻으로 재차 첩보하였는데 아무런 연락도 못받았다고 한다. 이는 정부에서 회피하는 의도인 듯하다. 그뒤 해주가 함락되고 난뒤 11월 2일 정부에서는 道啓를 받지 못하고 電文으로 들었다고 하면서 순무영으로 하여금 병영과 진에 연락하여 토벌하도록 하고, 황해감사와 해주관관을 교체하였다. 감영쪽에서는 곧 경군이 초토하러 올테니 너희들이 항명하여 저항하겠느냐고 위협하면서 해산시키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이때 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만큼 중앙의 병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다만 접응관 홍재준, 소모관 이규진 그리고 선유사 등 중앙 관리들이 파견되었다. 중앙병이 파견된 것은 그뒤 남부지방에서 농민전쟁이 끝난 뒤인 1895년 3월(18일)에는 강화 砲營兵 150명이 출토하러 갔는데, 이들은 주로 해주로 몰려와서 동학군 수색, 소탕하였다.

감영에서 의존하는 것은 산포수였다. 처음 해주성이 함락되었을 때 각 군현에게 각기 산포수 수십명씩 동원하여 해주성으로 파견하라고 하였다. 그뒤 포군의 경우에도 경군의 복장을 모방하여 조련하였는데 경군처럼 보이게 하였던 듯 하다. 실제로 신천군 산포수 盧濟石은 70여명을 모아 농민군 토벌에 공을 세웠고, 감영 포군 좌영장 奇仁德, 우영장 韓用健 등이 공을 세웠다고 한다. 이들은 일본군 작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없이는 관군의 태도는 소극적인 것 같다. 일본군의 보고에 의하면 지방관들이 동도인 강도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토벌하는 수단을 시행하지 않고 타일러서 해산시킨다는 명분을 빌어 방임하였다고 한다. 가령 임종현을 포박하도록 조회하였는데도 아무도 하지 않았으며 접주 차모에게는 설유를 위하여 순회하는 관리를 인도하는 일을 맡기고 나중에는 별장으로 채용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밖에 황해도에서도 농민군 토벌을 위한 의병이 결성되었다. 신천에는 진사 安泰勳이 포군 70명과 村丁 100여명을 모아 공을 세웠다. 평산에는 의병장 閔泳龍 등이 활동하였다. 수안에서는 退校 權成敦이 공을 세웠으며, 곡산의 경우 중군 盧俊善, 하리 朴命膺, 李相敏, 경저리 朴春根 등이 참여하였다. 그밖에 은율에서는 농민군의 활동을 통제하고자 읍민 내에서 保民契를 설치하였다.

농민군의 토벌을 직접 맡았던 것은 일본군이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일본군에 의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10월 6일(11.3) 해주성이 함락되면서 감영에서는 바로 金川에 있는 일본 병참부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게다가 황해도는 이미 일본군이 주둔해 있고 일본인이 직접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토벌에 나섰다. 이들은 토벌과 함께 청과의 연계나 대원군이나 민비쪽에서 시주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농민군의 서류를 압수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황해도에는 황주병참부, 봉산, 검수, 충유, 금천 등의 수비대가 있었다. 그밖에 경기도 개성과 평안도 어은동의 남부병참부에서 지원하였다.

처음 해주지방 동비가 일어나고 군수 판리를 위해 재령에 보냈던 일본군이 피습당하자 평양수비대에서 보병 1중대, 용산에서 1소대, 그리고 다른 병참부에서 약간을 파병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10월 28일(11.25) 황주병참부로부터 半小隊, 봉산 검수로부터 半小隊가 재령 안악으로 떠났고, 해주로부터 평산방면으로 동학당이 집결되어 있다는 보고에 따라 황주, 금천의 일본수비대로부터 따로 일부대가 평산방면으로 출동하였고 일본 제1군참모장 및 평양수비대 참모장으로부터(평양 1중대?) 원병으로 보병 약 100명이 11월 2일(11.28) 재령으로 떠나게 되었다.

용산수비대는 11월 1일(11.27) 어은동의 福原병참부에서 재령부근의 동학당이 평산부근에 나타났으므로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고 수비병 1소대(40-50 정도)를 이끌고 용산을 출발하였다.

이들은 적은 병력이기 때문에 동학당을 토벌하고 수괴를 체포할 수 없으므로 먼저 일방을 격파 유린해서 그 세를 꺾은 뒤에 그 수괴를 체포하고 중요한 문서를 찾아내려고 하였다.

1895년 1월에는 송도병참소 소속 부대가 농민군을 순탐하러 200명을 이끌고 서북로로 나아갔으며, 이들은 봉산에서 동도 13명을 죽이고 15명을 체포하였으며 당탄에서 3명을 죽이고 장연에서 4명을 죽이고 11명을 잡았으며 접주 오양선을 사형시키고는 곧바로 송도병참소로 철수하였다.

3월에는 소위 齊藤溫 태위 山村忠正 등이 해주, 웅진 등으로 하여 장연으로 출토하러 갔다. 8월에도 長連 梧里浦에 일병이 주둔하였다.

4. 황해도 농민군의 성격

1) 농민군의 조직

황해도 농민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직접 동학 교단과 연결된 인물이 있다. 곧 최유현, 오응선, 정량, 김창수 등은 최시형을 만나 직접 접주로 임명되었다. 특히 최유현은 최시형으로부터 海西首接主로 임명되었다. 반면 스스로 동학이라고 칭하는 인물이 있다. 임종현, 김명선, 원용일, 김영하 등으로서 이들을 僞東學黨이라고 분류되었다. 이들은 자기 휘하에도 스스로 접주로 임명하였다. 농민군 지도자들은 대부분 동학 출신이거나 이처럼 동학의 조직을 활용하였다.

농민군에 참여계층은 앞에서 보았듯이 일반 농민 외에도 유민, 광부, 상인층, 하급서리 등 다양하였다. 따라서 순수한 동학도들은 비중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농민군의 주력부대는 山砲였다.⁵⁾ 본래 포군은 관포로서 관에 등록되어 관의 통제를 받았다. 일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동원되는 반관반민적 성격을 띤 지방의 무장조직이었다. 이들은 전투력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군에서 적극 활용하였다. 농민군이 처음 해주성에 들어갔을 때도 각촌 읍수 800명이 가담하였다고 하며, 그뒤에도 해주를 공격할 때도 전위가 되었다.⁶⁾ 그리고 일본군의 보고에 의하면 山谷組라는 것이 있어서 안악, 재

5) 『천도교창건사』 각지 銃砲軍(獸獵砲手)을 모집하여 紅衣를 着하고 軍勢를 정돈하여 列邑을 진격할제

6) 김창수의 포도 산포가 중요 군사력이었는데 해주 공격 때 선발대를 맡았다고 한다. 『백범일지』

령, 해주 등지에서 관청을 습격하고 일본인과 싸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들도 무장이 잘 된 부대로서 산포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포군이 지닌 반관적 성격 때문에 관이나 지방의 지배세력들이 이들을 이용하여 토벌대로 활용하였다.

당시 농민군의 수는 약 3만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농민군 지역 근거지가 확인되지 않고 활동지역만 나타나기 때문에 농민군이 봉기한 정확한 지역과 그에 따른 농민군 수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농민군 봉기 지역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볼때 해주 지역이 가장 중심이었으며, 그밖에 신천, 장연, 강령 등지가 많았던 듯하다.

2) 농민군의 의식과 활동

농민군의 격문이나 슬로건 등이 나타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이들의 목표나 지향에 대하여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먼저 이들은 봉건권력에 대한 직접적으로 싸웠다. 감영을 비롯하여 여러 읍을 공격하고 문서를 불태우고 군기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았다. 탐관오리를 처단하고 양반 부자를 공격하여 민중의 환호를 받았다고 한다. 지주, 상인 등에 대해서도 직접 공격하였다.

장달조의 경우 동도접주가 되어 각처 요민에게 곡식을 거둔 것이 수백석이고 청룡촌 강희열집에서 빼앗은 조 27석은 火砲에 분급하고 단장촌 이름모르는 김침사집에서 빼앗은 잡곡 36석은 각처 농민에게 農債로 분급하였다고 한다. 김창수의 경우에도 해주 檢丹坊 朴泓錫이 쌓아둔 正租 200석을 빼앗아 송화접주 박원중과 나누어 먹었으며 石潭 李參判의 집에서 돈 250냥을 빼앗았다. 은율에서는 서울로 올라가는 進上錢을 빼앗기도 하였다.

또한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하였는데 주된 대상은 일본이었다. 반일 감정이 격화되고 일본 상인의 황해도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인에 대한 공격도 가해졌다. 이들은 일본 상인이 모은 재물을 빼앗거나 일본군의 군량을 사모으던 일본인을 공격하였다. 김창수는 12월 문화 동산평에 일본인이 쌓아둔 대미 150석을 탈취하여 40석은 都中에서 썼고 나머지 110석은 문화 접주 이동엽에게 빼앗겼다고 한다. 따라서 농민군은 일본과 손을 잡은 개화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황해 감사의 아들에 대해서도 개화당이라고 보고 처단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반면 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해서에서 평산으로 보낸 경통에서도 농민군은 빨리 봉기하여 감사 부자의 머리를 베어 청나라 진에 바친 뒤에야 동도의 장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1895년 8월(양 9월) 장수산에 들어간 농민군들도 스스로 청병의 앞잡이라고 일컬었다. 실제로 황주의 동학당의 경우 청국 패잔병이 조선인 차림을 하여 섞여 있고,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만 고집하지는 않았다. 처음 해주를 점령할 때도 미리 민막에 대한 단자를 올렸으며 해주를 물러나면서도 주요 지도자인 임종현과 최유현 등의 이름으로 소장을 올렸다. 또한 이들이 유생을 표방하고 의를 논하는 것은 삼남 지역과 마찬가지로이다.

